Since 1992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Vol. 400
APRIL 2025 4

© Giorgia Bertazzi

Cover Story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COLUMN 어느날 예술이 행복 공연장에 나를 초대했다

여기, 예술 당신의 장소

202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홍석원

BPO SYMPHONIC SEASON 2025
Seokwon Hong, artistic director

PARADISO

버르토크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Bartók / Piano Concerto No.3

말러 / 교향곡 제4번
Mahler / Symphony No.4

*

지휘 홍석원 / 피아노 박재홍 / 소프라노 박미자

619

2025.4.11 (금)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ww.bscc.or.kr

제이비(JB)아트컴퍼니 초청
명품 콘서트 시리즈
JB ART COMPANY
Piano
Jihoon Jun
R E C I T A L
전지훈 피아노 독주회
PROGRAM
Johannes Brahms (1833 - 1897)
Klavierstücke Op. 118
Modest Mussorgsky (1839 - 1881)
Pictures at an Exhibition
피아니스트 전 지 훈
• 예원학교 재학중 도오(명예졸업장, 예원을 빛낸 인물 표창)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학사, 석사, Postgraduate 최연소 수석 졸업
• 베를린 국립음대(UdK) 전문연주자과정(Diplom) 최우수졸업 및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학위 취득
• 비엔나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쿨 한국인 최초 준우승
• 비엔나 Joseph-Dichler 피아노 콩쿨 1위
•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완주
• 서울대학교 출강 역임,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출강중
2025. 4. 30. | 수 | 오후 7:30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관·주최 | 제이비(JB)아트컴퍼니
| 후원 | 리음아트&컴퍼니 아마데우스
| 티켓 | 전석 2만원(학생증 지참 30% 할인) 입장연령 8세 이상 관람가
| 예매처 | interpark 티켓 1544-1555
| 예매 및 공연문의 | 010.3592.9002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hamber Series II
Zoom-In I

실내악시리즈 II
줌인 I

드뷔시 | 바이올린 소나타, L.140
C. Debussy | Violin Sonata, L.140

차이콥스키 |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中 1번 '명상곡', Op.42
P. I. Tchaikovsky | 'Méditation' from Souvenir d'un lieu cher, Op.42, No.1

라벨 | 치간느, M.76
M. Ravel | Tzigane, M.76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Op.94bis
S. Prokofiev | Violin Sonata No.2, Op.94bis

바이올린 서은아
피아노 이윤수

2025. 4. 30. Wed. 19: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www.bscc.or.kr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일반석 10,000원 문의 607-6000(ARS 1번)

제69회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uko United Korean Orchestra

THE 불새 모음곡(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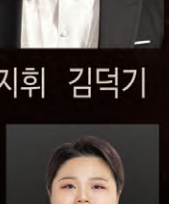
FIREBIRD

유코의 '불새' 그리고...

Igor Stravinsky

United Korean Orchestra

지휘 김덕기



테너 김지호

소프라노 오예은

바리톤 안세범

조르다노 오페라 '페도라' 간주곡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중 3곡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3중창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1919)

2025. 4. 8 TUE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주관 | uko United Korean Orchestra 후원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스타자동차 Mercedes-Benz HOBBYWOOD 법무법인(유한) 正人 밀양병원 MIRYANG HOSPITAL

티켓 | VIP석 10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티켓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30% 단체관람 30% 관람연령 | 5세이상 관람가 문의 | 010.5468.4658

본 공연은 2025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Brunch Concert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Program

국악관현악 명곡 **춘무**
Talk & Music (커피 이야기) **사랑이어라**
생황 협주곡 **환상적**
해금 협주곡 **가면무도회**
홍경민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고맙소 – 한오백년 – 흔들린 우정**

2025. 4. 23 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5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APRIL 2025 **VOL. 400**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홍보마케팅팀장 남양욱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엽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5년 3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08 Column
어느날 예술이 행복 공연장에 나를 초대했다

10 **통권 400호 특집**
월간 <예술의초대> 통권 400호 발간

20 **여기, 예술**
당신의 장소

22 Cultural Issue
땅과 바다에 '실내악' 꽃이 핍니다

24 **무대 뒤 사람들**
음악감독 전현미

26 **현대미술산책**
예술을 혁명하라, 구축주의

32 Cover Story 1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34 Cover Story 2
(재)부산문화회관 2025 하반기 공연프로그램

40 Preview

48 **문화가화제 1**
4월 시범공연으로 본격적인 시동 거는 부산콘서트홀

50 **문화가화제 2**
2025 제43회 부산연극제

54 Review

58 Program Guide

75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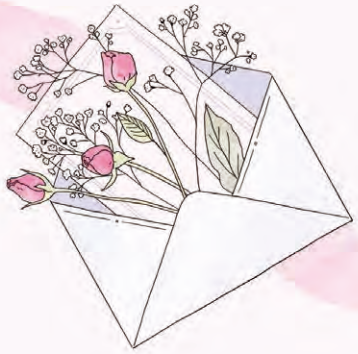
76 BSCC News

81 2025 공연프로그램

어느날 예술이 행복 공연장에 나를 초대했다

- 월간 '예술의초대' 통권 400호에 부쳐 -

글 **박창희** 편집위원, 경성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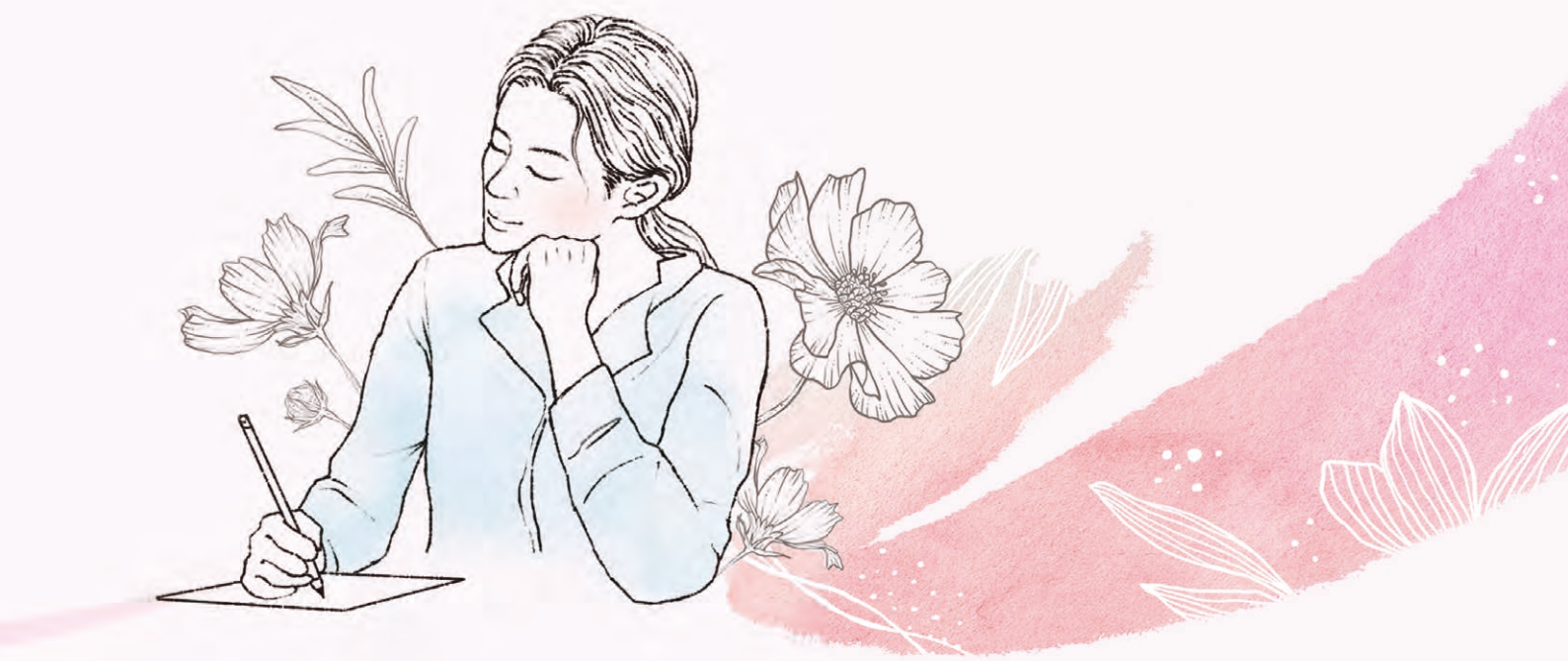
초대(招待), invitation은 좋은 말이다. 누군가로부터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누군가의 특별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어제는 내가 초대했지만 오늘은 초대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 초대는 일상에 행복을 안겨주는 엔돌핀이다. 사랑을 한다는 건 나의 삶 한 부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퇴계 이황은 찾아오는 손님의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고 했다. 그게 '대인지도(待人之道)'다. 실제로 그는 손님에게 술과 고기를 공평하게 대접한 것으로 전한다. 선비들은 주로 남자 손님만 초대하여 잔치를 즐겼다. 실학자 이덕무는 잔치에 가서 음식 맛을 품평하지 말라는 지침을 후손에게 남겼다. 초대에 대한 하나의 예의였다. 조선 선비들은 사람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초대해 연못을 만들고 매화를 키우고 달빛 아래서 음풍농월했다. 그리곤 마지막에 자연의 초대를 받아 흙으로 돌아갔다.

초대의 최고 심급은, 사람도 자연도 아닌, '예술의 초대'가 아닐까 한다. 예술은 기예와 학술을 아우른 말인데, 표현적인 창조활동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게르첸은 "이 세상에서 아무 논란의 여지 없이 순수하게 좋고 선한 것은 여름날 날벼락처럼 찾아오는 개인적 행복과 예술뿐이다"라고 설파했다.

인간은 예술을 만들고 예술은 인간을 초대한다. 예술이 생활속에서 숨쉬는 듯한 아름다운 문화풍경이다. 예술의 초대는 인본주의, 문화주의의 다른 표현이며, 문화나눔·예술향유의 콜라주이다. 낯가림 없이 누구나 초대되고 초대받을 수 있기에 예술자유주의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재)부산문화회관의 월간 매거진 <예술의초대>가 통권 400호를 기록했다. 1992년 1월에 창간해 그간 한번도 결호없이 매월 발행됐다는 게 놀랍다. 400호를 채우는 데 장장 33년,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초대에 초대를 거듭해 초대의 주역이 되었으니 경하할 일이다. 부산의 척박한 잡지문화, 열악한 출판시장을 감안할 때 <예술의초대> 통권 400호는 그 자체로 대기록이자 문화적 사건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잡지 매체들이 일어섰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가.

<예술의초대>가 대기록을 쌓을 수 있었던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불문율이다. 넉넉하지 않은 (재)부산문화회관 예산 중 일부를 배분받아 매월 80여 쪽의 매거진을 발행했다. 관은 지원하되 제작에 간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아마 관에서 예산 지원을 빌미로 '배놔라' '감놔라' 했다면 잡지가 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산 부족을 이긴 건 제작의 자율성이었다.

편집 제작진의 헌신적·열정적 활동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예술의초대> 공식 제작진은 달랑 1명이다. 초창기엔 2명이 담당하다 10여 년전부터 전임 1명이 기획부터 기사 작성, 원고 청탁과 취합, 1차 편집, 독자 관리까지 도맡고 있다. <예술의초대>는 한마디로 이들 편집진이 만들고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예술의초대>는 볼륨이 적지만 내용이 알차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 문화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공연이 볼만한지 알려면 <예술의초대>를 먼저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부산문화회관과 주요 공연장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전시, 문화행사, 문화소식 등이 깨알같이 정리되어 소개된다. 지역의 이슈에 대한 칼럼과 별도로 리뷰, 프리뷰, 기획 시리즈도 볼거리다. 과월호 중 주목받은 인기 기획물을 보면 '부산을 살다간 문인', '예술인생', '세계문화예술현장', '작품 속의 부산', '불멸의 거장', '그림, 풍류를 만나다', '거꾸로 보는 미술사' 등이 꼽힌다. 언제든 찾아서 다시 읽고 싶은 읽을거리다. 이들 기획물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E-BOOK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예술의초대>는 재깍재깍 제작되고 있다. 부산문화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이번 달엔 어느 예술님이 나를 초대할까? 봄바람 결에 나의 감성을 깨울 초대장이 기다려진다. 우리 모두는 초대되고 초대받고 싶다.

부산의 문화와 시민을 잇다

월간 <예술의초대> 통권 **400호** 발간

창간호(1992년 1월호) **400호**(2025년 4월호)

(재)부산문화회관이 발행하는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가 2025년 4월호로 통권 400호를 발간했다.

1992년 1월호를 시작으로 올해로 벌써 창간 33주년을 맞은 <예술의초대>는 3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문화를 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부산의 문화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 창간 당시 4×6배판(188x254㎜) 32페이지, 3천 부를 발행했던 <예술의초대>는 현재 국배판 변형(210×280㎜) 80페이지, 4천 부가 발행되고 있다.

창간 당시 제호는 <예술에의초대>로,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제호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난 2014년, 3월호 제작을 앞두고 지금의 서체로 변경했다. 당시 제호를 두고 번역투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창간호부터 계속 사용된 제호라는데 의미를 두면서 제호 변경은 없었다. 그러다 2019년 편집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를 통해 제호 변경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금의 제호인 <예술의초대>로 변경하고 통권 337호(2020년 1월호)부터 사용하고 있다. 현재 <예술의초대>는 매월 25일경 발행되고 있으며, 책자 발간 후에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E-BOOK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통권 400호를 맞아 400권 속에 담긴, 부산의 생생한 문화현장과 당시의 문화 트렌드를 이끈 다양한 기획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해 <예술의초대> 과월호의 E-BOOK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진 이벤트를 통해 독자들이 뽑은 '기억에 남는 기사'를 함께 공유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최근 들어 <예술의초대>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 공연예술의 기록이자 부산의 문화史 자료로서도 높은 가치와 활용도가 있는 만큼 다음세대에 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존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초창기 자료의 훼손과 유실로 디지털화가 시급하다. 그 첫 시도로 2019년 E-BOOK 에디터 프로그램을 구축, 이듬해인 2020년 1월호부터 E-BOOK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2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한 '문화예술기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창간호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60권의 원문DB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DB를 기반으로 지난해 <예술의초대> 과월호에 대한 E-BOOK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현재는 2006년 1월호부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남은 과월호(1992년 창간호~2005년 12월호)도 추후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의초대>에는 부산 문화계의 지난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지난 30여 년간 <예술의초대>를 통해 연재되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던 기획시리즈를 각 테마별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다

<예술의초대>의 시선은 항상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그 중에는 과거 부산 문단을 거쳐간 문인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부산을 살다간 문인>을 비롯하여 지금은 만날 수 없는, 한 세대를 풍미했던 예인들의 치열한 삶을 그들의 육성을 통해 직접 들었던 <예술인생>, 다양한 장르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창작배경 등을 작가로부터 직접 듣는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부산의 음악 1세대들을 통해 본 부산 음악이야기 <부산 음악을 일군 사람들>, 부산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통해 '부산'을 새롭게 알아가는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등이 있다.

이주홍

고석규

부산을 살다간 문인

1996년 1월호~1997년 4월호

1996년 '문학의 해'를 맞아 마련한 기획시리즈로, 부산 문단에서 활동하다 작고한 문인들 중 독자는 물론 문인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 기억되고 있는 문인들을 선정, 그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본 지면이었다. 소설가이자 시인, 희곡 및 시나리오 작가로 해방 공간의 황량한 부산 문단에 문학의 텃밭을 일군 향파 이주홍 선생을 시작으로, 교통사고로 부산의 대로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청마 유치환, 불우한 시대를 짧게 살다간 시인이자 평론가 고석규, 지역문학의 토대를 쌓은 부산의 작가이자 향토사학자 최해군, 그리고 '부산의 큰 어른'이라 불리는 요산 김정환까지 부산을 살다간 문인 16인의 문학혼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들 문인들 곁에서 창작활동을 지켜본 선배와 동료, 후배 문인들이 필자로 참여, 생생한 목소리로 그들의 삶을 회고한다.

예술인생

1997년 1월호~1998년 12월호

1997년 1월호부터 2년간 연재한 <예술인생>은 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취를 이룬 이 시대 예인(藝人)들의 삶을 그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기획시리즈로, 부산의 대표적인 국가무형문화재인 '동래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의 원양반 예능보유자였던 故 문장원 선생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혼을 불태웠던 24인의 삶을 지면을 통해 담아냈다. 인터뷰 당시 80세였던 문장원 선생을 비롯하여 당시 예인들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인지라,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이들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한 세대를 풍미했던 예인들의 치열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제갈삼

배도순

박봉렬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2004년 1월호~2006년 12월호

2004년 신년호부터 새롭게 연재한 기획시리즈로 음악, 미술, 영화,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창작배경 등을 작가로부터 직접 들어볼 수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바 있다. 시리즈의 첫 주인공은 작곡가 정원상으로, 아름다운 부산의 자연을 노래한 동명의 시 두편에 곡을 붙인 성악곡 '해운대에서(구연식 시)', '금정산의 아침(김상훈 시)'을 직접 소개

신태범 '노인, 새 되어 날다'

김희진 '범일동 부르스'

부산최초의 관현악단을 창단한 김학성

베르디 '가면무도회'

했다. 이밖에 금정산 자락에 자리한 청룡동의 정감넘치는 풍경을 화폭에 담아온 원로화가 황규응,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가 배경이 된 희곡 '노인, 새 되어 날다'의 작가 신태범, 작품 제목처럼 범일동이 배경이 된 영화 '범일동 부르스'의 영화감독 김희진 등 36명의 창작자들이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산음악을 일군 사람들

2004년 2월호~2005년 1월호

2004년 2월호부터 일년간 연재된 <부산음악을 일군 사람들>은 부산의 음악 1세대들을 통해 본 부산 음악이야기로, 1947년 부산 최초의 관현악단(1관 편성)을 창단하여 서양음악의 초석 놓기에 힘을 쏟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학성을 비롯하여 12명의 음악가들을 조명했다. 이들 중에는 초창기 부산 서양음악 문화의 개척자로, 가곡 '그네'의 작곡자인 금수현과 해방 후 부산에서 교편을 잡으며 음악활동을 했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부산 최초로 음악교수로 임용되어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미성의 테너 고성국, 부산시립교향악단 초대 지휘자를 역임한 부산 교향악 운동의 투사 오태균, 한국적인 정신을 강조한 영남악파의 거목 작곡가 이상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2014년 3월호~2016년 2월호

2014년 3월호부터는 부산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통해 '부산'을 새롭게 알아가는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가 연재됐다. 처음 소개된 건축물은 유엔기념공원 정문으로,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이다. 김중업은 "이국 땅에서 평화를 위하여 싸우다 간 여러 나라의 전사들에게 두 손 모아 경건히 바친 작품이다"고 밝힌 바 있다.

행복한 오페라 여행

부산 문화계의 최대 화두였던 '부산오페라하우스', 2020년 개관이 2024년으로 미뤄지면서 그동안 '오페라'에 대한 다양한 시리즈가 연재됐다. '오페라'를 키워드로 처음 연재한 시리즈는 <탁계석의 오페라 산책>이며, 이후로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오페라 백스테이지 투어 <이의주의 백스테이지 오페라>, 그리고 2022년부터 연재된 <세계오페라축제>이다. 특히 <세계오페라축제>에서는 세계 주요 오페라축제의 소개와 함께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부산만의 오페라축제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탁계석의 오페라 산책

2000년 1월호~2001년 2월호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평론가 탁계석과 함께 오페라 산책을 시작했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시작으로 푸치니 '라보엠', 도니제티 '루치아', 베르디 '리골레토', 모차르트 '마술피리'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오페라에서부터 칠레아 '아를르의 여인', 바그너 '방황하는 화란인', 베르디 '포스카리家의 비극' 등 조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까지 친절한 해설로 독자들을 오페라의 세계로 이끌었다.

오페라 '아이다' 연습(with 연출가 이의주, 소프라노 임세경)

이의주의 백스테이지 오페라

2017년 5월호~2020년 2월호

2020년(당시 기준)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페라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시리즈 <이의주의 백스테이지 오페라>가 2017년 5월부터 연재됐다. 최연소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가로 국립오페라단과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던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오페라 백스테이지 투어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아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올 오페라와의 즐거운 만남을 독자들과 함께했다.

오랑주 고대극장

푸치니 오페라 축제

세계오페라축제

2022년 2월호~2023년 4월호

전 세계 주요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오페라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개관(당시 기준)을 앞둔 부산오페라하우스 역시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오페라축제를 운영해야 한다. 2022년 2월호부터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 <세계오페라축제>는 세계 주요 오페라 축제의 소개와 함께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부산만의 오페라축제의 방향을 모색해봤다. 필자인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세계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200편의 오페라를 만났으며, 약 100여 곳의 오페라극장과 20곳 남짓의 오페라축제 현장을 찾은 바 있다.

지구촌 문화현장

<예술의초대>에서는 독자들에게 지역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획 시리즈를 제공해왔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1999년부터 다양한 장르의 여행 가이드가 보내온 전 세계 해외여행기 <세계문화예술기행>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의 해외통신으로부터 생생한 문화현장을 전달받는 <해외 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국내 주요 문화축제 속으로 떠나는 <축제속으로>, 그리고 유럽의 주요 미술관을 소개하는 <유럽박물관기행> 등 다양한 시리즈가 연재됐다.

세계문화예술기행

1999년 6월호~2002년 12월호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고 3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일상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세계문화예술기행>이 연재되던 1999년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지 못한 시기라, 다른 이들의 생생한 해외여행기를 통해 전 세계 국가를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연재에서는 여행가를 비롯해 음악가, 무용가, 화가, 국악인, 연출가 등 다양한 장르의 여행가이드가 동행했으며, 방문한 나라 또한 세계문명의 발생지 이집트를 시작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중국, 네팔, 인도,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영국 등 40곳이 넘는다.

뉴욕에서 만난 조선통신사 (2010년)

해외 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2007년 1월호~2015년 12월호

<예술의초대>에서는 2007년에 들어서며 시선을 보다 넓은 곳으로 돌린다. 기사를 통해서는 만날 수 없는 세계 각지의 생생한 문화현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 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의 연재를 시작한다. 당시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해외 각지에서 유학중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해외 통신원 진용을 꾸렸다. 2007년 1월호로 시작한 이 시리즈는 처음 예상을 넘어 2015년 12월호까지 장장 9년간 연재되면서 해외 여러 곳의 다양한 문화현장을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원연극축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축제속으로

2016년 2월호~2017년 11월호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면서 부산은 '영화도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같은 해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수원연극축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성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원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제이다. 대구는 2000년대 들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라는 굵직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났다. 2016년 2월호 '평창겨울음악제'를 시작으로 연재된 <축제속으로>에서는 이렇듯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축제를 개최 시기에 맞추어 소개했다. 앞에서 소개한 축제 외에도 서울국제즉흥춤축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서울독립영화제 등 22개의 다양한 문화축제 속으로 독자들을 이끌었다.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화

유럽미술관기행

2018년 1월호~2019년 12월호

2018년부터 2년간 연재한 <유럽미술관기행>에서는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을 시작으로 전 세계 24곳의 미술관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인 김성민은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림과 여행이 좋아 10년간 유럽 현지에서 미술관 해설가로 활동하다 귀국, 현재는 한국에서 예술융합강사로 활동 중이다. <유럽미술관기행>에서는 우피치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술관 외에도 시민이 만든 최초의 미술관인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이탈리아 통일 역사를 담고 있는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Kiss)'가 있는 벨베데레 궁전 등 다양한 주제로 독자들과 미술관 투어를 떠났다.

예술과 친해지다

<예술의초대>는 창간 이후 지역의 다양한 공연, 전시 소식을 전하는 공연정보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기획기사로 예술과 독자를 잇는 디딤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쉽게 친해지기 힘든 예술 장르에 독자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등 장르별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해왔다.

국악과 친해집시다

1997년 2월호~1999년 1월호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연재를 시작한 <국악과 친해집시다>는 국악에 관한 초보적인 이론이나 감상을 위한 도움말, 나아가 국악의 장래 등을 다룬, 국악과 쉽게 친해지기 위한 시리즈이다. 1997년부터 1년간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 상임지휘자를 지내고 부산시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있던 이의경이, 그 후 1년간은 부산대학교 국악과 황의종 교수가 맡아 친절한 길라잡이로 독자들을 국악의 세계로 이끌었다.

책속의 미술관

2003년 1월호~12월호

에드가 드가 '압생트'

당시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있던 조선령의 <책속의 미술관>은 압생트를 마시는 남녀의 권태과 고독을 화폭에 담아낸 에드가 드가의 '압생트'부터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사진작가 신디 셔먼의 기묘한 자화상 'Untitled Film Stil #13', 살아있는 비디오아트의 거장 빌 비올라의 비디오아트 '의식' 등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극속으로

2004년 1월호~2007년 12월호

극단 목화 '로미오와 줄리엣'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인 글쓴이 이성섭은 <연극속으로> 연재를 시작하며 '창조적 관객'이 되어보자고 적었다. 2004년 신년호부터 4년간 연재된 <연극속으로>는 이성섭(2004년) 외에도 연극배우 변미선(2005년~2006년), 유상흘(2007년)이 연재를 이어받아 연극 감상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연재 시작을 알린 2004년이 연극 감상에 필요한 지식, 마음자세 등을 익힐 수 있는 연극 입문 과정이었다면, 2005년부터는 이 시대 연극 중 주목받는 연극 속 인물을 통해 한층 깊이있는 연극 보기를 시도했다. 이어 2007년부터는 연극배우 유상흘이 연극배우로서 무대에서 경험하는 재미있는 작업 이야기, 배우로서의 고민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연극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우리춤 산책

2007년 3월호~12월호

승무

2007년 3월부터는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와 함께 우리춤 산책을 떠난다. 이번 시리즈는 우리의 얼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춤사위를 이해하고 우리춤의 흥과 멋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획으로, 태평무를 시작으로 살풀이 춤, 승무, 처용무, 한량무, 봉산탈춤, 강강술래, 검무, 범패와 불교무용, 부채춤 등 우리의 다양한 전통춤을 소개했다.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2007년 3월호~2008년 12월호

홍난파

박태준

2007년 3월호부터는 부산문인협회 회장, 부산시조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퇴계학 부산연구원 원장,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시조시인 김상훈이 우리 가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가곡을 새롭게 감상하는 자리를 만든다. 우리 가곡 하면 떠오르는 홍난파의 '봉선화'를 시작으로 박태준의 '동무생각', '오빠생각', 김동진 '봄이 오면', 현제명 '고향생각', 윤용하 '보리밭', 윤극영 '반달' 등 대표적인 우리 가곡의 탄생 배경과 작품세계를 설명하며 가곡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었다.

데이비드 호크니

생활 속에서 만나는 판화예술이야기

2008년 1월호~2009년 12월호

2008년 1월호부터 2년간 연재된 <생활 속에서 만나는 판화예술이야기>는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로 있던 판화가 채경혜의 시리즈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판화예술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 시리즈에는 37세로 요절하기 전까지 10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369점의 판화를 남겼던 '파리의 영원한 문화아이콘, 로트렉'을 시작으로 동판화기법에 의한 절묘한 명함과 강한 주제성으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고야, 진보적인 여류 판화가로 20세기 판화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 저변에 침투시킨 민중의 증언자 케테 콜비츠 등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여준 작가들과 함께 일본에도를 중심으로 한 서민의 풍속 및 생활, 자연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민화풍의 '우키요에 판화', 우리나라 고서의 표지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능판화' 등 판화와 관련된 다양한 읽을거리로 꾸며졌다.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2008년 3월호~2010년 6월호

월드뮤직에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단지 듣기만 했던 그 음악 속에 담겨진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음악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월드뮤직 음악칼럼니스트인 황윤기는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던 월드뮤직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월드뮤직 속으로 독자와 음악여행을 떠났다.

불멸의 거장

2009년 3월호~2016년 1월호

구스타프 말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가들을 선정, 그들의 작품과 창작세계를 집중조명해보는 <불멸의 거장>은 2009년 3월호를 시작으로 장장 7년간 연재된 장기 기획 시리즈이다. 그 첫 주인공으로 선정된 작곡가 말러는 후기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교향곡 작곡가로, '구스타프 말러' 3부작을 완간하여 음악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은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이 맡아 그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해 소개했다. 1925년 한국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진 홍난파의 음악세계는 음악평론가 김창욱이 안내한다. 이밖에 2010년 탄생 200주년을 맞은 작곡가 쇼팽(노경원·피아니스트, 인제대학교 교수), 중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치바이스(김남희·부산외국어대 교수),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리스트(황윤하·한국리스트협회 회장), 희곡 오페라의 한 양식인 오페라 부파(Opera Buffa)를 확립시킨 작곡가 로시니(김종천·한국오페라부파협회 회장),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백남준(안소현·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위대한 작곡가 바그너(임채홍·한국바그너협회 실행위원), 문학작품으로서 불멸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셰익스피어(송종한·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2015년 탄생 100주년을 맞은 박목월(장윤익·동리목월문학관장), 동래의 화가 변박(강남주·전 부경대학교 총장)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전문 필진을 통해 지면을 거쳐갔다.

구노 '파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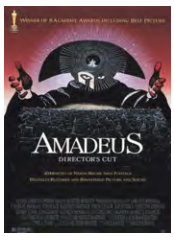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2010년 1월호~2011년 12월호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2012년 1월호~2014년 8월호

어떻게 하면 클래식음악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러 다양한 방법이 많겠지만 중에서도 영화와 함께 듣는다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



아마데우스

운 음악일지라도 기억하기 쉬운 영상과 어우러지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선율처럼 머릿속을 맴돌게 된다. 당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있던 지휘자 이동신은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을 통해 독자들이 클래식음악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했다. 또, 2012년부터는 영화가 아닌 문학으로 클래식음악을 이해하는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를 연재했다. 괴테와 리스트, 셰익스피어와 베르디, 알퐁소 도데와 비제, 세르반데스와 슈트라우스 등 음악에 녹아있는 진솔한 문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림, 풍류를 만나다

2011년 4월호~2014년 2월호

김홍도 '무동'

조선시대 풍속화가 크게 유행하던 18세기, 진정한 서민풍속화를 완성시킨 인물은 바로 단원 김홍도이다. 인물선의 능숙한 처리, 강한 묵선과 부드러운 담채기법의 조화는 김홍도만의 독특한 기법이었고, 인물을 그릴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자유자재로 붓을 춤추게 한 신필의 소유자였다. 그의 풍속도첩 가운데 하나인 '무동'은 신나게 춤추고 있는 소년을 중심으로 연주하고 있는 소규모 악단이 그려져 있다. 이른바 삼현육각이다. 당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던 변광석은 단원 김홍도의 작품 '무동'을 소개하며 김홍도와 작품세계, 그리고 작품의 창작 배경과 그 시대 화풍까지 그 작품에 대해 상세히 그려냈다. 이렇듯 <그림, 풍류를 만나다>는 우리의 전통화 속에 살아있는 선인들의 풍류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그림여행이었다.

거꾸로 보는 미술사

2021년 8월호~2024년 2월호

미론 '원반던지는 사람'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 한다. 미술사 역시 각 시대의 주요한 권력을 가졌던 이들을 위한 미술, 혹은 후대의 관점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예술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렇지만 미술 역시 인간의 삶과 함께하기에, 특정한 경향이나 취향에 맞는 것만이 한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거꾸로 보는 미술사>는 기존에 알던 미술사를 뒤집어보고 그 속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내밀한 언어로 마음을 열다

에세(essai)는 '시험하다, 경험하다, 처음 해보다' 등을 뜻하는 동사 '에세이예(essayer)'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16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상가·철학자인 미셸 드 몽테뉴가 몽테뉴 성 서재에서 칩거하며 죽기 전까지 써내려간 자신만의 내밀한 글을 모은 저서명으로, 우리가 아는 '에세이'는 바로 여기서 유래됐다.

마음을 여는 글 1992년 5월호~2008년 2월호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2010년 1월호~2011년 12월호
시가 있는 풍경 2019년 8월호~2020년 12월호
편집위원 칼럼 2019년 7월호~현재

<예술의초대>가 창간 후 가장 먼저 연재를 시작한 지면은 바로 칼럼란인 <마음을 여는 글>이다. 1992년 5월호부터 연재를 시작한 <마음을 여는 글>은 당시 부산수산대학교 교수이자 시인이었던

강남주 교수의 '우리 예술을 위한 하나의 각서'를 시작으로, 2008년 2월호까지 장장 16년 동안 190여 명이 넘는 필자가 이 지면을 거쳐갔다. 당시 글쓴이를 보자면 소설가 김성종, 연극인 손숙, 시인 이해인, 화가 추연근, 시인 곽재구, 무용가 김온경, 대동병원장 박성환, 동화작가 정진채, 작곡가 황의종, 부산민학회 회장 주경업, 피아니스트 제갈삼 교수, 극작가 김문홍, 연극배우 변미선, 부산프랑스문화원 위베르 세뱅 원장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이 지면을 빛내주었다.

이후에는 섬세한 시인의 감성으로 독자와 소통한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2010년 1월호~2011년 12월호), <시가 있는 풍경>(2019년 8월호~2020년 12월호) 등이 연재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시 울산 은현리라는 시골마을에서 꽃을 키우며 시와 동화를 쓰던 정일근 시인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매달, 은현리 소식에 시인의 감성을 담아 독자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1992년 생면부지의 경남 고성 산골마을로 들어간 시인 동길산은 방문을 열면 산 그림자를 품은 호수가 보이는 그 곳에서 적은 자작시와 짧은 단상을 <시가 있는 풍경>을 통해 소개했다.

이밖에 2019년 <예술의초대> 편집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각 분야의 편집위원들이 현재 <편집위원 칼럼>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그곳에서 문화가족을 만나다

<예술의초대>는 이밖에도 다양한 기획시리즈로 독자와 소통해왔다. 부산의 숨은 문화공간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다양한 동호회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2002년 1월호~2015년 12월호
생활 속 문화공간-골목에서 만나다 2020년 3월호~2023년 2월호
우리는 문화가족 2003년 1월호~2016년 12월호

까페 봄

지난 30여 년간 부산의 문화 풍경은 많은 변화를 가졌다. 수많은 문화공간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또다시 생겨나고 있다. 그 속에서 <예술의초대>는 <그곳에 가면>이라는 지면을 통해 기존의 문화공간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공간 소개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곳에 가면>은 2002년 1월호부터 2015년 12월호까지 총 168곳을 소개했으며, 2016년부터는 신규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연재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 속 문화공간-골목에서 만나다>(2020년 3월호~2023년 2월호)라는 제목으로 문화가 일상이 되는 지역의 숨은 문화공간을 소개하기도 했다. 부산의 문화공간과 더불어 <예술의초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를 오랜기간 <우리는 문화가족>이라는 지면을 통해 알려왔다. 2003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우리는 문화가족>은 2016년까지 그동안 140여 동호회를 소개했다.

독자들이 뽑은 기사

<예술의초대>에서는 과월호 일부에 대한 E-BOOK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하며 '독자들이 뽑은 기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독자분께 감사드리며 선정된 여섯 분의 선정 이유를 게재합니다.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2006년 1월호)

단소 악보를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 다시 봤습니다. 단소만 있으면 바로 나도 태 태황 무(무궁~화) 연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1인 1기를 배우자는 기획은 지금도 손색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010-****-5529

커버스토리 국립발레단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2011년 12월호)

유년시절, 연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공연을 보러 갔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작품이 호두까기 인형 뮤지컬이다. 이 기사를 보며 어릴때의 추억이 떠올랐고 어른이 되서 보는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예술은 그런것 같다. 사람이 자라면서 보고 겪고 느끼는 깊이를 달리 만들어 주는 것. 구독자들이 <예술의초대>를 읽으며 예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010-****-1132

불멸의 거장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백남준 (2012년 10월호~12월호)

어렸을때 과천 현대미술관에서 본 미디어 아트가 아직도 인상 깊은데 기획시리즈를 통해 백남준 작가에 대해 잘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010-****-9702

커버스토리 '스타일은 영원하다-노먼 파킨슨展' (2019년 2월호)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부산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행사 또는 전시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문화회관에서 <예술의초대>를 E-BOOK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열람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스타일은 영원하다-노먼 파킨슨展'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람한 지 오래된 전시여서 잊고 있었는데 <예술의초대> E-BOOK을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부산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에릭 요한슨展'을 관람했던 기억도 떠오르며, 앞으로도 부산문화회관에서도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진행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010-****-0669

문화계 이슈 '기후위기 시대 공연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나' (2024년 9월호)

'기후위기시대 공연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나' 기사가 기억에 남았어요. 영국에서도 공연을 할때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술가들이 직접 나서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을 가려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탄소중립실천을 위해서 모범이 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비록 우리나라는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작은 변화가 큰 영향력을 줄 거라 믿고 있어요. 예술계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변화를 강구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010-****-9567

칼럼 '체셔 고양이의 웃음' (2019년 12월호)

이 기사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고양이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예술과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매우 좋아하는데 기사에서 고양이가 가진 신비로운 이미지와 역사 속에서 변해온 인간과의 관계를 분석하며 예술적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 감탄스러웠습니다. 이를 통해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기사로 남았습니다.

010-****-3013

당신의 장소

글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사람들은 집과 일터가 아닌 특별한, 자기만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들과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취향을 공유한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는 저서 *The Great Good Place*(1989)에서 이러한 곳을 제3의 장소(The Third Place)라고 개념화하였다. 제1의 장소는 집, 제2의 장소는 일터이다. 그리고 제3의 장소는 일상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카페, 펍, 서점, 공원, 광장, 혹은 비공식적 모임 같은 곳이다. 이곳은 개방적이고 비형식적이며 유연한 분위기를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다.

여론의 아고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는 아고라와 포럼이 그런 곳이었다. 그곳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동안,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으로 수렴되기도 하는 곳.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의 활동은 비공식적 공공생활이 된다. 이런 이유에서였을까. 18세기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3세(Gustav III)는 커피하우스가 정치적 토론과 반정부 정서를 퍼뜨리는 여론 형성의 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커피와 커피 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였다.

18세기 프랑스에서도 카페와 살롱은 정치적, 철학적 토론을 벌이는 장소였다. 당시 루이 16세(Louis XVI)는 카페를 잠재적인 반정부 활동의 거점으로 인식했고, 감시를 강화하거나 일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구소련에서는 사적인 토론 모임 등의 비공식 모임이 반체제 활동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미국 역시 다르지 않았다. 1950년대 매카시즘(McCarthyism) 시기 카페, 바, 도서관 같은 곳이 반정부 여론 형성의 장소로 감시받았었다.

이처럼 광장, 카페와 같은 제3의 장소는 전체주의의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 여론의 아고라가 되어 왔다.

문학과 예술은 이곳에서

제3의 장소는 시대를 여는 문학과 예술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1650년 영국 옥스퍼드에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이 시기 커피하우스는 모든 계급에 대해 개방성이 있었으며, 활발한 정

보 교류의 장으로 인기가 높았다. 또한 이곳은 17, 18세기 영문학과 저널리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커피하우스에는 작가, 사상가, 언론인들이 모여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작품의 영감과 소재를 발굴했으며, 독자층도 확보할 수 있었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존 드라이든(John Dryden)은 윌리엄 어원의 커피하우스(William Urwin's Coffeehouse)에서 시와 연극 논평을 하였으며, 문필가 조지프 애디슨(Joseph Addison)은 버튼스 커피하우스(Button's Coffee House)에서 문학, 정치, 사회적 논의를 펼쳤다. 그는 리처드 스틸(Richard Steele)과 함께 1709년 <타틀러(The Tatler)>를 창간하였다. 타틀러 지는 풍자, 문학, 사회 비평 등을 다루며 에세이 형식의 저널리즘을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저널리즘은 1711년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창간으로 이어졌다. 조지프 애디슨은 1713년 <가디언(The Guardian)>(현재의 영국신문 가디언과는 별개임. 필자)도 창간하여 문학과 정치 논평을 실었다.

1916년 다다이스트들이 자신들의 예술철학을 '다다(Dada)'라고 선언한 곳도 스위스 취리히의 카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였다. 후고 발(Hugo Ball)과 에미 헤닝스(Emmy Hennings)가 창립한 이곳은 전위적인 시 낭송, 연극, 음악, 퍼포먼스가 혼합된 실험적인 예술이 펼쳐지는 장소였다. 다다이스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침울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기존 사회 질서와 예술 개념을 비판하며 반예술운동을 펼쳤다. 제3의 장소는 그들에게 사상적, 예술적 영감을 캐내는 광산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존재의 마주침

여론의 아고라이자 문학과 예술이 태어나는 곳인 제3의 장소는 우리 모두가 개별적 인격체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3의 장소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로 인한 공간의 단절을 연결하는 곳이며 새로운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는 사이 영역이다. 그래서인지 도시인들은 카페나 펍에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분주해 보이지만, 큰 도시일수록 그런 곳들은 많다.

앤디 메리필드(Andy Merrifield)는 도시가 주는 마주침(Encounter)을 강조했다. 마주침이란 사람들이 인간 존재로 어떻게 한데 어울리느냐 하는 이야기, 집단이 왜 형성되고,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며, 여러 영역을 교차하는 정치가 도시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앤디 메리필드, 김병화 역, 『마주침의 정치』, 이후, 2015, p. 105). 제3의 장소는 이러한 마주침의 장소이다.

오기가미 나오코(Ogigami Naoko) 감독의 영화 <카모메 식당>(2007)은 자본이 지배하는 도시 속, 존재의 마주침이 일어나는 제3의 장소를 보여준다. 헬싱키 길가, 사치에는 식당 카모메를 열었지만, 한동안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은 친구가 없는 토미, 딱히 갈 곳이 없는 미도리, 마사코, 그리고 이저런 사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마침내 사치에의 커피, 계피롤, 주먹밥, 생선구이, 술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카모메 식당을 찾는 이들은 식사 이상의 정서적 포만감을 채웠다.

마이크 뉴얼(Mike Newell) 감독의 영화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2018)에서도 2차 세계대전 중 건지섬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통해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독서 모임이 이들에게는 위험한 시대를 건널 수 있도록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제3의 장소였다.

경제 불황과 같은 여러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 부산도 은둔형 외톨이들이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만 2,50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부산연구원,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2023). 「2024년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부산문화재단) 결과, 부산지역 거주지 주변 문화환경에 대해 충분성과 다양성, 정보 취득의 용이성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좀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에게도 공간이든, 동아리이든, 제3의 장소가 좀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영화 속 이야기처럼 자신만의 '마주침' 장소만 있더라도 우리는 힘이 난다.

땅과 바다에 '실내악' 꽃이 핍니다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2025년, 클래식 음악계는 다른 해에 비해 국내외 유명 실내악단과 실내악 축제가 봄의 시간을 물들인다.

현악 4중주로 여는 봄

콰르텟은 두 대의 바이올린·비올라·첼로로 구성된 현악 4중주단을 일컫는다. 사실 음악사를 찾아보면 석 대의 현악기와 한 대의 관악기로 구성되는 등 다양한 구성의 '콰르텟'(4중주)을 찾아볼 수 있으나, 오늘날 '콰르텟'은 대부분 현악 4중주로 통용된다.

실내악 장르에서도 현악 4중주 구성은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유명 작곡가들도 이 구성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보통 '4'라는 숫자는 불길한 징조 같지만, 음악에서 '4'는 대단히 중요하다. 합창단도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라는 4개의 성부이고, 오케스트라의 구성도 현악·목관·금관·타악기로 4개 군이다. 아마 긴장의 홀수인 '3'보다는 안정의 사각형인 '4'가 더 든든해서였던 걸까.

사실 '4'라는 숫자에는 '1'과 '3'의 홀수도 있고, '2'와 '4'라는 짝수도 있다. 그만큼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세계지만, 홀수와 짝수가 어우러지는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현악 4중주였다.

4월의 통영국제음악제에는 특별하게도 두 팀의 현악 4중단이 무대에 동시에 올라 '8중주'를 선보인다. 1일에는 에네스쿠의 8중주곡을, 2일에는 멘델스존의 8중주곡이다. 이들의 행보는 서울 롯데콘서트홀로도 이어져 콰르텟마다의 진수를 선보이는 단독 리사이틀을 갖는다. 3일 에벤 콰르텟이, 4일 벨체아 콰르텟이다. 일종의 시리즈 공연으로 노부스 콰르텟과 아벨 콰르텟을 키워내며 한국 '실내악의 명가'로 자부하는 기획사 목프로덕션이 선보이는 '월드 스트링 콰르텟 시리즈'의 일원이다.

벨체아 콰르텟 ©Maurice_Haas

에벤 콰르텟 ©JulienMignot

11월 9일(서울 롯데콘서트홀)에는 하겐 콰르텟이 내한해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는다.

봄날의 실내악 축제

"봄날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프랑스아 사강의 소설이 있다면, 4월에 "봄날의 실내악을 좋아하세요?"라고 묻게 만드는 축제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일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제20회를 맞아 더욱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 축제에는 해마다 대표 제목과 콘셉트가 있다. 올해 주제는 <20 Candles>로, 음악의 케이크에 꽂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개의 촛불로 '20회'를 자축한다. 무엇보다 '20회'라는 숫자와 의미를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공연마다 '20'이라는 숫자로 흥미롭고 의미있는 콘셉트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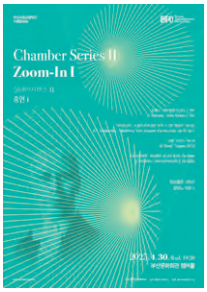
4월 23일 공연 <20 for the 20th>(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는 20회를 축하하고자 20인의 음악가가 한 무대에서 만나고, 25일 공연 <Early Days-초창기 시절>(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는 제1회와 제2회 축제를 회고하며 그때의 작품들을 다시 선보인다. 음악 작품에 붙어 있는 작품 번호(Opus) 중 '20'이라는 숫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작품번호 20'이 붙은 베토벤·브람스·멘델스존의 유명 실내악곡을 모아 27일 공연 <Opus 20>(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선보인다.

20년을 돌이켜볼 때 축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을 모은 29일 공연 <All-Time Favorites 최애곡>(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대의 베토벤·슈베르트·볼프·브람스가 쓴 작품만 모은 5월 3일 공연 <Sweet 20s 달콤한 20대>(IBK기업은행챔버홀)에는 축제 중 20대 음악가들이 가장 많이 출연하는 무대다.

4월, 부산에도 실내악꽃이 핀다

실내악 장르에서의 악기 편성은 2중주부터 5중주까지가 가장 보편적이고, 9중주 이상을 넘어가면 실내악보다는 관현악의 범주에 들게 된다. 그런 점에서 독주회나 리사이틀도 엄연히 실내악 중 '2중주'에 해당한다.

4월의 봄, 부산에서도 특색 있는 실내악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기획음악회로 '실내악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4월 30일,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인 '줌인 I'은 부산시향의 제2바이올린 수석 서은아, 부산대 교수인 피아니스트 이윤아가 함께 하는 무대이다. 드뷔시·차이콥스키·프로코피예프, 그리고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 하는 2중주 실내악곡을 선보인다.



부산시향 실내악시리즈 (4월 30일)

부산콘서트홀이 정식 개관을 앞두고 선보이는 시범 공연에서도 실내악의 묘미를 만날 수 있다. 4월 26일 부산콘서트홀 챔버홀에 오르는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의 '더 사운드 오브 스트링즈(The Sound of Strings)' 공연이다.

더 사운드 오브 스트링즈는 2010년에 창단된 단체로 바로크 시기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랑하는 단체로,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바이올린·비올라·첼로·더블베이스 그리고 건반악기인 첼발로 등 13명으로 구성된 이 앙상블은 실내악치고는 규모가 크다. 9중주가 되면 실내악보다도 관현악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내 관현악'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남다른 '규모'와 '크기'로 실내악의 남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흐의 아들)의 교향곡,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1043, 텔레만의 '돈키호테' 모음곡을 선사한다. 부산콘서트홀에 위치한 2,00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함께 400석의 챔버홀도 부산의 실내악 지형도를 바꿀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음악, 연극과 인간을 간절하게 묶는 힘

음악감독 **전현미**

글 **박나무** 자유기고가

"생각의 크기가 100이라면, 그 중에 30%를 글로 써내면 몹시 잘 하는 편이다. 말은 더 어렵다. 생각의 5%도 제대로 말하기 힘들다. 결국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덕에 대학 강의실에 앉을 기회가 있었고, 그중 국어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의 말씀 한 줄 가슴에 박혔다. 생각의 크기가 작으니까 글도 말도 내겐 그렇게 어려운 것이겠구나 싶다. 그래서 음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선율과 박자와 리듬에 잘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음악가들 아닐까 싶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렇다고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음악"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당사자들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부분도 있겠으나, 청자의 입장에선 다분히 그러하다.

여기 연극이라는 장르가 있다. 배우가 대사를 읊고 손짓과 발짓과 표정으로 대본을 연기로 녹여내겠지만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또한 다 보여주는 것이 잘 보여주는 것일까? 숨겨놓은 것 혹은 표현하지 못한 것이 더 진실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음악의 책무와 역할은 더 크기만 한 것 같다. 그래서 비록 연극판이 열악해도 음악은 꼭 함께 간다. 비록 가난한 연극이라 하더라도 음악의 진동과 감동만큼은 차별없이 무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다. 또 때로는 배우와 관객을 함께 슬픔과 고통의 나락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그러나 연극과 함께한 음악은 연극이 끝남과 동시에 휘발되는 느낌이다. 영화나 드라마는 무한반복되지만, 연극의 음악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더 애틋하다.

부산의 연극판을 음악이라는 도구로 꾸준히 지켜내고 있는 전현미 음악감독을 만난다. 2000년대 초반 '동그라미 그리기' 극단에서 시작된 그의 연극음악은 20여 년 지속되고 있다. 연극음악이라 하면 기성음악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서 발췌하면 되는 것으로 알던 시절부터다. 테이프에 여러 부분들 녹음했다가 재생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콤팩트디스크(CD)에 구워넣다가, 잠깐 미니디스크(MD) 시절을 지나 이제는 큐랩(QLab)이라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시절까지 왔다. 도구는 달라졌어도 작업의 시작은 건반이다. 소싯적부터 피아노를 좋아했으나, 여건에 밀려 대학에서는 정작 철학을 전공한 것이 어쩌면 연극음악을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도 싶다. 극본을 읽고 배우들의 리딩을 살핀 후 연주하면서 곡을 만든다. 연출가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음악감독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음악도 하나의 중요한 등장인물이라고 본다면, 어떤 역할을 맡겨도 좋은 든든한 배우가 늘 곁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음악 잘 들었다는 인사가 이제는 반갑지 않다. 음악은 연극이 잘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는 우쭐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젠 우리의 호흡이 자연스럽듯 공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좋다. 그동안은 연극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서 혼자 떠안은 것마냥 지켜왔지만 이제는 총기있는 젊은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조금 나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가고 싶다. 그래서 공연에 결합할 수 있는 음악인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을 모으는 장치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모양이다. 한 해에 스무 개 정도의 공연을 소화했던 적도 있고, 2012년과 2103년 연달아

무대예술상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하현관예술인상을 처음으로 받는 영광도 있었다. 여건이 닿는다면 강원도와 수도권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몸에 탈이 나고서야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이의 음악작업이 이제는 꾸준하지만 귀하게 우리 귓가에 와닿길 바란다. 오는 4월 24일부터 사흘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김숙경 연출의 <태양 아래 널브러진 개>에서 전현미의 음악을 만날 수 있겠다. 기다리기가 힘들다면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해도 검색창에 '현미밴드'를 입력하면 배우들이 그이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얌전하게 노래만 하지는 않고 짧은 연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재작년 부산버스킹페스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력이니 기대해도 좋겠다. 전현미는 이 밴드에서 리더이면서 건반을 맡고 있다.

"봄꽃같은 사람이다. 언 땅을 밀고 어느새 봉우리로 꽃으로 환하게 하는 그녀에겐 창조적인 힘이 있다. 연극이 종합예술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힘은 아마도 음악의 강력한 힘 때문일 것이다. 작품에 생기와 색채를 입히고 공연을 굳건하게 무대위에 서게 하는 힘, 그녀의 오랜 작업과정은 작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 그에 걸맞는 음악이 탄생하는 것이다. 연극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공연과 밴드활동으로 봄꽃같은 그녀의 진화는 계속 지속될 것임을 확신하며 응원한다"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한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황미애 대표의 바람과 축복으로 오늘의 마무리를 갈음해본다.

예술을 혁명하라, 구축주의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20세기 초에 일어난 전쟁과 혁명은 예술의 개념과 경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예술가들에게 예술이란 세상을 바꿀 무기였으니 예술은 일상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해야 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1917년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의 예술가들을 지배했는데, 이들의 급진적인 주장은 곧 유럽과 미국 예술계에 영향을 끼쳤고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삶을 조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당시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술은 거침없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 왜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활발하게 일어난 것일까?

20세기 초, 추상미술의 등장으로 인해 화가들은 위인의 이야기나,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하는 재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주관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1910년대까지 미술의 변방이었던 러시아는 유럽에서 유행하는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야수주의 등과 같은 당대 현대미술을 모방 및 변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입체주의와 추상미술 그리고 러시아 혁명(1917)은 러시아 미술이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전조는 1915년 열린 역사적인 전시회 <마지막 미래주의 전시: 0,10>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1915)이 최초로 전시되었으며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Tatlin, 1885~1953)의 혁신적인 조각 <모서리 역부조(Counter-relief)>(1914)가 함께 전시되었다.

말레비치와 타틀린은 추상을 추구했지만, 둘의 지향점은 달랐다. 말레비치는 재현적 형태에서 벗어나 온전히 비재현적 미술을 만들고자 하였고, 결국 형태와 색채는 극단적으로 간소해져 검은 사각형이 되었다. 말레비치의 비재현성은 결국 물질을 넘어선 정신의 세계에 가닿게 되고 그림을 보는 관람자는 형태와 색채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일종의 명상적 체험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타틀린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작품의 물질적 성질이었다. 타틀린은 1913년 피카소의 작업실에서 종이를 이어붙여 조립한 <기타>나 잡동사니로 만든 아상블라주 작품을 보았다, 그는 피카소의 논리를 밀어붙여 완전히 비재현적이면서도 기존의 조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조각인 <모서리 역부조>를 만들어 냈다.

<모서리 역부조>는 두 벽면이 만나는 모서리에 걸쳐 붙어 있지만, 이차원 평면을 거부하고 3차원으로 돌출해 있다. 이 조각은 깎아내고 살을 붙이는 기존의 방식 대신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금속, 철, 목제 등을 이어붙여 구성하였다. 그러자 조각은 3차원 입체로 표현된 환조와 평면 위에 조각된 부조의 경계를 허무는 동시에, 일반적인 사물의 형상이 대신, 새로운 형태와 재료의 고유한 물성이 전면에 드러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형상에 비해 물질적 차원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던 기존 서양미술에 대한 전통을 깨부수는 것이면서도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준 유물론(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태도, 이론)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타틀린은 조각에서 재현에 대한 강박을 해체하고 산업재료를 활용하여 조각에서 재료의 물성을 드러내면서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혁명에 걸맞은 유물론적 예술 개념을 보여주었다.

추상을 통해 정신성으로 나아가려 했던 칸딘스키나, 말레비치와 달리 타틀린에게 추상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블라디미르 타틀린, 〈모서리 역부조〉, 1914, 철, 구리, 나무, 강철 밧줄 등 혼합재료, 71×118cm, 러시아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위한 현실적인 도구였기에, 예술이란 현실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었다. 예술에 대한 타틀린의 노선은 곧 러시아 혁명과 맞닿아 새 시대를 건설하려는 예술가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예술을 삶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구축하려는 러시아 구축주의(constructivism)로 발현되었다. 러시아 혁명이 잔혹했던 황제 통치를 무너트리고 노동자 시민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려 했던 것처럼 러시아 아방가드르 예술가들도 이전까지 특권 계급만 누렸던 예술을 모두에게 개방하고,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로 나아갔다. 따라서 이들이 순수 예술을 넘어 건축, 디자인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여정이었다. 건축과 디자인이야말로 삶을 구축하는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타틀린은 이후,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400m 높이의 건축물인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타틀린의 탑)>(1919~1920)을 구상했다. 타틀린의 탑은 비스듬하게 세워진 내부 기둥을 나선이 감싸며 위로 상승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 러시아 혁명과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자 하였다. 건물 안에서는 공공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노동의 장이 될 예정이었으나, 기술력과 자금의 문제로 탑은 세워지진 않았다. 그러나 타틀린의 탑은 기념비의 상징성과 공공건축물을 결합한 시도로 역동적인 사회변화를 시각화했으며 현대 공공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한 작품이다.

블라디미르 타틀린,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타틀린의 탑)〉 모형, 1920, 모스크바

리시츠키(El Lissitzky, 1890~1941)와 로드첸코(Alexander Rodchenko, 1891~1956)는 캔버스를 벗어나 포스터, 잡지, 타이포그래피, 가구, 각종 제품, 공간 디자인 등으로까지 나아갔다. 리시츠키는 추상미술을 활용하여 혁명 이념을 선전하는 포스터 <붉은 쐐기로 백위군을 무찔러라>(1919)를 선보였다.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붉은 삼각형은 볼셰비키 군대(적군, Red Army)를, 흰색 원은 반혁명 세력인 백위군(Withe Army)을 상징하며 적군이 백위군을 공격하는 모습을 기하학적 도형과 원색을 활용해 직관적이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이 포스터는 프로파간다를 넘어 새로운 시각언어를 창조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이후 인쇄물, 디지털 매체의 그래픽 디자인, 광고 디자인에 영향을 준다.

로드첸코는 그래픽 디자인을 넘어 종합 환경을 구축했는데, 1925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장식-산업미술전'의 소비에트 관에 러시아의 선진적인 노동환경을 홍보하기 위해 <노동자 클럽>을 설치하였다. 노동자 클럽은 공부, 휴식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목적에 따라 벽과 테이블 등을 변형,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기능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꾀했다. 이처럼 구축주의자들은 사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야 했다. 따라서 구축주의자들에게 예술가, 기술자, 디자이너는 한 몸이었으며, 이들은 하나의 목적, 개념(concept) 아래 공간과 사물의 통일성을 꾀하면서도 조형적 아름다움, 기능성,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현대 디자인의 선구적 면모를 보여줬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러시아 현대미술이 다양한 실험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했던 시대적 소명과 뗄 수 없다. 입체주의와 추상미술 등 당대 현대미술은 기존의 전통을 부수고 새로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당시 러시아의 분위기에 잘 부응하였기에 정부는 추상미술을 후원, 장려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스탈린의 독재 체제가 확립되면서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게 변하였고, 한편 세계는 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스탈린 정권은 이 새로운 예술을 억압하며 과거로 회귀하여 예술가들에게 사실적이면서도 이상적으로 지도자와 당의 이념을 표현할 것을 명령하였다. 상황이 급변하자 몇몇 예술가들은 유럽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새로운 실험을 이어갔다.

엘 리시츠키, 〈붉은 쐐기로 백위군을 무찔러라〉, 1919, 포스터, 컬러 석판화, 인쇄, 보스턴 미술관, 보스턴

INVITATION TO THE ARTS

ㄱ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ㄷ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ㅁ	
무지크바움	070-7692-0747
ㅂ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ㅅ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ㅇ	
액터스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ㅈ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ㅎ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아트홀	1600-1602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SUN	MON	TUE	W
사랑채 극장 ◈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 3월 5일(수)-6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주말·공휴일 오전 11:00 ※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메멘토'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
6 '너의 이름은' 필름 콘서트 15:00 대 14만원·11만원·9만원·7만원 필뮤직 컴퍼니(010-8675-4559) 제3회 마린뮤즈콰이어 정기연주회 18:30 중 초대/마린뮤즈콰이어(010-5503-9693) 최영주 귀국 피아노 독주회 17:00 챔 초대/최영주(010-5772-4291)	7	8 제69회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유코의 '불새' 그리고… 19:30 대 10만원·5만원·3만원·2만원 UKO(010-5468-4658)	9 KNN방송교향악단 월드 테너 김재형이 들려주는 대 5만원3만원2만원/KN
13 제34회 부산무용제 19:30 중 초대/(사)부산무용협회(632-5116)	14	15	16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 '어릴적예(藝)'_가족뮤 09:30, 10:40 중 3만원·2만원/예술집단
20 이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Rewind Concert '10년의 울림' 15:00 중 이안오케스트라(010-2290-9463)	21	22 ◈ 뮤지컬 '웃는 남자' 19: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공연마루(1588-0766)	23 ◈ 뮤지컬 '웃는 남자' 1 대 17만원·14만원·11만원 ㈜공연마루(1588-0 ◈ 부산시립국악관현악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 중 전석 1만원/(재)부산
27 2025년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안무가육성경연 결선 18:00 중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2) 차지희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챔 전석2만원/예인예술기획(02-586-0945)	28	29 임시수도기념관과 함께하는 부산 전성시대 19:30 중 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 카운터테너 지필두 귀국독창회 19:30 챔 지필두(010-5873-8714)	30 전지훈 피아노 독주회 1 중 전석 2만원/제이비아트 ◈ 부산시립교향악단 실 '줌인(Zoom-in) I' 1 챔 전석 1만원/(재)부산문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챔 챔버홀 사 사랑채극장 야 야외광장

◈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D	THU	FRI	SAT
	3 제56회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19:30 대 유나이티드문화재단(010-8533-9868)	**4** Sound of Busan #2: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_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19:3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랑데부' 19:30 중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정의운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챔 무료/정의운(010-3562-0242)	**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랑데부' 15:00 중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김승현 귀국 독창회 17:00 챔 전석 2만원/김승현(010-9619-9003)
클래스 스타 시리즈 '사계' 19:30 방송교향악단(850-9568)	**1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이리나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챔 전석 1만원/IPB(010-2290-9463)	**11**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9회 정기연주회 'Paradiso'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2** 제34회 부산무용제 19:30 중 초대/(사)부산무용협회(632-5116) 캔들라이트 벚꽃 16:00, 19:30 챔 6만6천원·4만6천원·3만2천원 크세모스코리아(080-352-8774)
관람 지원사업 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단 하우(1551-0955)	**17**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_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09:30, 10:40 중 3만원·2만원/예술집단 하우(1551-0955)	**18** 깐딴떼부산 제3회 정기공연 'The Best of Opera' 19:30 중 3만원·2만원/깐딴떼부산(010-9550-4649)	**19**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Classic in Movie' 17:00 중 5만원·3만원/BMPO(070-7727-0188)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17:00 챔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9:30 원·8만원 766) 단 특별연주회 곡악 살롱, Salon' 11:00 문화회관(607-6000)	**24** 뮤지컬 '웃는 남자' 19: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공연마루(1588-0766) 부산예그리나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19:00 중 무료/부산예그리나합창단(010-3841-7402)	**25** 뮤지컬 '웃는 남자' 14:30, 19: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공연마루(1588-0766) 트리오 피아체 연주회 '슈만&멘델스존'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곽문정 플루트 독주회 19:30 챔 초대/미트(010-2682-6971)	**26** 뮤지컬 '웃는 남자' 14:00, 19:0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공연마루(1588-0766)
9:30 퍼니(010-3592-9002) 내악 시리즈 II 19:30 문화회관(607-6000)			전시실 제1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 4월 9일(수)-4월 12일(토) (사)국민예술협회 245-2521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부산시민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SUN	MON	TUE	WE
		1	2
6 **베베핀 뮤지컬 '우당탕탕 패밀리'** **11:00, 14:00, 16:30** 대 7만원·5만5천원(예매시 40% 할인) ㈜애드칸(02-586-0622)	7	8	9
13 **제2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판타지아'** **11:00, 15:00** 소 전석 4만원/(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14	15	16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 **'어릴적예(藝)'_아트내상** **10:30** 소 아트내상스(010-920
20	21	22	23
27 **뮤지컬 '돈 주앙'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14:00, 18: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공연마루(1588-0766)	28	29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_로봇과 함께하는 오페라 북콘서트 '마술피리' 10:30** 소 전석 1만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	30 **국제로터리 지구대회 콘** 대 (사)월드엔젤피스예술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 **오페라 북콘서트 '마술피** 소 전석 1만2천원/부산시 (607-3113, 3115)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연 연습실 전 전시실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D	THU	FRI	SAT
	3	**4**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초월자' 19:3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5** 베베핀 뮤지컬 '우당탕탕 패밀리' 11:00, 14:00, 16:30 대 7만원·5만5천원(예매시 40% 할인) ㈜애드칸(02-586-0622)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초월자' 17:0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0	**11** 2025 시민뜨락축제 '김경모 재즈밴드, 루미너스 색소폰 앙상블' 12:1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2** 제2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판타지아' 17:00 소 전석 4만원/(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람 지원사업 스 오페라 '어린왕자' 04-5854)	**17**	**18** 2025 시민뜨락축제 '헤이브 퓨전국악, 루치아 앙상블' 12:1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9** 2025 신나는 음악회_클래식 악기 체험공연 '악기야 놀자' 11:00, 14:00 소 전석 3만5천원/꾸러기예술단(02-547-9851)
	24 연극 '태양 아래 널브러진 개' 19:30 소 전석 3만원(만 14세이상 관람) 문화판 모이라(010-9701-0712)	**25** 뮤지컬 '돈 주앙'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19: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공연마루(1588-0766) 연극 '태양 아래 널브러진 개' 19:30 소 전석 3만원(만 14세이상 관람) 문화판 모이라(010-9701-0712) 2025 시민뜨락축제 '강혜인 재즈밴드, 쿠나' 12:1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6** 뮤지컬 '돈 주앙'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14:00, 18: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공연마루(1588-0766) 연극 '태양 아래 널브러진 개' 15:00 소 전석 3만원(만 14세이상 관람) 문화판 모이라(010-9701-0712)
서트 16:00 단(557-6072) 육공연 로봇과 함께하는 리' 10:30 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전시실** 2025년 노화와 장애-포토 보이스 전시회 · 4월 2일(수)-4월 6일(토) 전시실 1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02-2272-1393 Belonging Nowhere, Belonging Everywhere (그 어디에도 거하지 않기에 그 모든 곳에 거할 수 있는) · 4월 12일(토)-4월 18일(금) 전시실 1 회화전 010-8398-6002	국정 김현봉 선생 유작 전시회 · 4월 10일(목)-4월 13일(일) 전시실 2 한빛 갤러리 010-4317-7715 조경구 개인전 · 4월 15일(화)-4월 20일(일) 전시실 2 회화전 010-4574-1041 제27회 한국해석회 회원전 · 4월 26일(토)-4월 27일(일) 전시실 1, 2 한국해석회 010-3579-1131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끊임없이 탐구하는 연주자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가 5월 2일 부산을 찾는다. 독일 전통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잇는 테츨라프는 바로크부터 고전, 낭만, 현대음악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진정성 있는 연주로 사랑받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드레스덴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의 상주 음악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했으며, 2019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올해의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한국 관객과도 친숙하다.

독일 전통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잇다

테츨라프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주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연주는 종종 익숙한 작품들도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도록 한다. 그는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요제프 요하임의 바이올린 협주곡, 또는 모차르트, 베토벤의 동시대 음악가인 조반니 비오티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2번 등 잊혀진 명곡들에게 자주 관심을 기울이며, 독일의 현대음악 작곡가 외르크 비트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초연하는 등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열정 덕분에 테츨라프는 보기 드문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100회가 넘는 콘서트 무대에 서고 있다.

폭넓은 레퍼토리와 진정성 있는 연주

독일 함부르크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테츨라프는 6세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함께 배웠고, 초기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가 열 살이 되던 해, 음악가들의 삶을 다룬 책을 읽고 비로소 음악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음악가로 선택한 후, 열네 살의 나이에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데뷔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뤼벡 국립음대와 미국 신시내티 음악원에서 전문적인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일시	5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금액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989년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가 이끄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함께 성공적인 미국 데뷔무대를 가진 테츨라프는 그동안 빈필하모닉, 뉴욕필하모닉,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노르웨이 방송 교향악단,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드 챔버 드 파리,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세르지우 첼리비다케,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로린 마젤, 쿠르트 마주어, 파보 예르비 등 전설적인 마에스트로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라페네그 및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에서, BBC 심포니와 BBC 프롬스에서 공연했으며 2023년에는 런던 필하모닉과 함께 한국 및 유럽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24/25시즌에는 라인가우 음악제의 포커스 아티스트이자 포츠담 챔버 아카데미의 상주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실내악 주자로서도 활발한 연주활동

테츨라프는 1994년, 동생인 첼리스트 타냐 테츨라프와 의기투합하여 현악사중주단인 '테츨라프 콰르텟'을 결성, 매년 최소 1회 이상 순회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실내악은 그에게 독주자나 협연자로서의 활동만큼이나 중요하다. '테츨라프 콰르텟'은 2015년 프랑스 디아파종상을 수상했고, 동생 타냐 테츨라프, 피아니스트 라르스 포그트와 함께 결성한 트리오는 2016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테츨라프는 2018년 독일 음반비평가상, 프랑스 디아파종상을 비롯하여 2017년 MIDEM 클래식어워드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바흐 소나타와 파르티타 독주 앨범은 1999년과 2005년, 2017년 모두 세차례 무반주 음반으로 발매하여 화제가 됐는데, 2017년에는 '스트라드(Strad magazine)'로부터 '바흐 독주곡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려 깊고 생생한 응답'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테츨라프는 2019년,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과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을, 2022년에는 브람스와 베르크 음반을 발매했다.

본인만의 해석으로 들려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번 무대에서 테츨라프는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1부에서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수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소품'과 독일 작곡가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을 연주한다. 수크는 초기에 드보르자크와 브람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곡가로, 그의 음악에서 드러나는 브람스적 면모는 이어지는 브람스 작품으로의 자연스런 흐름을 만든다. 브람스의 후기 작품 중 하나인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에서는 무거운 분위기 속 절제미와 성숙한 음악성을 느낄 수 있다.

2부에서는 작곡가 시마노프스키 본인이 가장 사랑한 작품 '신화' 중 '드리아데스와 판'과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들려준다. 시마노프스키의 작품을 통해 바이올린의 새로운 표현 양식과 가능성을 보여줄 테츨라프는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통해서는 피아노와 유기적으로 노래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이번 무대에서 테츨라프는 작곡가마다 바이올린을 사랑했던 방식과 이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자신만의 연주로 관객들과 만난다.

독창적인 스타일의 피아니스트 키벨리 되르켄

이번 무대에서 테츨라프와 호흡을 맞추는 피아니스트 키벨리 되르켄은 독특한 사운드와 독창적인 스타일로 잘 알려진 음악가로,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 그리고 몰리보스 국제 음악제의 창립자이자 예술감독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엘프 필하모니, 마린스키 극장, 게반트하우스, 콘체르트하우스 등 세계 저명 극장에서 연주했으며, 슈베칭거 축제, 스파눙겐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국제 음악제에 초청 받고 있다. 실내악 연주에도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는 되르켄은 자매인 다나에 되르켄과 함께 피아노 듀오로 활동하고 있으며, 페르디난드 리스의 작품을 녹음한 음반으로 오푸스 클래식상을 수상했다.

일상에서 누리는 감동과 행복

(재)부산문화회관 2025 하반기 공연프로그램

라 클라시크 발레단 '백조의 호수'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시즌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이 2025년 하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4월 9일(정기회원 선예매 4월 8일) 관람권 예매를 시작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과 계획적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예술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백조의 호수에서 호두까기인형을 만나다

해마다 찾아오는 정통발레부터 세계적인 안무가의 최신작까지, 하반기 다채로운 춤의 세계가 관객들 앞에 펼쳐진다. 우선 차이콥스키의 명작 발레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인형' 두 편이 무대에 오른다. 7월 12일부터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모스크바 라 클라시크 발레단이 '백조의 호수'로 부산 관객과 만난다. 모스크바 라 클라시크 발레단은 1990년 소련 극장 예술가 연합에 의해 설립된 발레단으로, 고전적인 안무와 화려한 무대연출로 클래식과 모던을 모두 갖춘 발레를 선보이고 있다. 마린스키 발레단의 스타 옥사나 본다레바 등 세계 각국의 주요 극장 출신의 무용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집트, 오스트리아, 대만,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성공적인 해외 투어를 진행하며 발레 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발레 '백조의 호수'는 발레하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갖춘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으로, 1877년 러시아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대표적인 발레 작품인 '호두까기인형'은 올해 국립발레단의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호두까기인형'은 1892년 초연 이후 130년 넘게 사랑받아온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공연으로, 국립발레단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러시아 발레의 거장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으로 매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국립발레단 버전의 '호두까기인형'은 극중 호두까기인형을 어린 무용수가 직접 연기하며 주인공 마리의 대부로 등장하는 드로셀마이어가 극 전체의 안내자 역할을 맡고 있다. 최고의 연말 선물이 될 '호두까기인형'은 12월 5일과 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현대무용 신작

현대무용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작 두편도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8월 30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국립현대무용단의 '내가 물에서 본 것'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국립현대무용단의 시즌 프로그램으로 초연된 신작으로,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기술과 몸의 관계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수차례 난임 시술을 겪었던 안무가 김보라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안무를 구성했고 고도로 발전된 현대 기술 속에서 도구로 전락한 여성의 신체를 춤으로 형상화했다. 여기서 작품 제목의 '물'은 액체가 아니라 '물질(matter)' 또는 '문제(matter)'의 의미로, 물질인 인간의 몸이 기술과 얽혀 새로운 의미의 문제를 생성하고,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움직임을 변화하고 재구성하여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알렉산더 에크만 '해머'

세계적인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과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도 11월 부산을 찾는다. 5,000L의 물 위에서 펼쳐지는 '백조의 호수', 수천 개의 녹색 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플레이' 등 늘 새로운 비주얼 쇼크를 선물하는 알렉산더 에크만은 스웨덴 출신의 현대 발레 안무가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작품들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미 20대에 천재안무가 칭호를 얻은 에크만은 이제 단순 안무가를 넘어 한 편의 스타일을 선보이는 아이콘이 되었는데, 대담한 비주얼과 형식을 파괴하는 접근, 무대와 기술을 결합한 실험적인 시도로 현대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고 있다. 그 중 '해머'는 에크만 안무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최신작으로, 30여 명의 무용수가 압도적인 군무를 펼치고 웅장한 조명과 화려한 스타일링은 시각효과를 절정으로 이끈다. 그와 함께 내한하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는 현대무용계의 수많은 거장들이 거쳐간 북유럽 최대의 댄스컴퍼니로, 무려 20개국 출신의 무용수들과 함께 '흠잡을데 없는 앙상블'을 선보이고 있다. 에크만은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에 대해 '함께해온 무용단 중 단연 최고'라는 호평을 남기기도 했다. 11월 21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파리넬리의 환생' 이동규 바로크 음악의 세계

이동규

'파리넬리의 환생'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최정상급 카운터테너로 발돋움한 이동규가 9월 5일 부산을 찾는다. 카운터테너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놓은 이동규는 가느다란 현의 울림처럼 섬세하면서도 유려한 감성 표현과 역동적인 창법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바로크시대 음악 전문가답게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악기인 첼발로, 테오르보 사

운드에 새로운 화성과 낯선 리듬으로 변주하고 재즈 피아니스트,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들과 클래식 음악의 전형적인 틀과 형식을 탈피하여 즉흥으로 노래한다. 뜨거운 감성과 자유로운 영혼의 천부적인 뮤지션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가 함께한다.

매력적인 사기꾼부터 낡은 장총 한 자루까지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관객을 사로잡다

연극 애호가라면 올해 하반기 공연을 주목해보자. 2023년 최고의 연극이라 호평을 받은 연극 '빵야'부터 부산 청년 예술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완성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인터파크 관객 평점 9.8점을 기록하며 2023년 최고의 연극이라는 호평을 받은 연극 '빵야'는 11월, 부산을 찾는다. 연극 '빵야'는 한물간 드라마 작가인 주인공이 시나리오 소재를 찾던 중 오래된 99식 소총 '빵야'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역사의 생생한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이면으로 밀려난 '낡은 장총 한 자루'가 무대에 소품이 아닌 인물로 등장하여 역사의 배후에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이야기한다.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이자, 제1회 K-Theater Awards 대상 수상 및 2023 월간 한국연극 '2023 공연 베스트 7'에 선정됐으며, 특히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로부터 '안 보면 후회하는 극!', '탄탄한 스토리와 훌륭한 음악, 최고의 배우들'이라는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11월 14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연극 '빵야'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지난해 서울미래연극제에서 초연되어 작품상과 연출상, 연기상을 수상한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은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은 2023년 국립극단이 '창작공감: 희곡'으로 발굴한 보석 같은 작품으로, 실제로 건설현장의 철거 노동자로 일하는 이용훈 작가의 데뷔작이다. 무명의 철거 노동자의 죽음을 그림자와 빛, 오브제를 통해 시어에 가까운 문화적인 언어로 표현하며, 노동현장의 실상과 노동하는 삶의 실체를 생생하고도 담담하게 그려낸다.

한편, 7월 17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2025년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일환으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무대에 오른다.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는 2025년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은 신진 예술인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지역 청년 예술인들에게 오디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재구성 및 연출을 맡아 로미오와 줄리엣의 뜨거운 사랑을 청년 예술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려낸다.

또, 지역 청년 예술인 성장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 온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도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와 '2025 대학교향악축제'를 개최한다. 부산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지역 대학의 요람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글로브(Glob)'

뮤지컬 '정글북'

직접 느낄 수 있는 무대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한 어린이극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한 동화의 세계로 어린이를 이끈다. 7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수박수영장'이 개장한다. 안녕달 작가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무대화한 '수박수영장'은 2022년 초연된 후 지난해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바쁜 부모님을 도우려다 의도치 않게 사고뭉치가 된 주인공 '진희'가 여름방학을 맞아 외가댁에 놀러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7월 16일과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외 신작극 '글로브(Glob)'와 '루멘스(Lumens)' 두 작품이 선보인다. '글로브(Glob)'는 스토리텔링, 연극, 광대, 무용, 서커스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창의적인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캐나다 퀘벡의 Les Foutoukours가 선보이는 광대극으로, 서커스적 요소가 가득한 마법의 순간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특히 광대를 중심으로 대사없이 전달하는 완벽한 신체연기와 선명한 움직임으로 마치 무성영화와 같은 매력을 보여준다.

두 명의 음악가이자 크리에이터인 Julien-Robert, Julien Compagne로 구성된 비디오파즈(Video Phase)의 '루멘스(Lumens)'는 눈과 귀로 즐기는 환상적인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으로, 두 명의 연주자가 컴퓨터의 각 악기(드럼, 멜로디, 베이스 및 하모니)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루멘스 게임을 완료하는 특별한 미션을 수행한다. 특히 관객 앞과 주변에 투사되는 3D 멀티스크린 환경 속에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의 음악과 영상을 경험하고 공연 후에는 연주자가 직접 개발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누릴 수 있다.

위기에 빠진 정글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맞서는 모글리의 생생한 모험과 우정을 담은 뮤지컬 '정글북'은 9월 6일과 7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난타'의 제작자 송승환 프로듀서가 아프리카 여행 중 만난 동물들을 보며 영감을 얻어 2년에 걸쳐 기획·제작한 '정글북'은 2016년 초연 당시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를 모았다. 7년만에 다시 돌아온 '정글북'은 특히 수준 높은 영상기술과 독창적인 무대연출로 재현되는 생생한 정글 세계와 플라잉 기술과 화려한 특수효과로 전개되는 스펙터클한 모험, 그리고 12여 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실감 나게 표현한 독창적인 분장과 의상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클래식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를 키울 수 있는 키즈 클래식 '문닫힌 동물원'은 9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문닫힌 동물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관현악곡 중 가장 유명한 카미유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음악극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3년 연속 선정된 유일한 작품이다. 카니발을 앞둔 어느 날 밤, 문이 닫힌 동물원에서 벌어지

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문연기자, 연주자와 더불어 스토리를 따라가며 음악의 흐름을 더욱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무대 전체를 꽉 채운 프로젝션 맵핑을 통한 자체 3D영상과 조명,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들로 어린이들을 재미있는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경남지역 극단과 만나다
부울경 지역 프로젝트

8월에는 부울경 지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밀양아리랑 예술단과 경남도립극단이 부산을 찾는다. 밀양아리랑 예술단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밀양아리랑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새로운 로컬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단체로, 이번 무대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밀양의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을 선보인다. 밀양아리랑 예술단의 레퍼토리 공연이기도 한 이 작품은 약산 김원봉, 석정 윤세주 등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의 저항정신을,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며 불렀던 아리랑으로 승화시켜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한다. 공연은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경남도립극단 순회공연 '빌미'

8월 23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경남도립극단의 '빌미'가 무대에 오른다. 경남도립극단 최원석 예술감독이 극작과 연출을 맡은 '빌미'는 다정했던 내 이웃과 가족이 탐욕으로 인해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때론 코믹하고, 때론 처절하게 무대화시킨 블랙코미디이다. 2018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작품으로, 2019년 공연베스트7, 제12회 대한민국 연극 대상을 수상하고 2021 창작산실 레퍼토리 작품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희망찬 새해를 맞다

대니 구

12월로 접어들면서는 다채로운 송년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12월 2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부산시민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한다. 2016년 앙상블 디토의 멤버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후 정통 클래식 무대뿐만 아니라 재즈, 팝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과 만나온 대니 구는 최근 클래식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 그의 진솔한 일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와 활발한 교류를 가져온 대니 구는 올해 설레는 크리스마스를 관객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소중한 인연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공연뿐 아니라 EP 앨범 'Moonlight'를 통해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인 오랜 음악적 파트너 피아니스트 조윤성을 비롯하여 드러머 석다연, 베이시스트 션 펜트랜드와 함께 풍성한 사운드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한 해의 마지막 밤, 감동적인 선율로 새해를 맞이하는 '2025 제야음악회'는 2025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부산 시민 아마추어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들

이 함께하는 열정이 가득한 꿈의 무대로,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이밖에 시민과 예술이 가까워지는 열린 야외무대 '2025 시민뜨락축제'는 4월 5일부터 부산 곳곳에서 펼쳐진다. 매년 봄과 가을, 야외에서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올해부터 기존의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뿐 아니라 도모헌(구 부산시관사),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등 도심 속 생활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4월 9일부터 관람권 예매 ***4월 8일 정기회원 선예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요 일 정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7월 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모스크바 라 클라시크 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7월 12일(토)-13일(일) 오후 2:00, 6: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글로브(Glob)'
7월 16일(수) 오전 11:00,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25년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7월 17일(목)-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루멘스(Lumens)'
7월 19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8월 17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경남도립극단 순회공연 '빌미'
8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8월 30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
9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정글북'
9월 6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30, 7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9월 6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극 '빵야'
11월 14일(금)-16일(일) 시간미정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_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11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5대학교향악축제
11월26일(수)-3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11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25 제야음악회
12월 3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2025 시민뜨락축제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5 시민뜨락축제'가 4월 5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를 비롯해 부산 곳곳에서 펼쳐진다.

매년 봄과 가을, 야외에서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그동안 평일 낮,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뿐 아니라 도모헌(구 부산시관사),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등 도심 속 생활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올해 '시민뜨락축제'는 부산시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이 후원하고 부산소공연장연합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부산시립예술단뿐 아니라 지역 출신의 예술가로 구성된 26개 팀이 올 한해 무대에 올라 지역예술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재즈, 포크, 록,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특히 축제 때마다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에 소속된 문화공간을 소개함으로써 부산 내 숨겨진 보석같은 우리동네 소공연장을 시민들에 알리며 생활 밀착형 문화 축제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가칭 부산소공연장 네크워크라는 명칭으로 첫 발을 내딛은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는 현재 부산지역 26곳의 공연장이 회원 소공연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하는 '원먼스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민뜨락축제'는 4월 5일 도모헌에서 열리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7차례 펼쳐진다.

4월 5일(토)-5월 31일(토)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 도모헌,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일 정

4월 5일(토) 오후 2:00 도모헌(구 부산시장관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월 11일(금) 오후 12:10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
김경모 재즈밴드, 루미너스 색소폰앙상블

4월 18일(금) 오후 12:10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
헤이브 퓨전국악, 루치아 앙상블

4월 25일(금) 오후 12:10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
강혜인 재즈밴드, 쿠나

5월 2일(금) 오후 12:10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
국악그룹 길, 마음버스 포크밴드

5월 9일(금) 오후 12:10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
쥬드 밴드, 아이씨 밴드

5월 31일(토) 오후 4:0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9회 정기연주회

PARADISO

지난해 홍석원 예술감독 취임과 함께 포문을 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시리즈' 두 번째 무대가 4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홍석원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제619회 정기연주회 'Paradiso'로, 말러 교향곡 중에서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진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말러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말러 교향곡 제4번은 교향곡 제2번, 제3번과 함께 초기 3부작을 이루는 곡으로, 세 곡 중에서도 가장 밝고 간결하며 아름다운 곡이다. 소프라노 솔리스트와 함께 천국에서의 영원하고 순수한 기쁨을 노래하는 마지막 악장 '천상의 삶(Das himmlische Leben)'은 교향곡 제4번의 백미로, 이번 무대에서는 투명한 미성과 기교로 호평 받고 있는 소프라노 박미자의 기품있는 음성으로 들려준다.

소프라노 박미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졸업 후 도이, 파르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아를 이수했다. 스페인 쟈코모아라갈 국제 콩쿠르 1위, 이태리 스파치오 무지카 국제 콩쿠르 1위, 빌바오 국제 콩쿠르 등 10여 개의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스페인 아리아가극장에서 '돈 파스콸레'의 노리나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후 이탈리아 벨칸토를 대표하는 주요 오페라의 주역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고난이도의 오페라 윤이상의 '심청'으로 한국에서의 데뷔무대를 가진 후 한국을 대표하는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명실 공히 최고의 프리마돈나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0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여자 주역상에 이어 뉴데일리 선정 2017년 올해의 성악가상과 2019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악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말러 '교향곡 제4번'에 앞서 첫 곡으로는 헝가리 현대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버르토크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피아니스트 박재홍의 협연으로 만날 수 있다. 박재홍은 2021년 세계적 권위의 페루초 부조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고 4개의 특별상을 휩쓰는 등 현재 주목받는 젊은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명성을 쌓아 가고 있다. 일찍이 미국 클리블랜드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콩쿠르와 지나 바카우어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루빈스타인, 에틀링겐, 힐튼 헤드 외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한 박재홍은 그동안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로 음악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1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5 교향악축제'에 동일 프로그램으로 참가한다.

지휘 홍석원

소프라노 박미자

피아노 박재홍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여유로운 평일 오전시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식과도 같은 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이 4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처음 열려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던 '국악 살롱, Salon'은 바리스타가 전해주는 커피이야기와 더불어 커피와 어울리는 다채로운 국악곡을 들려주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김경수가 지휘하는 올해 무대에서는 지난 1980년, 90년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함께 새롭게 창작된 국악창작곡 중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 '춘무'(박범훈 곡)를 비롯하여 가수 홍경민, 해금주자 김유나 부부가 함께하는 이색무대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첫 곡인 '춘무'는 봄의 생명력과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으로, 국악관현악단의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연주에 맞추어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박미나, 장영진의 춤사위가 더해진다. 이어지는 'Talk & Music'에서는 이번 공연의 진행과 토크를 맡은 부산TBN, 부산MBC의 MC이자 부산국제영화제 배리어프리영화 성우로 활동하는 노주원과 모모스커피 공동대표로 있는 바리스타 전주연이 향기로운 커피 이야기와 함께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며, 이상규 곡 '사랑이어라'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손한별(대금), 김소정(가야금), 박재현(장구)의 연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기 중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 생황과 해금 협주곡을 들려준다. 한국 국악기 중 유일한 화음악기인 생황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황협주곡 '환상적'(이정호 곡)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권미정의 연주로 생황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두 줄로 빚어내는 애절한 선율의 해금 연주는 가수 홍경민의 아내로도 유명한 해금연주자 김유나가 들려준다. 김유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전문사 과정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D.M.A)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면 속에 숨겨진 애수와 추억이 마법과도 같은 무대의 환상적인 분위기에 녹아져 나오는 해금협주곡 '가면무도회'(이정호 곡)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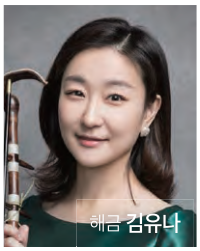
마지막 무대는 가수 홍경민과 함께하는 무대로, 그의 대표곡인 '흔들린 우정'을 비롯 '고맙소', '한오백년'을 국악관현악 연주와 함께 노래한다.

지휘 김경수

사회 노주원

바리스타 전주연

가수 홍경민


해금 김유나

생황 권미정

무용 박미나

무용 장영진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II

줌인(Zoom-in) I

바이올린 서은아

피아노 이윤수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과 외부 연주자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실내악 시리즈 '줌인(Zoom-in)' 2025년 첫 번째 무대가 4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특히 '줌인(Zoom-in)'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무대로, 특히 스타성이 높은 단원을 재조명하고 유명 연주자와의 협업을 통해 격조 높은 실내악 음악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서은아와 부산대학교 교수이자 전문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윤수가 멋진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풍부한 음색과 열정적인 연주로 청중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는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최우수 졸업한 후 동 음악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 도독,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졸업했다. 이후 러시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수차례 독주회 및 초청연주를 가졌으며 귀국 후에는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움챔버오케스트라, 더솔로이스츠 챔버오케스트라 악장을 비롯하여 부산의 유수 단체에서 객원악장 및 수석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수석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해석과 놀라움을 선사한 노련함'으로 유럽 언론의 찬사를 받아온 피아니스트 이윤수는 2003년 오스트리아 국립방송 초청 독주회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데뷔한 이래 빈 뮤직페라인홀, 베를린 필하모니, 프라하 스메타나홀, 더블린 내셔널 콘서트 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등 전 세계 굵직한 무대에 오르며 프로연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브람스 국제 음악 콩쿠르, 이탈리아 엔니오 포리노 국제 피아노 콩쿠르, 그리스 로도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뵈젠도르프 콩쿠르 우승과 시드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제네바 국제콩쿠르, 프랑스 에피날 국제콩쿠르, 스페인 호세 로카 국제콩쿠르 등 세계 유수 콩쿠르의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이윤수는 앙상블 NUNC, 콰르텟 아프로디테의 멤버로 실내악 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뷔시의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인 '바이올린 소나타 L.140'를 비롯하여 차이콥스키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쓴 유일한 작품인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중 첫 번째 곡인 '명상곡',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의 고난도 기교를 요구하는 라벨 '치간느'와 자신의 플루트 소나타를 편곡한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닌 작품들을 들려준다.

4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김영욱&김다솔 듀오 콘서트

10대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이자 무대에 함께 오를 때마다 서로가 원하는 가장 솔직한 음악을 들려준다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5월 3일, 고향인 부산에서 반가운 재회의 무대를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깊이가 만나 빚어내는 우정의 선율

부산에서 나고 자란 두 동갑내기 연주자는 2012년 첫 듀오 리사이틀을 가진 후 올해로 13년째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솔리스트로 음악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저명한 국제 무대 및 콩쿠르에서 성공을 거두며 국내외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음악적 탐구의 연속이었던 두 솔리스트의 음악적 깊이가 더해진 앙상블 무대로, 시대와 사조를 넘나드는 연주로 관객과 만난다.

타고난 재능이 대단한 완벽한 재목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김영욱은 2005년 서울예고에 입학, 이듬해인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 입학한 영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 도독, 뮌헨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일찍이 국내외 콩쿠르를 휩쓸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김영욱은 2011년 베오그라드 쥬네스 국제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하고 같은 해,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3위, 2013년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타고난 재능이 대단한 완벽한 재목'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헝가리 체임버 필하모닉, 우크라이나 자포리

김영욱

쟈 필하모닉, 베를린 캄머 필하모니, KBS 교향악단, 극립심포니,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명 교향악단과 협연했으며, 2019년에는 부천시립교향악단의 유럽 투어 협연자로 쾰른 필하모니홀 무대에 섰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음악계에 큰 획을 그은 '노부스 콰르텟'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결성된 노부스 콰르텟은 2012년 9월, 실내악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ARD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현악사중주 부문 준우승을 수상했으며, 2014년 2월에는 대한민국 실내악 역사상 최초로 제11회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실내악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2/2023 시즌에는 영국 런던의 저명홀인 위그

5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모어홀의 상주음악가로 선정됐으며, 한국인 음악가로서는 위그모어홀 최다 초청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김동욱은 2022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으며 차세대 연주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유의 섬세함과 빼어난 표현력 피아니스트 김다솔

11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한 김다솔은 일본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준우승 및 오케스트라 특별상, 미국 YCA 국제 오디션, 프랑스 에피날 국제 피아노콩쿠르, 독일 키싱엔 클라비어올림프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 그리고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 스위스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콩쿠르, 스위스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뮌헨 ARD 국제음악콩쿠르, 독일 슈만 국제음악콩쿠르 등 수많은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13년 금호아트홀의 첫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었으며, 이듬해 뉴욕 필하모닉 내한공연의 협연자로 국내 청중과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만 18세 나이로 지휘자 미하엘 잔덜링과 함께 독일 전역 투어 연주를 가짐으로써 음악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김다솔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콘체르토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 포츠담 체임버 아카데미를 비롯한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꾸준히 무대에 올랐다.

김다솔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 한국 등지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2021년부터는 스위스 에르넨 음악제의 실내악 프로그램 예술감독, 트리오 마빈의 멤버로 활동하는 등 현재 독일, 스위스, 한국을 중심으로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독일 라이프치히국립음대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다솔

시대와 사조를 넘나드는 극적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초 격동의 시대 속 음악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스트라빈스키, 풀랑크, 프로코피예프와 더불어 슈만을 나란히 배치하여 시대와 사조를 넘나드는 극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첫 곡으로는 신고전주의 음악의 포문을 연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으로, 그가 작곡한 발레음악 '풀치넬라'를 6악장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구성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이어지는 곡은 병석에 있던 슈만이 말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작품 121'로, 그가 작곡한 세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탄탄한 짜임새를 가졌으며, 슈만 특유의 낭만성과 주관성이 잘 드러난 곡이다.

2부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암울한 상황을 담고 있는 풀랑크와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들려준다. 20세기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풀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FP 119'는 프랑스가 전란에 휩싸였던 1942년과 1943년 작곡된 곡으로, 전쟁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1936년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에 맞서 저항하다 세상을 떠난 시인 로르카를 추모하고 있다.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바단조 작품 80' 역시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작곡을 시작한 지 8년만인 1946년 완성된 작품으로, 전쟁으로 인한 어둡고 비극적인 정서가 곡 속에 그대로 담겨있다.

국악인형극에서부터 오페라까지

가족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무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우리의 전통국악기를 캐릭터화한 인형극에서부터 오페라 '마술피리'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우리아이음악회'까지 장르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국악기 친구들이 펼치는 국악인형극

어린이 전용극장인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는 우리의 전통국악기를 캐릭터화한 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가 열리고 있다. 사랑채극장은 지난 2017년 기존의 소극장을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공간으로, 그동안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관객과 만나왔다. 특히 이번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는 귀엽고 깜찍한 국악기 친구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모험극을 통해 더욱더 친근하게 우리의 전통음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공연은 6월 1일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로봇을 활용한 오페라 북콘서트-마술피리

4월 29일부터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로봇과 함께 하는 오페라 북콘서트 '마술피리'가 선보인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지난해 선보인 부산시립예술단의 두 번째 토크오페라로,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줄거리와 극적이고 다채로운 음악,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해설로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로봇을 활용한 영상을 제작, 마술피리의 스토리를 새롭게 전달하는 오페라 북콘서트 형식으로, 색다른 구성과 연출로 특별한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토크콘서트 '마술피리'의 연출과 해설을 맡았던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와 소프라노 박소영, 김승현, 테너 김준태, 바리톤 시영민, 발레리나 김은정이 다시한번 출연한다.

수준높은 합창의 고품격 어린이 뮤지컬

부산시립합창단은 어린이날 주간인 5월 3일부터 이틀간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로 관객과 만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피노키오'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무대로, 원작과 달리 파란 요정을 파란 마녀로 설정, 거짓말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로 인한 갈등과 화해를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특히 '피노키오와 파란마녀'는 부산시립창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2022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자체 제작 뮤지컬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 부산시립합창단의 수준 높은 합창이 더해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고품격 어린이 뮤지컬이다.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각색 및 작·편곡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부산시향의 우리 아이 음악회'는 5월 8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우리 아이 음악회'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클래식 입문을 위한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준다. '피터와 늑대'는 프로코피예프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작곡한 곡으로, 주인공 피터와 늑대, 할아버지, 오리, 고양이 등 여러 등장인물을 각기 다른 악기로 표현하여 어린이들이 클래식 악기의 음색과 특징을 익히기에도 좋은 작품이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는 아름답고 유쾌한 멜로디 안에 재치 있는 악상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담아낸 생상스의 대표작으로, 열네 개의 짧은 악장에 여러 동물의 생김새와 걸음걸이, 울음소리 등 다양한 특징을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연주와 더불어 부산시립극단 이혁우, 오희경의 내레이션과 샌드여행 대표 노선이의 샌드아트 공연으로 관람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부산시립예술단의 새로운 융복합 공연

5월 22일부터는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바리데기'가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창작칸타타 '가마 釜 뫼山'에 이은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신작으로, 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극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융복합 공연으로 선보인다. 설화 속 '바리데기'는 오구대왕과 갈대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번째 딸로,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기꺼이 제 한 몸 희생하여 지옥까지 다녀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대본과 연출을 맡았다.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3월 5일(수)-6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
(단체관람, 월-화요일 공연없음),
주말·공휴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로봇과 함께 하는 오페라 북콘서트 <마술피리>

4월 29일(화)-30일(수) 오전 10: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5월 3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4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 아이 음악회>

5월 8일(목) 오후 7:30, 9일(금) 오전 10:30
(예술교육공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연합공연 <바리데기>

5월 22일(목) 오후 7:30, 23일(금) 오후 2:00
(예술교육공연), 7:30, 24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합창음악극 <엄마, 같이 걸어요>

5월 3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합창음악극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합창음악극 '엄마, 같이 걸을까'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사춘기가 시작된 딸과 엄마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음악과 연기, 영상으로 보여주는 음악극으로, 어린 시절의 엄마, 엄마가 된 나를 타임슬립(시간여행)을 통해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을 되새겨 본다. 5월을 마무리하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천경필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열린다.

4월 시범공연으로
본격적인 시동 거는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6월 20일 개관한다.

부산시민공원 내에 들어선 부산콘서트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1만9862㎡)로, 대공연장인 콘서트홀(2011석)과 소공연장인 챔버홀(400석)을 보유하고 있다. 물결 위를 떠다니는 배를 형상화한 공연장 건물은 음악 선율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유려한 곡선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공연이 품고 있는 자연의 편안함이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시민들의 새로운 도심 속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콘서트홀은 지역 최초로 빈야드 스타일의 공연장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한다. 빈야드는 '포도밭'이라는 이름처럼 홀 중심에 무대가 있고 객석을 계단식으로 배치, 에워싸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비수도권 최초로 '악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을 설치, 4,406개의 파이프가 만들어내는 장엄한 울림과 압도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개관을 기념하여 피아니스트 조성진, 선우예권, 손열음, 손민수 등 정상급 연주자와 이탈리아 최정상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 영국을 대표하는 런던필하모닉, 세계 3대 악단으로 꼽히는 로얄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도 부산을 찾는다.

부산콘서트홀에서는 6월 정식 개관에 앞서 4월부터 시범공연을 연다. 그 첫 무대는 4월 26일 챔버홀에서 열리는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의 'The Sound of Strings 현의 소리'로, 바로크 실내악의 우아함을 들려준다.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은 2010년 창단된 부산을 대표하는 현악 앙상블로,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사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와 그의 아들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 하이든과 텔레만의 작품으로 바로크 음악의 매력을 들려준다.

4월 29일 챔버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마련한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 밤'이 펼쳐진다. 소프라노

강수진, 김민정, 오예은, 테너 김지호, 김충희, 바리톤 안세범 등 6명의 성악가들이 그동안 청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1, 2부로 나뉘어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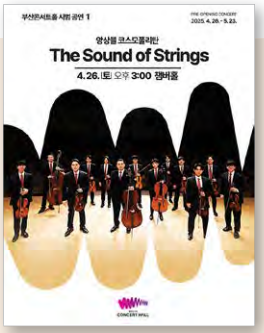
'HELLO 클래식'은 클래식부산이 선보이는 새로운 방식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섬세한 음악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에서 최상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비롯하여 파이프오르간, 성악, 합창 등 클래식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바로크 음악을 준비하고 있다. 그 첫 무대로 5월 10일 콘서트홀에서는 '헨델 vs 바흐'라는 타이틀로, 바로크 음악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헨델과 바흐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연주는 지휘자 권민석이 지휘하는 클래식부산오케스트라&합창단.

5월 16일에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합창단이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로 콘서트홀 무대에 선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 구성으로 강렬한 선율과 웅장함이 돋보이는 곡으로, 특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오! 운명의 여신이여!'는 광고나 영화,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자주 사용되어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작품이다. 특히 국립합창단의 '카르미나 부라나'는 웅장한 음악과 함께 화려한 영상, 그리고 노래가사를 담아낸 무용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더욱더 사로잡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민인기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과 함께 소프라노 김성은, 테너 박의준, 바리톤 염경묵이 솔리스트로 무대에 서며 안무가 김민서,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라퓨즈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시범공연의 마무리는 '부산의 자존심'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맡는다. 5월 23일 콘서트홀에서는 홍석원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기념하여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주피터'와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콘서트홀의 첫 만남에 벌써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의** 부산콘서트홀
051-640-8888, classicbusan.busan.go.kr

일정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The Sound of Strings 현의 소리
4월 26일(토) 오후 3:00
챔버홀

부산성악가와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 밤
4월 29일(화) 오후 7:30
챔버홀

HELLO 클래식
헨델 vs 바흐
5월 10일(토) 오후 3:00
콘서트홀

국립합창단
카르미나 부라나
5월 16일(금) 오후 7:30
콘서트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0회 정기연주회
New World
5월 23일(금) 오후 7:30
콘서트홀

청년이 연극하기 좋은 도시, 부산
시민이 연극보기 좋은 도시, 부산

2025 제43회 부산연극제

일 시 4월 3일(목)-20일(일)

장 소 영화의전당, 백양문화예술회관, 부산예술회관 외 부산지역 곳곳
입장료 전석 3만원(개막 기념공연 및 청년 연극인 합동공연 무료)
문 의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의 축제 '부산연극제'가 4월 3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지난 1983년 첫 발을 내딛은 후 올해로 43주년을 맞는 부산연극제는 그동안 대한민국 연극제의 예선을 겸한 뜨거운 경연의 장으로 운영해오다 2023년부터 연극제의 예선무대가 아닌 시민들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이 연극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 청년 연극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청년 연극인 합동공연을 새롭게 선보인다. '시민이 연극 보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아카데미 섹션을 신설, 시민 평론가를 육성하는 시민평론 아카데미와 부산 연극인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원데이 클래스 및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한다. 또, 국제교류 섹션을 확대하여 해외 우수작을 초청하는 한편, 해외 아티스트를 국내로 초빙하여 부산의 극단과 협업을 중개하는 등 부산 극단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극단 따뜻한사람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손, 부채'

극단 이야기 '대문앞의 고로케'

극예술실험집단 초 '꽃피는 정거장'

명실상부 부산의 대표 공연예술축제

매년 '부산(BUSAN)'의 영문명에서 가져온 다섯 개의 섹션으로 축제를 열어온 부산연극제는 올해는 'Busan', 'Unique', 'Stage', 'Academy', 'Noise'라는 섹션으로 관객과 만난다. 올해 부산연극제의 대표 섹션이라 할 수 있는 'Busan'은 부산진문화재단과의 공동 주최로 부산연

극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정회원 극단의 창작 초연을 지원한다. 올해 'Busan' 섹션에 선정된 작품으로는 한가족사를 통해 시대적 아픔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그린 극단 따뜻한사람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손, 부채'(류수현 작, 허석민 연출)와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극단 이야기 '대문앞의 고로케'(남혜진 작, 박현형 연출), 그리고 사회의 아픔을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극예술실험집단 초 '꽃피는 정거장'(이하슬 작, 김동규 연출) 등 세 작품으로, 각각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섹션 'Unique'는 부산에서 활동중인 극단의 독창적이면서도 참신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부산연극의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으로는 2022 제2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글로윙 아티스트 선정작이자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쇼케이스 선정작인 극단 옆집우주 '갈림길에 선 여자'(김영화 작, 연출), 왕따 문제를 통해 용기의 필요성과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연예술단체 반올림의 창작뮤지컬 '복근이 필요해'(반필우 작, 연출), 공간과 존재의 관계를 탐구하며 관객에게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도록 이끄는 극적공동체 고도 '제10층'(이재현 작, 조창주 연출), 지난해 제11회 김문홍 희곡상을 수상한 예술집단 하우 '그 곳_chapter1. 오래된 집의 회전목마'(김아름 작, 연출) 등 네 작품이다.

(재)영화의전당과 공동주최로 열리는 'Stage' 섹션은 부산연극제 개막 기념공연을 비롯하여 2025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작, 해외 우수작 초청공연, 부산 청년 연극인 합동공연, 부울경 연극협회 추천 공연, 부산 시민연극 경연대회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이 총망라된 섹션이다. 우선 올해 개막 기념공연으로 부산연극협회가 제작한 'Homo Dramatics! 호모 드라마틱스!'가 개막식날인 4월 3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제의 예술감독인 최용혁 연출가가 연출한 'Homo Dramatics! 호모 드라마틱스!'는 부산의 전통연희인 수영과 동래의 들놀음부터 일제 강점기 부산에서 개막하여 전국을 순회했던 김우진과 조명희, 그리고 윤심덕의 동우회, 해방 이후 부산에서 학생들과 연극을

만들었던 향파 이주홍, 1963년 설립된 부산연극협회 초대회장 한형석, 이덕선·서국영의 연극 '젊은 세대의 백서', 그리고 1983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연극제와 대한민국연극제 역대 대상작까지 부산 연극의

오늘을 넘어, 부산 연극의 미래로 나아가는 부산 연극의 역사를 작품 속에 담아낸다.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연극제'에 부산 대표로 참가하는 극단 누리에의 '어둠상자'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지난해 부산연극제 섹션 'Boom!'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종의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황실 사진가 집안이 4대에 걸쳐 그 사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희곡의 안정적인 구성과 배우들의 앙상블이 좋았고 긴 서사를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연출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둠상자'는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에 앞서 4월 9일과 10일 이틀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부산 관객과 만난다.

해외 우수작 초청으로는 베트남 호치민시 연극협회의 'DONG CHI(동지)'가 부산을 찾는다. 'DONG CHI(동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연극협회 희곡 공모에서 수상하고 제1회 호치민시 연극제에서 상연되어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생사를 함께 한 호치민 전우들의 회상을 통해 뜨거운 동지애를 그린 작품이다. 여기서 'DONG CHI'는 우리말 발음과도 같은 '동지'를 뜻한다.

부산 청년 연극인 합동 공연으로 만나는 'Play-back, 100, Back-stage'는 강인정, 양재영, 정유나, 최유경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의 젊은 연출가 4인이 100명의 부산 청년연극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무대이다. 특히 정해진 줄거리가 없는 즉흥 연극 양식의 플레이백 시어터 방식을 기반으로, 공연장인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곳곳을 누비며 진행되는 프롬나드 공연이자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이머시브 인터랙티브 공연으로, 배우과 관객, 공간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는 색다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100명의 청년 연극인들이 들려주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봄으로(Play-back), 무대 뒤(back-stage)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부울경 연극협회 추천 공연으로는 경남연극협회 소속 극단 이루마의 '흑백다방'(차현석 작, 김인하 연출), 부산연극협회 소속 극단 배우창고 '워 아이니?'(김가영 작, 연출), 울산연극협회 소속 극단 물의진화 '엄마 소풍가자'(백비송 작, 이청언 연출) 등 세 작품이 선보인다. '흑백다방'은 1980년대가 남긴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절묘한 서사로 엮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워 아이니?'는 2025년 부산국제연극제 글로

부산연극협회 'Homo Dramatics! 호모 드라마틱스!'

극단 누리에 '어둠상자'

베트남 호치민시 연극협회 'DONG CHI(동지)'

부산 청년 연극인 합동 공연 'Play-back, 100, Back-stage'

극단 이루마의 '흑백다방'

극단 배우창고 '워 아이니?'

극단 물의진화 '엄마 소풍가자'

벌 익스체인지에 선정되어 루마니아 바벨 F.A.S.T.에 초청된 바 있다. '엄마 소풍가자'는 사회적으로도 무거운 이슈인 치매를 소재로, 치매에 걸린 오십의 딸과 팔순 엄마의 갈등과 화해, 애틋함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세 작품 모두 금련산역 인근에 자리한 소극장 6번출구에서 공연된다. 이밖에 부산시민 연극경연대회는 순수 시민연극단체 1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4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펼쳐진다.

섹션 'Academy'에서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연극 비평 및 이론, 실습 강의를 진행하는 시민평론 아카데미 '내도마 비평 함 해보까!', 부산 청년인의 부산 정착을 돕는 '부산 청년연극인 인큐베이팅', 극작 및 연출, 연기 클래스로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와 함께 유튜브 채널 '부산연극제'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개막일부터 폐막일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분장, 무대기술, 기획 등 특히 실무와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밖에 섹션 'Noise'는 부산 연극판을 시끌벅적하게 만들 부대행사로, 개·폐막식 행사 및 네트워킹파티,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며, 특히 연극제 참여단체의 연습실을 찾아가 그 극단과 작품의 이야기를 듣는 토크쇼 '부연설명:부산연극을 설명합니다', 부산연극을 대표하는 18인의 연극인을 선정, 부산연극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독백 콘텐츠 '부산 연극인 18의 독백'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주요 일정

개막식 및 개막 기념공연

Homo Dramatics! 호모 드라마틱스!

4월 3일(목)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극단 옆집우주 **갈림길에 선 여자** [UNIQUE]

4월 4일(금) 오후 4:00, 7:30 용천소극장

베트남 호치민시 연극협회 **DONG CHI(동지)** [STAGE]

4월 5일(토)-6일(일) 오후 4: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공연예술단체 반올림 **창작뮤지컬 복근이 필요해** [UNIQUE]

4월 6일(일) 오후 2:00, 6:00 용천소극장

부울경 연극협회 추천 공연_경남연극협회
극단 이루마 **흑백다방** [STAGE]

4월 7일(월)-8일(화)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극단 따뜻한사람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손, 부채** [BUSAN]

4월 8일(화)-9일(수) 오후 7:30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2025 대한민국연극제 in 인천 부산 대표팀 초청
극단 누리에 **어둠상자** [STAGE]

4월 9일(수)-10일(목)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극적공동체 고도 **제10층** [UNIQUE]

4월 11일(금) 오후 4:00, 7:30 용천소극장

부산시민연극경연대회 [STAGE]

4월 12일(토)-13일(일) 오후 1: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부산 청년 연극인 합동 공연
Play-back, 100, Back-stage [STAGE]

4월 12일(토)-13일(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예술집단 하우
그 곳_chapter1. 오래된 집의 회전목마 [UNIQUE]

4월 13일(일) 오후 2:00, 6:00 용천소극장

부울경 연극협회 추천 공연_부산연극협회
극단 배우창고 **워 아이니?** [STAGE]

4월 14일(월)-15일(화)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극단 이야기 **대문앞의 고로케** [BUSAN]

4월 15일(화)-16일(수) 오후 7:30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울경 연극협회 추천 공연_울산연극협회
극단 물의진화 **엄마 소풍가자** [STAGE]

4월 17일(목)-18일(금)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극예술실험집단 초 **꽃피는 정거장** [BUSAN]

4월 18일(금)-19일(토) 오후 7:30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폐막식, 시상식

4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의 소리, 브람스로 울리다 1

Sound of Busan #1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글 **김정화** 음악평론가

(재)부산문화회관은 브람스 교향곡으로 부산을 채우기 시작했다. 2025년 상반기 기획공연으로 '사운드 오브 부산' 시리즈를 기획한 것이다. 힘든 환경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민간 오케스트라 4개 단체를 선정해 '브람스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바통을 이어받으며 브람스 교향곡 4개 전곡을 연주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예술과 음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기획공연 시리즈다.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들이 협연자와 지휘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획은 단순한 음악적 성과를 넘어 지역 사회의 예술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 음악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당연히 부산 예술계와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첫 번째 무대는 지난 2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졌다.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가 연주를 맡았으며, 지휘자 장윤성이 이끄는 브람스 <교향곡 2번>으로 공연의 첫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 첫 곡이었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과의 연결 고리를 설명하는 선택 같았다. 당초에 예정되었던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공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피아니스트 박종해로 협연자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고, 낭만적인 선율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과 브람스 <교향곡 2번>을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프로그래밍은 두 작곡가의 낭만성을 대비시켜 조명한 흥미로운 선택이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이 서정적인 선율과 극적인 감정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면, 브람스 교향곡은 자연과 인간의 내면적 깊이와 구조적 정교함이 돋보이는 곡이다. 특히 브람스 <교향곡 2번>은 '전원 교향곡'이라 불릴 만큼 따스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렇게 비교해 볼만한 두 작품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배치한 선정이 이목을 끌었다.

서정과 명확함을 넘나드는 절제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20세기에 만들어진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곡이다. 이 작품은 작곡가 자신의 음악 인생에도 하나의 분수령이 된 작품이다. 이날 협연자로 오른 피아니스트 박종해는 첫소리부터 귀를 기울이게 했다. 시작부터 시공간을 넘는 크로노토프(chronotope)를 선사했다. 작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왼손 베이스가 안개에 휩싸인 풍경 속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연상케 했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종소리의 울림이 현실에 닥친 무게를 더했다. 다만 첫 악장에서는 피아니스트와 오케스트라의 템포와 아티큘레이션이 미묘하게 어긋나면서 곡 전체가 갖는 긴장감과 역동성이 간간이 흔들렸다.

제2악장에서 피아니스트는 곡에 담긴 감정의 흐름과 선율의 유려함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오케스트라를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하지만 템포가 변화하는 부분에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사이에 미세한 어긋남이 반복되어 긴장감을 다소 약화시켰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마지막 악장에서는 박종해의 강렬한 타건과 에너지가 돋보였다. C장조 피날레는 기존의 음울한 분위기를 벗어나 마치 곡이 가진 본래의 중력에 도전하는 인상을 받았다. 그의 연

주는 엄숙한 분위기와 드라마틱한 전개를 유지하면서도, 작품의 감정적 스펙트럼을 세밀하게 파고들었다. 안정적인 템포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채를 더해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내성(inner voice)을 섬세하게 드러냈다. 동시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끝까지 유지하며 음악에 유기적 생명을 불어넣어 신선함을 선사했다. 앙코르로 연주한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 '토카타'는 선명하고 현란한 테크닉으로 객석에 화답했다. 여담이지만 리허설 도중 손가락에서 피가 나 피아노의 하얀 건반을 물들이는 바람에 스태프들이 놀랐다고 한다. 피아노 연습으로 힘든 개인적 사정은 누구나 있게 마련인가 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한 영향력, 따스함 속의 기대

올해로 창단 19주년을 맞은 UKO는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다. 소아암이나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했다. 초기에는 뜻이 같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중심으로 회비를 갹출해 운영했다. 음악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민간 오케스트라다.

하지만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결국 음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무대 위에서 쌓은 음악적 경험은 연주자의 성장과 오케스트라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재정 역시 필수적인 요소다. UKO는 고마운 후원자들 덕분에 꾸준히 무대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임지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음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그에 따른 장점도 있다. 다양한 지휘자와 함께하는 음악적 도전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장윤성이 지휘하고 UKO가 연주한 브람스 <교향곡 2번>은 전반적으로 객석의 집중을 끌어냈다. 조화로운 해석으로 오케스트라가 걸어온 헌신과 성장을 실감하게 했다. 특히 3악장에서 오보에, 클라리넷, 플루트가 만들어 낸 유기적 시퀀스는 음악의 근본이 조화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원래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법이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쓴소리를 보태자면, 템포 변화에 따른 매끄러운 분위기 전환이나, 브람스 특유의 따스함, 풍성함, 변덕스러움을 비롯해 회화적인 색채와 같은 대조의 표현 부족 등이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도 실수는 한다. 앞으로 더 촘촘한 해석과 더 많은 연습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리라 믿는다. 좀 더 균형 잡힌 앙상블은 UKO다운 음악적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입증한 성실성과 잠재력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UKO는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한다. 약관(弱冠)을 쓴 셈이다. 앞으로 폭넓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완성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부산은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어 행복하다.

빛나지 않는 것만 기억하는 우리들을 위한 치유의 연극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과 함께한 내 인생의 빛나는 모든 순간

글 **김병호** 화승 그룹홍보실장

내게 빛나는 모든 것 내게 빛나지 않는 모든 것, 우리는 어쩌면 빛나는 모든 것보다 빛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먼저 가슴에 새겨져 있지는 않을까. 행복했던 순간보다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처럼 말이다. 갑자기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씩 나열해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당황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부산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더불어 6월에 개관하는 부산콘서트홀까지 부산의 예술문화가 저마다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으로 더욱 유익한 그림을 그려가는 건 부산시민들에게 축복과 같은 일이다. 부산의 예술문화의 수준을 논하기 전에 얼마나 깊이 함께했고 그들의 조예를 헤아리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출장이 끝난 토요일 오후 부산시민회관으로 향했다. 연극인데 소극장도 아닌 전시실이라니 객석은 대체 어떻게 놓여진건지 의아한 채로 입장했다. 무대를 중심으로 빙 둘러 놓아진 객석. 전석 자유석으로 어머시브형(관객참여형)으로 배우와 관객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연극이다. 연극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머시브형은 또 처음이다.

잔뜩 포개진 포스트잇에 새겨진 연극 타이틀, 내게 빛나는 모든 것. 마법 같은 특별한 1인극이라는 소개처럼 시작 전부터 김아영 배우가 등장했다. 정해진 대사만을 뱉어내는 연극이 아니라 정해진 시놉시스를 베이스로 한 명 한 명 관객을 무대로 이끌어 극을 끌어간다. 그 과정에서 관객들은 웃기도 하지만 한편 자신을 돌아보며 공감하기도 하고 전율하기도 한다.

“엄마가 멍청한 짓을 했어!” 우울증을 앓는 배우의 7살 시절로 돌아가 극의 문을 연다. 1987년 7살의 그녀가 맞은 첫 번째 죽음. 그녀의 강아지 셜록번즈의 생에 마지막 순간. 수의사 역할을 맞은 관객의 에피소드로부터 시작된다. 생에 처음 맞이한 죽음이라는 순간. 그리고 이어진 엄마의 첫 번째 자살 시도.

패터슨 선생님과 양말 강아지 멍멍이(공연마다 강아지의 이름은 제각각이었을 터)를 통해 상담 치료를 받고 엄마를 위해 7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들을 리트스업하기 시작한다. 엄마의 우울과 슬픔을 없애줄 거라는 믿음으로 말이다. 그렇게 그녀의 내게 빛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한다. 1. 아이스크림 2. 물싸움 3. 밤에 몰래 TV 보기 4. 노란색 5. 줄무늬양말 6. 롤러코스터 7. 길 가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대학생이 된 그녀는 샘을 만나 결혼을 하고 여전히 우울의 늪에 빠진 탓에 이혼을 하고 그 사이 그녀의 엄마는 또 한 번의 자살 시도로 세상을 떠난다. 전 남편이 집을 떠나기 전 갖다 버렸던 리스트들을 한데 모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 그녀의 빛나는 모든 순간들이 박스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을 만나는 순간으로 극은 막을 내린다.

‘하지 마세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같이 전염되는 자살이라는 슬픔. 우울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녀는 말한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관객들에게 각자의 행복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사유의 기회를 던져준다. 나에게,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가 아닌 나만의 행복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행복은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는 답을 한 관객. 극마다 이 행복의 의미는 달랐겠지만 모두가 공감했던 순간이지 않을까.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 가치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에게 행복이란 단 하나의 궁극이니 말이다. 극이 전개되는 순간순간 관객들의 표정에서 그래서 나는? 나라면 어땠을

까? 내게는 어떤 의미일까? 극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극 밖의 자신의 페르소나를 찾는 분주한 움직임들이 보였다.

참여 연극의 가능성 내가 속한 회사에서는 발달장애 형제들을 위한 예술치료캠프를 수년간 지원해왔다. 음악, 무용, 미술 등 모든 분야의 예술을 1박 2일간 장애,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며 평소 누릴 수 없었던 예술의 경험을 선사했다. 2일간의 예술 체험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함께 동화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이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은 참여한 모두가 배우가 되고 때로는 작가가 되는 집단 감성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준 것이다. 배우의 열연, 관객의 열연, 관객의 참여, 배우의 조절, 이 모든 것이 조화로웠던 함께 만들어낸 연극이었다. 그 어디서도 다시 볼 수 없는 우리들만의 유일무이한 ‘극’ 말이다.

가장 눈부신 날들이 쏟아졌다 극의 마지막 박스에 담겨져 있던 리스트 종이들이 왈칵 쏟아진다. 공연 전 로비 게시판에 관객들이 빛나는 것들을 써 붙인 포스트잇이 켜켜이 쌓인 듯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빛나는 것들의 기록. 이제 빛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잊고 빛나는 것들로만 우리의 인생을 채우자. 우울의 그늘을 벗어나 행복의 양지를 찾자. 지금 당장 포스트잇을 꺼내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을 하나씩 채워보자.

부산문화회관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일　시 | 3월 5일(수)-6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월-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얼씨구 삼총사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우리의 전통악기를 캐릭터화한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음악과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무대로, 음악대륙 가이아의 신명나는 국악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이번 무대를 제작한 콘텐츠 플랫폼 가이아는 예전의 대륙이 하나였듯 세상 모든 문화는 하나이고 그 속의 다양한 문화들을 담아내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국악의 새로운 면모와 다양성을 대중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 극본/김지은
- 음악감독/손한별

Sound of Busan#2 :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일　시 | 4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이 지역 오케스트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획한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두 번째 무대로, 지난 1993년 창단, 3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위대한 교향곡'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지중배의 지휘로 부산 출신의 차세대 작곡가 김종완의 창작곡 '완성의 여정' 초연에 이어 브람스 생애 단 하나뿐인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77'을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서울대학교 김다미 교수의 협연으로 들려주며, 브람스 '교향곡 제1번'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랑데부

일　시 | 4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지난해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창작 초연극 '랑데부' 부산 공연.
특히 이번 무대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온 배우 박성웅이 24년만에 연극무대에 복귀하여 화제가 된 작품으로,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개성있는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 이수경과 함께 특유의 깊이 있는 감정 연기로 새로운 연기 앙상블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강박장애(OCD)를 겪는 남자 주인공과 홀로 삶을 이겨내야 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한다.

소프라노 김승현 귀국 독창회

일　시 | 4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김승현 010-9619-9003

▼▼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오,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오페라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동대학원에서 가곡과 오라토리오 석사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김승현 귀국 독창회.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김승현은 세계적인 콩쿠르인 한스 가버 벨베데레 성악콩쿠르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것을 비롯해 비오티 국제 음악콩쿠르, 로베르트 슈만 츠비카우 국제콩쿠르 세미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으며, 프랑스 음악콩쿠르 2위 수상을 비롯하여 국내 다수 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녀가 유학 시절 가장 사랑하고 열정을 바쳐 공부한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 관객들과 만난다.

- 피아노/이보미

'너의 이름은' 필름 콘서트

일　시 | 4월 6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　의 | 필뮤직컴퍼니 010-8675-4559

▼▼

2016년 개봉 후 전 세계 1,0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계의 거장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만날 수 있는 필름 콘서트.
'너의 이름은'은 천년 만에 다가오는 혜성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 같은 스토리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 애니메이션으로, 특히 OST는 개봉일로부터 6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각 음원 사이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너의 이름은'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Sparkle-Your Name'을 비롯해 'Dream lantern', '前前前世' 등 OST 전곡을 지휘자 백윤학이 지휘하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들려준다.

제3회 마린뮤즈콰이어 정기연주회
존 레빗 미사 페스티벌

일　시 | 4월 6일 일요일 오후 6:3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14세 이상 관람)
문　의 | 마린뮤즈콰이어 010-5503-9693

▼▼

2007년 부산대학교 합창단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뮤즈콘서트콰이어와 2011년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창단된 마린콰이어가 2017년 전격적으로 연합체를 결성,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마린뮤즈콰이어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의 현대작곡가 존 레빗의 '미사 페스티벌'을 들려준다.
'미사 페스티벌'은 지난 1988년 세계 합창 심포지엄의 축제를 위해 만들어진 곡으로, 고전과 현대의 화성을 적절히 혼합하여 작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휘/김태호
- 반주/정용희
- 특별출연/밴드기린, 색소포니스/이성관

최영주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4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영주 010-5772-4291**

동아대학교 음악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Master of Music 석사학위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최영주 귀국 독주회.

유학 중 Oklahoma State University Concerto Competition에서 우승하여 OSU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뉴욕 필하모닉 챔버 레지던시 오디션에서도 우승, 뉴욕 Queens College 및 NY Goddard Community Center에서도 초청연주를 가졌다.

재학 중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에 참가, 예술적 해석의 깊이를 더해온 최영주는 현재 부산시 예술영재교육원, 부산예문학생시어터에 출강하며 교육자로서도 열정을 쏟고 있다.

제69회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유코의 '불새' 그리고…

THE 불새 모음곡(1919)

일　시 | **4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문　의 | **UKO 010-5468-4658**

2006년 창단한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음악적 깊이를 자랑하는 지휘자 김덕기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오예은, 테너 김지호, 바리톤 안세범이 협연자로 출연, 조르다노 오페라 '페도라' 간주곡을 시작으로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일 트로바토레' 아리아와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음악 중 최초의 작품인 '불새' 모음곡을 들려준다.

스트라빈스키는 발레음악인 '불새'를 곡을 줄여 연주회용 모음곡으로 편곡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세 가지 편곡 버전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1919년 버전을 들려준다.

KNN방송교향악단 월드클래스 스타 시리즈

테너 김재형이 들려주는 '사계'

일　시 | **4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KNN방송교향악단이 클래식 음악의 감동과 깊이를 전하고자 기획한 '월드클래스 스타 시리즈'.

우아하면서도 강렬하며 귀족적인 소리로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온 세계적인 성악가 김재형의 무대로, 그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오페라 아리아와 사계절의 정서를 담아낸 명곡들로 기존의 연주회와는 차별화된 감동을 선사한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오페라계의 보석으로 자리매김한 김재형은 세계 3대 음악콩쿠르인 독일 뮌헨 ARD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와 특별상을 수상했다.

- 지휘/서희태　• 테너/김재형
- 소프라노/안혜수, 홍주영
- 연주/KNN방송교향악단

이리나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4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IPB 010-2290-9463**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 The Quattro string quartette 단원, 바이올린 앙상블 MORAN 음악감독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독주회.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줄리어드 음악대학을 거쳐 영국 왕실음악원 대학원, 뉴욕 메네스 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리나는 뉴욕 인터내셔날 영 아티스트 콘테스트에서 우승하여 카네기홀 데뷔무대를 가졌으며, 그동안 국내외 주요 공연장에서 독주 및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초청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9번 '크로이처'
스트라빈스키/이탈리아 모음곡
바르톡/6개의 루마니아 민속 춤곡

- 피아노/박민선

캔들라이트 벚꽃

일　시 | **4월 12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챔버홀
입장료 | **R석 6만6천원, S석 4만6천원 A석 3만2천원**
문　의 | **크세모스코리아 080-352-8774**

수천 개의 촛불이 빚어내는 감성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연주 '캔들라이트'.

'캔들라이트 벚꽃'은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4월에만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화려한 벚꽃 연출이 더해져 한층 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첫회 공연에서는 비발디의 '사계' 전곡을 연주하며, 히사이시 조 헌정 무대로 꾸며지는 저녁공연에서는 그의 대표곡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해니, 유지은, 비올리스트 장은경, 첼리스트 마유경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실내악 연주팀인 리수스 콰르텟이 연주를 맡아 깊이 있는 선율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깐딴떼부산 제3회 정기공연

The Best of Opera

일　시 | **4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문　의 | **깐딴떼부산 010-9550-4649**

우수한 오페라 콘텐츠 제작과 무대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예술 향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깐딴떼부산이 창단 3주년을 맞아 마련한 정기공연.

오페라 '마술피리', '리골레토',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예술감독/손욱　• 연출/이병웅
- 피아노/송지은, 신세라, 조은지
- 소프라노/이은미, 한인숙, 양근화, 이진영, 이연진, 정애린, 박해미, 이동애, 박은경, 김서영
- 메조소프라노/성미진, 손혜은
- 테너/김준연, 조성흠, 김성, 김준태, 김보우
- 바리톤/최대우, 윤풍원, 최모세
- 베이스/이기백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Classic in Movie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BMPO 070-7727-0188

▾▾

클래식 음악을 통해 우리의 감성을 위로하는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부에서는 활기가 넘치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시작으로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5번,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쇼팽 연습곡 제5번 '흑건'을 들려주며, 2부에서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 '반지의 제왕' OST 등 영화음악을 통해 영화의 감동을 다시한번 느껴본다. 마지막 곡으로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으로,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무대로 마무리한다.

- 지휘/김영수
- 소프라노/김소율 • 피아노/황성훈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이 펼치는 수준높은 실내악의 향연 '유망주 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3월, 교류연주회를 가졌던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실내악팀이 참가, 우정의 무대를 펼친다.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창단된 후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육성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프로그램

드보르작/현악사중주 제12번 작품 96 '아메리칸'
비발디/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RV 522
멘델스존/현악사중주 제6번 작품 80
A. 블랑/7중주 마장조 작품 40

- 지휘, 지도/백승현(수석지휘자)

뮤지컬 웃는 남자

일 시 | 4월 22일(화)-26일(토) 화-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7만원, S석 14만원, A석 11만원, B석 8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공연마루 1588-0766

▾▾

제7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를 비롯 한국뮤지컬어워즈, 이데일리 문화대상, 제14회 골든티켓어워즈 등 한국 창작뮤지컬 최초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뮤지컬 '웃는 남자'.

탐욕의 시대를 뒤흔든 빅토로 위고의 위대한 통찰이 담긴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웃는 남자'는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순수함을 간직한 그윈 플렌의 삶을 통해 사회 정의와 인간성이 무너진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에 대해 조명한다.

부산예그리나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봄! 그리고 가족과 인생과 노래

일 시 |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5세 이상 관람)
문 의 | 부산예그리나합창단단무장 010-3841-7402

▾▾

노래에 대한 열정을 뭉친 시니어 합창단인 부산예그리나합창단의 7번째 정기연주회.

2011년 창단한 부산예그리나합창단은 2014년부터 4년간 전국환경노래경연대회에 참가, 은상 및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8년과 2019년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항노화 실버합창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원자력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환우를 위한 재능봉사도 다수 펼쳐온 부산예그리나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한 강종철 지휘자의 지휘로 국내외 가곡 및 대중가요, 팝송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특히 합창단 전속 악단인 '김종철(아오스팅, 태너)과 친구들'이 인기가요를 중심으로 한 신명나는 곡으로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

트리오 피아체 연주회

슈만&멘델스존

일 시 | 4월 25일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

순수한 음악에의 열정과 풍부한 음악적 기량으로 관객들에게 피아노 트리오의 세계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트리오 피아체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종과 첼리스트 정윤혜, 피아니스트 박정희로 구성된 트리오 피아체는 그동안 다수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오셔너스 아트홀 초청연주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초청 희망의 음악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청 렉쳐콘서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영산아트홀 우수연주단체 선정, 부산MBC목요음악회 초청연주, 아트뱅크코레아 2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서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과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를 들려준다.

차지희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4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예인예술기획 02-586-0945

▾▾

섬세하면서도 유려한 선율과 폭넓은 해석으로 호평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차지희 귀국 독주회.

미국 존스홉킨스 피바디 음악대학 학사 및 동 대학 바이올린 연주 석사와 현악 페다고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차지희는 어려서부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며 다수 콩쿠르를 석권했다.

유학시절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주경험을 쌓은 차지희는 귀국 전 Tucson Symphony Orchestra의 제1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국내에서는 Ditto 오케스트라,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객원 단원으로 활약하며 오케스트라 연주활동을 이어왔다.

차지희는 현재 뉴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객원 단원, 부산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단원이자 피바디 앙상블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문화 30주년 기념 희노애락 콘서트
임시수도기념관과 함께하는

부산 전성시대(全盛時代)

일 시 | 4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

피란수도 시절 부산에서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명곡을 만날 수 있는 '임시수도기념관과 함께하는 부산 전성시대(全盛時代)'.

특히 임시수도기념관 동진숙 관장의 깊이 있는 해설과 임시수도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영상을 통해 어려웠던 시절에도 활발히 꽃피웠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다채로운 곡을 만날 수 있다.

- 소프라노/김아름, 양근화
- 테너/이태흠
- 바리톤/이태영
- 피아노/이정원
- 해설/동진숙(임시수도기념관 관장)

전지훈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4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증 지참시 30% 할인)
문 의 | 제이비(JB)아트컴퍼니 010-3592-9002

▾▾

2009년 비엔나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50년 만에 한국인 최초로 준우승하여 이름을 알린 피아니스트 전지훈 독주회.

전지훈은 14세의 나이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학사과정에 최연소 입학, 3년 만에 최연소 수석으로 조기 졸업한 후 19세의 나이에 석사과정 최연소 수석졸업의 영예를 안았고, 이후 베를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지난 2021년, 베토벤 서거 190주년을 맞아 2017년부터 시작된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시리즈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한 전지훈은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Klavierstiicke 작품 118'과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들려준다.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초월자

일 시 | 4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극단이 소극장 연극을 지향하며 기획한 '스타프로젝트'.

첩보 심리 드라마인 '초월자'는 '초월자'라는 코드네임과 함께 주인공이 내면의 고통과 실패를 딛고 첩보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현실과 가상,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을 초월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의지를 탐구한다.

김민우가 극작과 연출을 맡았으며, 부산시립극단 수석단원 황창기를 비롯하여 단원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이태성, 박규한, 김성열, 전용균, 양지웅이 출연한다.

• 작, 연출/김민우

2025 제2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 판타지아

일 시 | 4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1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

신비하고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로 떠나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 판타지아'.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자 신학기 특집 프로그램으로, 새학기 시작의 설렘을 담아 더욱 더 특별하고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서커스 매직, LED 판타지, 클래식 매직, 매직 하모니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찔하고 숨막히는 신기로운 마술세계가 펼쳐진다.

베베핀 뮤지컬

우당탕탕 패밀리

일 시 | 4월 5일-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5만5천원
(12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40% 할인)
문 의 | ㈜애드칸 02-586-0622

▾▾

핑크퐁, 아기상어를 잇는 차세대 IP(지적재산권) '베베핀'이 등장하는 국내 첫 뮤지컬 '우당탕탕 패밀리'.

'베베핀'은 베베핀 패밀리가 전하는 따뜻한 웃음과 가족애 넘치는 이야기로, 전 세계 유튜브 채널 구독자 3천5백만명을 돌파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9개국 넷플릭스 1위 및 24개국 넷플릭스 Top10에 등극하며 높은 화제성과 파급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가족의 평범한 일상에서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모험 속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LED 특수효과, 리듬감 넘치는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인터랙티브 플레이를 더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2025 신나는 음악회_클래식 악기 체험공연

악기야 놀자 '봄' 나들이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꾸러기예술단 02-547-9851

▾▾

어린이들이 악기 연주와 체험을 통하여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꾸러기 예술단의 클래식 악기 체험공연 '악기야 놀자'.

1부에서는 각 악기에 대한 소리와 원리, 연주 방법을 쉬운 연주와 해설로 알아보며, 2부에서는 악기체험 시간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 4종의 현악기를 전문 연주자의 지도로 개별 체험할 수 있다.

3부에서는 특히 봄과 잘 어울리는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을 라이브 연주로 들려주며, 마지막 4부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보고 체험한 악기와 연주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꾸러기예술단 최신일 단장이 진행과 해설을 맡아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어린이들을 편안하게 이끈다.

연극 태양 아래 널브러진 개

일　시 | 4월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14세이상 관람)
문　의 | 문화판 모이라 010-9701-0712

▼▼

나와 나의 사이, 그리고 나와 타인의 사이에 대한 고민을 연극적으로 형상화한 문화판 모이라의 연극 '태양 아래 널브러진 개'.

의사였던 영훈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자 다큐멘터리 기획에 흥미를 느끼고 유명 추상화가인 도정섭의 삶과 그림을 취재하려 한다. 한번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허락한 적이 없었던 도정섭이 영훈에게 마음을 열고 취재가 진행되는 중, 도정섭이 지병으로 쓰러진다. 그가 부재하는 정섭의 집에서 영훈은 우연히 나무대문집 여자를 만나는데….

이번 작품은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와 타인이 어떻게 상생할지에 대해 의미있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 작, 연출/김숙경

뮤지컬 '돈 주앙'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일　시 | 4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7만원, S석 14만원, A석 11만원, B석 8만원
문　의 | ㈜공연마루 1588-0766

▼▼

19년만에 돌아온 뮤지컬 '돈 주앙'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2004년 캐나다 초연 이후 전세계 60만명 관객 동원, 40만장 이상의 OST 판매고를 기록한 프랑스 명작뮤지컬로, 지난 2006년 첫 내한 당시 보름만에 3만 관객을 동원하며 폭발적인 흥행성적을 거둔 바 있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옴므파탈 '돈 주앙'의 삶과 사랑,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돈 주앙이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그린 '돈 주앙'은 스페인 세비야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세련된 무대 디자인과 화려하고 관능적인 스페인 오리지널 플라멩코 댄스팀, 그리고 감미롭고 강렬한 라틴 선율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관객을 사로잡는다.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5

일　시 | 5월 6일 화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라이브러리컴퍼니 070-4190-1289

▼▼

'영화보다 빛나는 영화음악' 그 여운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히사이시 조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설립자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애니메이션 음악을 맡아 '지브리 사운드'의 창시자로 통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음악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차세대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김재원과 위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라이브 연주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시작으로 '마녀 배달부 키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벼랑 위의 포뇨',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천공의 성 라퓨타' 등 그의 대표적인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일　시 | 5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어린이들과 클래식의 거리를 좁혀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두 번째 무대.

이번 무대는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무대로, 어린이들이 클래식 공연 감상을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추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 해설로 공연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스크린을 활용한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앙상블 연주가 어우러지면서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인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올해 두 번째 무대인 '클래식 댄스! 댄스!'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 선율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음악 속 다양한 춤곡을 우아한 궁전 춤곡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 민속 춤곡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명쾌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이 해설을 맡아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준다. 박소연은 클래식 앙상블 '엘 콰르텟'의 리더로, 어린이들의 클래식 교육과 감상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키즈 클래식'을 기획, 수년간 진행하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고 있다.

연주를 맡은 '엘 콰르텟(L quartet)'은 풍부한 감정 표현과 섬세한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현악사중주단으로 무용, 연극, 미술 등 다채로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실내악 음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해설/박소연
- 연주/엘 콰르텟

부산유니온발레단 2025년 창작발레

보은의 꽃

일　시 | 5월 9일 금요일 오후 2:00(단체관람), 7:3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6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부산유니온발레단 010-8544-1442, 010-4572-9991

▼▼

부산유니온발레단의 2025년 창작발레 '보은의 꽃'.

1979년 창단된 김정순발레단을 모태로 1995년 지금의 발레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활동을 이어온 부산유니온발레단은 초대단장이었던 김정순 예술감독에 이어 상임안무가였던 김민교가 제2대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한 컨템포러리 발레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초연된 창작발레 '보은의 꽃'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효(孝)의 가치를 예술적 언어로 재조명한 무대이다.

- 안무/김정순, 김민교

음악

4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

올해로 개관 22주년을 맞는 금정문화회관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 '금정수요음악회' 4월 무대.

2일(제883회) 색소폰과 바이올린의 'Loving you'
국내 최정상의 재즈 색소포니스트 이병주와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의 콜라보 무대로,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신, 베이시스트 김대경, 드러머 곽영일과 함께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연주를 들려준다.

9일(제884회) 박지영의 피리 독주회 Ⅳ 'ㅂ불어오다-Ⅰ. 경기(京畿)'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으로 있는 피리주자 박지영의 무대.
박지영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으며, 제21회 KBS국악대경연 관악부 장원에 입상한 바 있다.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국립국악원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왔다.

프로그램
박범훈류 피리산조, 호적풍류, 경기 대풍류
- 피리/박지영　• 해금/한수지
- 대금/양수연　• 타악/이종철
- 사회/신진원

16일(제885회) 부산성악가협회 '소리로 그리는 사계'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성악가협회가 마련한 특별한 무대. 노래 속에 숨은 각각의 시와 한국화의 숨은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내면서 마치 관객들에게 노래를 통한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 소프라노/김현주, 박소영, 이수정
- 테너/김성배, 김희수
- 바리톤/최모세　• 피아노/최승희

23일(제886회) 김유빈 피아노 독주회 Journey Serise Ⅱ 'Wien'

서울대학교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수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유빈 독주회.
모차르트는 피아노 소나타를 총 18곡을 작곡했는데 그 연주 시간만 400분에 달한다. 피아니스트 김유빈은 이번 무대에서 그 중 모차르트가 작곡가로서 성장하던 중요한 시기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제2번 바장조 작품 280'을 비롯하여 모차르트 소나타 4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원아영

30일(제887회) Music and Muses '뮤즈로부터 탄생된 음악과 미술 이야기'
아트텔러 정인지의 해설이 함께하는 아트콘서트로,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 속 영감이 되어준 '뮤즈'에 관한 주제로 미술과 음악 이야기를 펼친다.
- 아트텔러/정인지
- 소프라노/이진영, 강주희
- 테너/장지현, 한우인
- 바리톤/한정현　• 피아노/최승희, 신주옥

부산 플루트 콰르텟 창단 연주회

일　시 | **4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 플루트 콰르텟 010-4911-3259**

▾▾

플루티스트 박한나, 김성식, 신승민, 김보경으로 구성된 부산 플루트 콰르텟의 창단무대.
박한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실내악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앙상블9°oodo 단원으로, 김성식은 인제대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더 뉴앙상블 멤버, 아르떼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신승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및 석사과정, 독일 함부르크 음대 석사과정 및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플루트 콰르텟 숨 리더, Aura 목관오중주 리더로, 김보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및 석사과정, 프랑스 세르지 국립음악원, 말메종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인제대 박사과정에 있다.

4월 스페이스움 음악회

일　시 | **4월 4일(금), 25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

4일(제576회) Fall in Romantic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박필은, 김진희, 서혜원이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슈베르트, 쇼팽, 슈만, 브람스의 작품을 연주하는 'Fall in Romantic'.
박필은은 독일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피아노 실내악 과정 졸업(석사), 뮌스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2018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했다.
김진희는 부산대학교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도독, 뒤셀도르프 국립 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 아인클랑 피아노앙상블 대표로 있다.
서혜원은 독일 아헨Aachen 국립음대 KA전문연주자과정,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전문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즉흥곡 작품 90 제3번
슈만/아베크 변주곡 작품 1
슈만/환상소곡집 작품 12 등

25일(제577회) 바리톤 박정현 리사이틀
계명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F. Torrefranca'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Renato Tebaldi, Titta Ruffo, Ruggero Leoncavallo, Francesco

Albanese, Umberto Giordano 등 국내외 다수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바리톤 박정현의 무대.
현재 오페라 가수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현은 그동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카발로니아 루스티카나', '리골레토', '라보엠' 등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피아니시모 제17회 정기연주회

A Beautiful Day

일　시 | **4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 010-9238-2411, 010-8533-9662**

▼▼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의 정기연주회.

2010년 1월 창단한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는 교사의 예술적 경험이 배우는 대상에게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교수법 세미나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회장 이은형의 해설로 독주부터 2piano, 2piano 8hands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피아노 음악의 매력을 전해준다.

- 기획/이은형
- 연주/강시은, 김아림, 박수영, 박지연, 예내형, 오영주, 이은형, 이학임
- 특별출연/최재영

부경챔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아를르의 여인

일　시 | **4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경챔버오케스트라 010-3146-8434**

▼▼

목관악기와 현악기의 독특한 어우러짐과 따뜻하고 맑은 음색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부경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2020년 창단한 부경챔버오케스트라는 뛰어난 개개인의 실력과 해가 갈수록 하나가 되는 호흡으로 짧은 활동 기간에도 앙상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휘자 김태훈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문성경, 윤창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을 보여주는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을 비롯하여 쇼팽, 바흐의 피아노협주곡을 들려준다.

2025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_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일　시 | **4월 9일(수), 30일(수) 오후 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

일상의 쉼표가 되어줄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9일 NS Band '시민을 위한 예술의 향연! 특별한 밤!'

Big Band와 JK Band, Black Eagles에서 활동했던 연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NS(New Start) Band의 무대.

30일 오페리움 한울_장미꽃 가시 '카르멘'

오페라 및 클래식 성악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오페리움 한울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연출, 총감독/채범석
- 스토리텔러, 해설/김나정
- 출연/정연실, 김정권, 최대우, 이수진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4월 8일(화), 22일(화), 29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

우수한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여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2025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공감.

8일(제62회) 삼시세끼 속 SWING

리더이자 드러머 김비오를 주축으로 1920~194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Swing, Jazz, Pop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Hiphop, Soul, R&B에 사용되는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운드로 재해석하는 밴드 '무드 스페이스(Mood Space)'의 무대.

TV 예능프로그램인 '삼시세끼'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Swing 음악들을 재해석, Swing Dance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22일(제63회) 이야기가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와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를 만날 수 있는 부산예술오페라단의 '이야기가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기존의 오페라 콘서트 형식을 벗어나 진행자와 오페라 전 출연진이 무대로 나와 관객과 가깝게 소통하며 오페라를 쉽게 전달한다.

부산예술오페라단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위축되어 있던 클래식 공연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부산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클래식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부산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29일(64회) 문학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 1_무라카미 하루키

클래식 음악 전공자들이 연주하는 탱고와 재즈로 크로스오버의 전형을 보여주며 음악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아티스타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클래식 곡을 작품 해설과 함께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튜에이드

하나되는 너와 나의 목소리, 아카펠라!

일　시 | **4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비트박스로 구성된 혼성 5인조 보컬그룹 튜에이드(TuneAde)의 무대.

튜에이드는 2019년 창단한 후 아카펠라와 보컬하모니가 갖고 있는 음악적 희소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2023 국가대표 비트박스 챔피언인 포엠의 솔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가요, 팝 등 여러 장르의 대중적인 곡들을 아카펠라로 들려준다.

제22회 라이징뮤지션 콘서트

금관악기에 빠지다! V_Brass

일　시 | **4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

부산을 대표하는 젊은 금관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브이 브라스의 무대로 펼쳐지는 을숙도문화회관 라이징뮤지션 콘서트.
브이 브라스는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로 이루어진 관악기에 드럼을 넣어 기존의 금관앙상블보다 더욱 흥겹고 많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갖춘 연주팀으로 그동안 관객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국악, 트로트, 가요부터 이해하기 쉬운 재즈, 팝, 클래식까지 다양한 레퍼토리와 장르로 관객과 소통해왔다.
이번 무대는 금관악기로 들어보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무대로, 윈드오케스트라 곡을 활용한 앙상블 무대와 비발디 '사계'의 각 계절에 어울리는 가요를 믹스한 특별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도서관의 날 기념 '도서관 옆 음악당'

콘트라베이스 이야기

일　시 | **4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문화유목집단동행 010-2026-8280**

▼▼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며, 문화유목집단동행에서 새롭게 기획한 '도서관 옆 음악당' 첫 번째 이야기.
이번 무대에서는 더블베이스 연주자를 통해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인간의 외로움을 서술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책 '콘트라베이스'를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들려준다.
특히 책 속 주인공이기도 한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더블베이시스트 박지수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 이야기/정두환(문화유목민)
- 콘트라베이스/박지수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시리즈

영도에서 떠나는 예술여행 르네상스

일　시 | **4월 12일 토요일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하는 렉처콘서트 시리즈 2025년 무대.
올해는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시대, 인상주의와 현대예술 등 4회로 나누어 그 시대의 유명 화가들을 중심으로 시대별 특징을 알아보고 관련 음악을 실연으로 감상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작품과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르네상스 발상지인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유명 아리아를 중심으로 강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콘서트 가이드/김성민
- 소프라노/이연진　• 테너/강도호
- 바리톤/한정현　• 피아노/최승희

제13회 스페셜 아티스트

작곡가 백승태의 을숙도 소묘(나들이)

일　시 | **4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을숙도문화회관 스페셜 아티스트.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작곡가 백승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곡가 백승태는 몽골 울란바트로 Gurvan-Erdene Pedagical University 명예박사로, 현재 김해음악협회 회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을숙도문화회관이 자리하고 있는 을숙도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된 곡들을 소개하며, 백승태 작곡가의 곡 외에도 작곡가 송필석, 최은애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 작곡/백승태, 송필석, 최은애
- 테너/김준태, 김성
- 소프라노/박은경, 권소라　• 피아노/신세라

피아니스트 김은주 독주회

피아노와 함께하는 산책

일　시 | **4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무료(10세 이상 관람)**
문　의 | **김은주 010-3471-8943**

▼▼

깊은 감성과 탁월한 연주력으로 사랑받아온 피아니스트 김은주가 음악의 순수한 즐거움을 선사할 아름다운 피아노 명곡들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피아노와 함께하는 산책'.
김은주는 부산대학교 음악과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일찍이 한국일보 음악콩쿠르 대상, 월간음악콩쿠르 1등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독일과 네덜란드,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활동을 펼쳐온 김은주는 이번 무대에서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관객과 특별한 음악적 교감을 나눈다.

색소포니스트 우다연 & 피아니스트 박지은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4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우다연 010-9669-0086,**
박지연 010-5799-5890

▼▼

부산 최초로 펼쳐지는 색소폰과 피아노 앙상블의 무대.
부산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색소포니스트 우다연과 피아니스트 박지은의 듀오 무대로 생상과 베토벤,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색소폰&피아노의 환상적인 앙상블 연주로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생상/바순 소나타 작품 168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3번 가장조 작품 69
라흐마니노프/첼로 소나타 작품 19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8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　의 |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3544-7308**

▼▼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지난 2009년 창단한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15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초청공연, 순회공연, 살롱음악회 등 연간 20여 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 오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콥스키/슬라브 행진곡
보케리니/첼로 협주곡
차이콥스키/교향곡 제4번
- 지휘/홍성택(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 협연/첼리스트 송영훈

제9회 A-ri 앙상블 기획공연

책 읽어주는 음악회

일　시 | **4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누리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초중고생 20% 할인)**
문　의 | **A-ri 앙상블 010-67803-3886, 010-4666-6268**

▼▼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열정으로 결성된 A-ri 앙상블의 특별한 무대 '책 읽어주는 음악회'.
그동안 꾸준히 '책 읽어주는 음악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A-ri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음악과 함께 소개한다.

프로그램

드뷔시/작은 모음곡 중 '미뉴엣'
프랑크/바이올린소나타 4악장
라벨/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등 수곡
- 피아노/유상경, 강인경 • 바이올린/하고은
- 첼로/이지수 • 타악기/홍성률
- 작곡/김우진 • 성악/박유진
- 성우/김희승 • 사회/박시현

제4회 엘랑 정기연주회

김자경 클래스 40주년 연주회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엘랑음악학원 010-4816-0565**

▼▼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음악가로, 교육자로, 그리고 삶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제자들이 스승인 김자경 선생께 드리는 감사이자 박영세 선생께 바치는 존경과 그리움을 담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을 독주 및 듀오, 네 손, 여섯 손 등 다양한 형식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리스트/사랑의 꿈 제3번
슈만/헌정
라흐마니노프/여섯 손을 위한 로망스
스트라우스 2세/네 손을 위한 '박쥐' 서곡 작품 56
생상/동물의 사육제 중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백조' 등 수곡
- 연주/노은주, 박민선, 박근아, 정한나, 김민선, 박은아, 박소정, 김주희, 유주연

BCC 클래식 1

조이오브스트링스 Stars&Strings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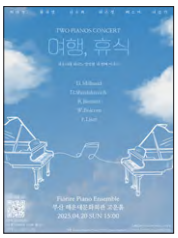
▼▼

199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성주 교수가 창단한 현악앙상블로, 뛰어난 음악적 기량과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 깊이 있는 음악으로 국내외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이오브스트링스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별자리와 신화를 테마로, 12개의 별자리 속 숨어있는 신화와 전설을 12명의 작곡가와 연결지어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알려진 물병자리의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를 시작으로 낭만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물고기자리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그리고 양자리 하이든, 황소자리 브람스 등 작곡가의 다양한 곡을 색다른 방식으로 소개한다.

피오리레 피아노 앙상블 네 번째 이야기

여행, 휴식

일　시 | **4월 20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 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피오리레 피아노 앙상블 010-5883-1281**



▼▼

피아니스트 배소미, 이슬기, 최은정, 신소희, 허다영, 황지영으로 구성된 피오리레 피아노 앙상블의 네 번째 무대.
'Two Pianos Concert'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두 명의 연주자가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미요/스카라무슈
쇼스타코비치/모음곡 작품 6
베넷/Four Piece Suite Divertimento 2 Pianos
볼컴/에덴의 정원
리스트/노르마의 회상
- 해설/전다인

박나회 피아노 독주회 아홉 번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3

일　시 | **4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박나회 010-3736-7175**

▼▼

부산, 경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나회의 아홉 번째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 ·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기획, 연주활동을 이어온 박나회는 앙상블 다온, 앙상블 리에토, 피아네타의 전속 피아니스트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베토벤 소나타 제5번과 제6번, 제7번, 그리고 제21번을 들려준다.

피아노 포핸즈로 만나는 오페라 명곡 시리즈 1

Carmen & Rigoletto

일 시 | 4월 23일 수요일 오후 7: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만원(청소년 및 학생 50% 할인)
문 의 | 뚜또베네 010-9770-4660

▼▼

2024년 창단된 클래식 음악 연주단체 뚜또베네의 피아노 포핸즈로 만나는 오페라 명곡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카르멘&리골레토'.

'뚜또베네(Tutto bene)'는 탄탄한 연주력과 섬세한 해석으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피아노 포핸즈로 만나는 이번 오페라 명곡 시리즈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비제 오페라 '카르멘'과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주요 아리아를 풍성하면서도 깊이있는 사운드로 들려준다.

- 소프라노/노연수 • 메조소프라노/손호정
- 테너/김은교 • 바리톤/강동진
- 피아노/박정연, 전지호

을숙도문화회관 아트클래스 시리즈VI

전원경의 파리 카페, 인상파 화가들

일 시 |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하는 미술과 클래식의 만남 '아트클래스 시리즈' 여섯 번째 무대로, 파리를 주 무대로 활동했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전원경 교수의 깊이있는 해설로 만날 수 있다.

해설을 맡은 전원경 교수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시티대학교 런던에서 예술비평 전공으로 석사를,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피아니스트 표세구, 소프라노 신린 등 실력파 연주자들이 출연, 쇼팽과 라벨, 포레 등 인상파 화가의 작품과 어울리는 클래식 곡을 들려준다.

해운대문화회관 On Stage Concert

Pop Solist Ensemble Tre Voci

일 시 |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초·중·고생 4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연주자와 관객이 공연장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무대, 해운대문화회관 On Stage Concert.

4월에는 테너 백예훈, 이광진, 바리톤 김경한으로 구성된 팝 솔리스트 앙상블 'Tre Voci'가 무대에 오른다.

백예훈은 부산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양산시립합창단 단원, 한울림합창단 트레이너로, 이광진은 다수 오페라 및 창작뮤지컬 주역 등 전문연주자로, 김경한은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하고 현재 탱고밴드 메츠클라, 락밴드 라펠코프의 리드보컬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예술 유튜브 채널 '부티난다'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이 진행을 맡아 국내외 가곡에서부터 뮤지컬 넘버, 가요 등을 들려준다.

을숙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대금, 천년의 소리에 반하다

일 시 |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

자연 속 정원에 자리 잡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을숙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대금, 천년의 소리에 반하다'는 주제로, 아트컴퍼니 예술路가 대금이 지닌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녹여내어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부산의 대금 신예 김동현이 주도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적인 대금 연주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퓨전 무대까지, 대금의 매력과 진수에 흠뻑 빠질 수 있다.

- 사회, 판소리/유시은
- 대금, 소금/김동현
- 대금/강영진 • 피아노/이창희

벨리씨미성악연구회 제23회 정기연주회

봄의 속삭임

일 시 | 4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벨리씨미성악연구회 010-9324-4310

▼▼

지난 2005년, 부산의 성악인들이 모여 창단한 벨리씨미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이태리어로 '멋있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지닌 벨리씨미성악연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언어와 장르의 음악을 연구하는 한편, 따뜻한 테마와 주제가 있는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에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봄의 속삭임'이라는 부제로 봄과 잘 어울리는 가곡 및 민요,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기원, 백성희, 이은희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성미진
- 피아노/최성근 • 바이올린/이진
- 첼로/정서은
- 해설/윤재원

유재철의 풍물이야기

반백풍류-知天命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전통종합연희단체 풍류인 010-9551-7210

▼▼

올해로 지천명을 맞은 유재철이 풍물인생 30년을 되돌아 보며 마련하는 유재철의 풍류이야기 '반백풍류-지천명'.

현재 전통종합연희단체 풍류인 대표로 있는 유재철은 국가무형유산 진주삼천포 농악 이수자이자 남산놀이마당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2014 제16회 전국농악명인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24 서울연희대전 '소고대전'에 초청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듬북과 전자드럼, 비보이와 함께하는 타악연주곡 '반백풍류'를 비롯하여 유재철 소고춤, 진주삼천포농악을 기반으로 한 풍물판굿 '늙은 이수자들의 풍물향연', 김선옥류 채상소고놀음, 열두발 상모놀음과 더불어 동래한량춤, 이부산류 앉은반 설장고 '천고' 등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소프라노 이동애 귀국 독창회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동애 010-4763-3715**

▼▼

경성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이, 노바라 콘서바토리오와 밀라노 시립음악원,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소프라노 이동애 귀국 독창회.
귀국 후 경상 오페라단에서 연수단원으로 있으며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서는 등 국내에서의 무대경험을 쌓기 시작한 이동애는 천주교 부산교구 본당 성지성당에서 성가 단원들과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에서 발성법 교수로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종교곡과 예술가곡, 그리고 소프라노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서정적인 아리아를 들려준다.

- 반주/Crovetti Diego

가족오페라 신콩쥐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된 가족오페라 '신콩쥐'.
'공주와 왕자'라는 친숙한 서사에 놀부, 몽룡, 방자와 같은 전래동화 속 캐릭터를 더하여 선한 행동의 가치와 나쁜 행동의 대가를 전하는 교훈을 작품 속에 담고 있다.
특히 화려한 색감,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얻은 영상디자인, 홀로그램 효과, 마술 등 시각적 요소를 극대화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 극작, 연출/장희원　작곡/김태영
- 지휘/김광현
- 소프라노/성이현, 이선아, 박현아
- 테너/김지훈
- 바리톤/류동휘, 김준엽
- 배우/김다운, 원그리

지브리 하우스 콘서트

당신이 가는 여정 사이에서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첼리스트의 서재
입장료 | **전석 3만원(6세 이상 관람)**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따스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하우스 콘서트 '지브리 하우스 콘서트'.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 대표이자 에스카플로네 앙상블 단원, 끄라스네 앙상블 단장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민희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이자 끄라스네 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이석민이 지브리 음악을 비롯한 다채로운 곡을 아름다운 라이브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Por Una Cabeza(여인의 향기), 언제나 몇 번이라도(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너를 태우고(천공의 섬 라퓨타), Memory(캣츠) 등 수곡

프로젝트 앙상블 플루츠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프로젝트 앙상블 플루츠 010-5237-6025**

▼▼

플루티스트 전은지의 제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플루츠의 정기연주회.
전은지는 오스트리아 부르게란트 주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및 악기교육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다양한 마스터클래스에 참가, 전문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현재는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빙교수, 부산예술중·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플루트 앙상블 외에도 피아노, 기타 선율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플루트/전은지, 강민정, 권나영, 김성민, 김지민, 변아진, 서문지예, 오은지, 전은경, 정유리, 정춘나, 허주영
- 기타/김현지　• 피아노/황옥신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바로크의 정원에서

일　시 |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호
입장료 | **전석 2만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

당신의 예술적 품격을 책임지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격월로 열리는 금정문화회관의 브런치 콘서트는 향기로운 커피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다.
4월 무대에서는 카운터테너 장정원,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피아니스트 김정은과 바로크 시대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해설/송현민
- 카운터테너/장정권
- 바이올린/이현우
- 피아노/김정은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6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9일-30일 화-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7278-0013, 010-3596-1964**

▼▼

1990년 국내 최초로 창단된 피아노듀오단체인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29일(화) 4인 음악회

피아니스트 성민주, 윤예지, 박소진, 송대현이 펼치는 솔로 무대.

30일(수) 듀오연주회

피아니스트 박은정, 김선화, 김정희, 이지은, 김지은, 박필은, 정연희, 최현정, 손선경, 김미성, 박지은, 하부성, 이윤지, 곽소정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2025 영화의전당 마티네 4월

심현정의 11시 영화음악콘서트

그때 우리들의 사랑이야기

일 시 | 4월 30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

21세기 대한민국 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음악콘서트 '2025 영화의전당 마티네'.

올해는 영화 '올드보이'(2004년), '아저씨'(2010년)로 대한민국 영화대상 음악상을 수상한 영화음악가 심현정이 호스트로 참여,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관객과 만난다.

4월에는 영화 '늑대소년', '그해 여름', '피끓는청춘' 등 각기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멜로 영화 세 편을 하나의 공연으로 만난다.

- 호스트/심현정
- 연주/부산필름뮤직오케스트라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가족, 한 글자의 뭉클함

일 시 | 5월 4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3만원(만 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기획한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5월 무대.

새봄을 맞아 '어연히(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 첼리스트 이명로와 '첼리스트의 서재' 대표 피아니스트 박민희, '어연히' 부대표 플루티스트 신혜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단원 이석민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브리 OST와 클래식 명곡으로 가족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연극

뮤지컬 **런던 레코드**

일 시 | 2024년 8월 23일(금)-2025년 5월 31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2:00(월-목요일 공연없음)
부산 엠스테이지
입장료 | 전석 6만원(전체 관람가, 예매시 2만9천원)
문 의 | 엠스테이지 070-7787-2356

▼▼

국내 창작뮤지컬로서는 최초로 전 세계 뮤지컬의 본고장인 웨스트앤드에 진출한 뮤지컬 '런던 레코드'.

런던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레코드 샵 주인 존. 어느날 그의 텅 빈 레코드 샵에 세계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찰리와 오디션에 떨어진 스칼렛이 찾아온다. 그들은 레코드 샵 주인 존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전설처럼 사라진 밴드의 리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세명의 만남은 음악으로 하나되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는데….

특히 20분간 펼쳐지는 콘서트 장면은 생생한 라이브로 관객들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린다.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일 시 | 3월 7일(금)-8월 31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전석 6만원
(KNN시어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4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

2022년 1월 종이책으로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국내에서만 30만 권 넘게 판매된 황보름 작가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2024년 CJ문화재단 스테이지업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휴남동에 서점을 오픈한 주인공 '영주'가 단골손님들과 함께 고민과 위로를 나누며 용기를 얻는 이웃들의 연대기를 보여준다.

특히 원작을 제대로 살린 드라마와 귀에 꽂히는 가사, 아름다운 음악으로 초연부터 관객몰이에 성공하며 대학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일 시 | 3월 13일(목)-6월 15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사이다 돌직구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은 스테디셀러극 '늘근도둑이야기'.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난 두 늙은 도둑은 노후 대책을 위해 마지막 한탕을 꿈꾸며 어느 부잣집에 잠입하지만 하필 그곳이 '그분'의 미술관. 엄청난 부와 권위를 자랑하는 '그분'의 미술관에는 세계적인 미술품들이 소장되어 있지만 작품의 가치를 모르는 두 늙은 도둑은 오직 금고만을 노리다가 결국 조사실로 끌려가는데….

'늘근도둑이야기'는 지난 1989년 초연 당시 파격적인 정치풍자, 신랄한 시사코미디로 큰 호응을 얻은 후 매 시즌마다 당대의 화두를 반영한 풍자와 거침없는 애드리브로 크게 사랑받았다.

연극 **아주 보통의 하루**-Our Town

일 시 | 3월 15일(토)-5월 11일(일) 토-일요일 오후 3:00(4/5일-4/6일, 5/5일 공연없음) 어댑터씨어터 2관
입장료 | 전석 4만원(만 10세 이상 관람)
문 의 | 어댑터씨어터 911-1447

▼▼

손톤 와일더의 명작 '우리 읍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극 '아주 보통의 하루-Our Town'.

브로드웨이 최장기 연극 공연기록을 가진 작품으로, 부산에서도 극단 레퍼토리시스템 초연 이후 약 40년만에 무대에 오르는 'Our Town'은 작은 마을에서 펼쳐지는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한다.

특히 100석 규모의 소극장임에도 17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무대는 배우들의 연기와 관객의 상상력만으로 소극장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진 삶의 가치를 조명한다.

- 총괄프로듀서/심문섭
- 작/손톤 와일더
- 연출/심문섭, 유병은

원조 코믹극 딜리버리

일　　시 | **3월 27일(목)-7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무엇이든 배달해 주는 신개념 딜리버리 서비스를 배경으로, 상상도 못 할 다양한 배달 의뢰를 통해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믹 연극 '딜리버리'.
평범하지 않은 배달 의뢰로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딜리버리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극한의 배달들이 연이어 접수되는데…. '딜리버리'에서는 위험천만, 사건사고, 우여곡절의 총집합 의뢰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트러블, 연인과의 싸움, 부모님과 자식의 다툼으로 인한 오해와 분란을 이해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진심 어린 이야기로 풀어낸다.

2025 라이브 가족뮤지컬 정글북

일　　시 | **4월 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예매시 2만2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조이컬쳐 070-7807-0701**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동화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정글북'.
위기에 빠진 정글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맞서는 모글리의 생생한 모험과 동물 친구와의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생동감 넘치는 배우들의 화려한 춤선과 열정적인 라이브로 뮤지컬의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도 다채로운 무대 퍼포먼스로 어린이들을 판타스틱한 정글 속으로 이끌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 어린이 연극 강아지똥

일　　시 | **4월 1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초·중·고생 3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2024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아시안 아츠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강아지똥'.
故 권정생 작가의 동화 '강아지똥'을 무대에 옮긴 작품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끼던 강아지똥이 작은 민들레 새싹을 만나 아름다운 민들레꽃으로 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김정숙 대표의 각색, 연출에 감성조명의 김윤희, 천재국악작곡가 양승환, 캐릭터 의상의 대가 유미양, 대형 인형제작가 기태인 등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한국 고유의 색채와 정서를 그려낸 무대와 의상,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로부터 '움직이는 그림동화'라는 호평을 받았다.

가족뮤지컬 겨울이야기

일　　시 | **4월 12일-1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부산다누림센터 다누림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50% 할인)**
문　　의 | **즐겨찾기 02-420-3005**

▼▼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초로 국내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원작으로 한 가족뮤지컬 '겨울이야기'.
하나뿐인 언니 엘사와 얼어붙은 왕국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선 안나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환상의 얼음왕국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특히 공연장에 울려퍼지는 'Let it go' 등 원작의 아름다운 명곡들이 추억을 일깨우며, 다양한 무대장치와 화려한 조명효과로 구현한 아름다운 무대가 극적 재미를 더해준다.

2025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뮤지컬아! 놀자!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만 4세 이상 관람,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뮤지컬을 만날 수 있는 '뮤지컬아! 놀자!' 2025년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신나는 음악과 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스토리를 담은 공연으로, 매 공연마다 달라지는 이야기와 뮤지컬 넘버를 만날 수 있는 뮤지컬 갈라쇼이다.
4월에는 뮤지컬 '헤어스프레이'와 '그리스',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라이온 킹', '광화문 연가'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뮤지컬 무대가 선보인다.
'뮤지컬아! 놀자!' 시리즈는 4월에 이어 5월 10일(토), 6월 14일(토), 8월 30일(토), 9월 13일(토), 11월 29일(토)까지 계속된다.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2만2천원)**
문　　의 | **조이컬쳐 070-7807-0701**

▼▼

독특한 화풍과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의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션인 앤서니 브라운의 베스트셀러를 무대화한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이들의 섬세한 감정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앤서니 브라운의 이번 작품은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에서 따뜻하게 그려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웃음과 감동으로 전한다.
특히 아빠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길에서 함께 부르는 흥겨운 노래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며 어린이들의 감성지수를 한껏 높여준다.

가족뮤지컬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일 시 | 4월 2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전체 관람가, 예매시 2만3천9백원)
문 의 | 극단가람 010-2284-4842

▾▾

한국 엄마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돼지책'을 무대화한 가족뮤지컬. 회사와 학교에 다니는 아빠 피곳씨와 두 아들 사이먼, 패트릭은 집에서는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 모든 집안일은 피곳 부인 혼자의 몫, 힘든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피곳 부인은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다. 과연 엄마 없이 남겨진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가정에서 엄마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가사노동, 희생이라는 진지한 주제를 위트 넘치는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가족뮤지컬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감정표현

일 시 | 4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7만원 (예매시 4만원, 전체관람가)
문 의 | ㈜엔투게더 070-4108-9999

▾▾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학습 만화 시리즈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중 '감정 표현' 편을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특별한 무대.

특히 어린이들의 감정 표현을 돕는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가족뮤지컬로, 아이들이 직접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지루할 틈 없는 탄탄한 스토리와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려한 무대효과, 그리고 함께 따라 부르는 중독성 강한 춤과 노래들이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일 시 | 4월 27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4천8백원 (전체 관람가, 예매시 적용)
문 의 | ㈜희망극단 070-7311-3149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를 무대화한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나쁜 새엄마와 시기심 많은 언니들의 구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신데렐라의 행복찾기를 그린 이번 무대는 검증된 스토리와 캐릭터 구성으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익숙한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마술을 부린 듯한 신비하고 환상적인 무대와 전문 연기자들이 직접 부르는 라이브 퍼포먼스와 안무로 관객들을 동화 속으로 안내한다.

뮤지컬 베짱이와 노는개미

일 시 |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00, 11:2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초등학생 단체 1만원, 유치원·어린이집 단체 8천원)
문 의 | DUBU기획 010-9138-2069

▾▾

어린이 공연 전문기획사인 DUBU기획이 제작한 어린이 뮤지컬 '베짱이와 노는개미'.

베짱이는 언제나 기타를 치며 숲 속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고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한다. 베짱이는 그런 개미를 한심해하며 자기와 함께 놀자고 유혹하지만 개미는 일은 해야할 때가 있다며 열심히 일한다. 겨울이 오자 그동안 빈둥빈둥 놀던 베짱이는 그만 거지가 되어 추위에 떨고, 이 때 갑자기 개미네 집 파티를 알리는 초대장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를 무대화한 이번 작품은 어린이 관객들이 작품에 함께 참여하며 공연에 대한 흥미와 함께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관객참여형 공연이다.

뮤지컬 타키포오
몬스터 전쟁의 서막: 더 좀비

일 시 | 5월 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7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3만8천5백원)
문 의 | 율컴퍼니 1670-9788

▾▾

유튜브 구독자 245만 명, 총 조회수 25억회를 돌파한 캐리온TV의 인기 캐릭터 타키, 포오와 함께하는 짜릿한 모험과 우정 이야기.

순수하고 밝은 성격의 청년 타키와 붉은 망토를 두른 노란 곰 포오의 '타키포오'는 '타키포오 이세계 여행사', '타키포오 코믹 어드벤처' 등 어린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인기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그들의 신나는 모험을 무대에서 직접 즐길 수 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환상적인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번 무대는 특히 공연 중 등장하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타키와 포오의 모험에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뮤지컬 번개맨 시즌2 번개맨 VS 번개맨?

일 시 | 5월 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5일 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VIP석(1층) 6만6천원, R석(2층) 4만4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클립서비스 1577-3363

▾▾

시즌2로 더 강력하게 돌아온 뮤지컬 '번개맨'.

우주를 파괴하려는 계획에 실패한 가시별 대장은 가짜 번개맨을 만들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라고 지시하고, 진짜와 가짜 번개맨이 동시에 등장하자 번개별 친구들은 혼란에 빠진다. 이 틈에 가짜 번개맨에게 제압당한 진짜 번개맨은 가시덤불 감옥에 갇혀버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번개별 친구들은 번개맨을 구하기 위해 가시별로 향하게 되는데…. 과연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은 가짜 번개맨을 물리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특히 가짜 번개맨 등장으로 더욱 흥미진진해진 스토리와 새롭게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액션 퍼포먼스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2025 라이브 가족뮤지컬
알라딘

일　　시 | 5월 5일 월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2만2천원)
문　　의 | 조이컬쳐 070-7807-0701

▼▼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중동의 민속설화 '알라딘과 마술램프'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무대.
머나먼 사막 속에 존재하는 신비의 아그라바 왕국. 좀도둑이었던 알라딘은 마법사 자파의 의뢰로 마법 램프를 찾아 나섰다가 그곳에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를 만나게 되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자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본인의 신분을 왕자로 속였다가 결국 자파에게 정체가 탄로나게 되는데….
원작 중에서도 스릴과 재미가 더해진 권선징악 스토리로 관객 모두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이번 무대는 특히 직접 제작한 인도풍의 배경과 3D로 움직이는 실감나는 영상이 극을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낸다.

무용

88고개,
김온경 부산악가무를 보다

일　　시 | 4월 9일 수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 장 료 | 전석 1만원(현장 판매)
문　　의 | 동래고무보존회 010-3865-6873

▼▼

1950년대 이후 부산 춤의 텃밭을 일군 1세대 산증인으로 이 시대를 풍미한 김온경 선생의 춤인생 88세를 기념하여 마련한 특별한 무대 '88고개, 김온경 부산악가무를 보다'.
이번 무대는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활동중인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시대에 따른 김온경 명작무들의 전승과정을 분석, 부산의 독특하고 다양한 특색을 가진 춤과 음악을 렉쳐콘서트(Lecture Concert) 형식으로 무대 위에 펼친다.
특히 김온경 선생과 더불어 경상국립대 민속예술무용학과 강인숙 교수, 국수호디딤무용단 국수호 예술감독이 '광복전후의 가무악', '김온경의 춤 예술과 삶',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춤 그리고 재연'이라는 주제로 강의, 해설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해운대문화회관 H-Dance
J-블랙 Power Dance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초·중·고생 3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한국 힙합댄스 씬의 절대강자 J-블랙의 Power Dance.
제이블랙(J-black), 제이핑크(J-pink)라는 2개의 댄서 네임을 가지고 있으며, 제이블랙은 미친 사람을 표현하는 힙합 스타일, 제이핑크는 힐 댄스를 기반으로 하는 여장 댄서일 때 쓰는 댄서 네임이다.
J-블랙은 25세라는 늦은 나이에 스트릿댄서로 입문하여 29세에 '4 Da NEXT LEVEL Vol.2' 인터네이셔널 배틀 힙합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지난 2015년 '댄싱나인 시즌3'에서는 걸리쉬댄스로 강한 임팩트를 남긴 바 있다.

- 사회/김수영(TBN울산교통방송 MC)

영상

SAC on Screen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 KBS교향악단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

일　　시 | 4월 1일 화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하는 'SAC on Screen'.
'SAC on Screen'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영상 상영회로, 아티스트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생생함과 10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각도에서 담아낸 역동적인 화면, 현장감 넘치는 5.1채널 입체 서라운드 음향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2023년 2월,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무대에 올랐던 크리스토프 에센바흐&KBS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을 감상할 수 있다.

해운대문화회관 On Screen Concert
브레겐츠 페스티벌 2024
오페라 '마탄의 사수'

일　　시 | 4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5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 열리는 생생한 공연 영상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해운대문화회관 On Screen Concert.
4월에는 2024년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오페라 '마탄의 사수' 실황을 상영한다.
오스트리아의 도시 브레겐츠에서 열리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매년 7~8월에 열리는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로, 특히 호수 위에 설치된 거대한 무대에서 열리는 오페라 공연으로 유명하다.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문을 연 작품으로, 이번 상영회에서는 전통적 무대 위에 전혀 새로운 해석을 펼쳐낸 2024년 브레겐츠 판 '마탄의 사수'를 만날 수 있다.

콘서트

정동원棟동 이야기話화 3rd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4월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5: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SR석 15만4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쇼플레이 1588-0766

2025 김장훈 전국투어 콘서트 원맨쇼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12만1천원, S석 7만7천원
문　　의 | 굿초이스 1833-4581

2025 변진섭 전국투어 콘서트 변천사

일　　시 | 4월 27일 일요일 오후 6: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굿초이스 070-5222-9197

해운대 비긴어게인

현미밴드 with 아이씨 밴드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입 장 료 | 선착순 150명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회관의 야외광장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광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한 '해운대 비긴 어게인'.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미밴드와 아이씨 밴드가 출연, 창작곡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음악인과 연극인이 모인 창작 음악집단인 현미밴드는 2008년 '당기쇼, 부르쇼, 펼치쇼'라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관객과 만나왔다.
2011년 구성된 아이씨 밴드는 서로의 소통을 위한 음악활동을 하는 3인조 어쿠스틱 밴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나 자연에 대한공감,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존 다버자 재즈 콘서트

일　　시 | 5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경계를 넘어선 재즈의 향연 '존 다버자 재즈 콘서트'.
트럼펫 연주자이자 EVI 연주자, 작곡가, 프로듀서로 동시대 가장 혁신적이고 국제적으로 찬사받는 아티스트인 존 다버자는 에미상 후보, 라틴 그래미 후보, 글로벌 음악 어워드 수상자로 장르를 초월하는 예술성과 대담한 음악적 비전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존 다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중국을 아우르는 세계 각국의 뮤지션과 퀸텟을 구성하여 재즈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음악적 여정을 그리며 즉흥성, 창의성이 가득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 피아노/김대규
- 드럼/이제민
- 기타/Jacky Chen
- 베이스/박주민

행사

4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3일(목)·17일(목) 오후 2:00, 24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문자예약)

3일(목), 17일(목) 오후 2:00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7일(월) 오후 7:00 악보 속 숨은 이야기

- 강사/김보현(작곡가)

14일(월) 오후 7:00 내 친구 예수는 아나키스트

- 강사/박홍규(영남대 명예교수)

21일(월) 오후 7:00 백산(白山), 미래를 향한 여정

- 강사/진재운(다큐멘터리 영화감독)

24일(목) 오후 5:00 하이쿠 산책

28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 스크리닝-시네마 언노운: 보이지 않는 영화들 'Gavi'(2024, 30min)

- 출연/김민근(감독), 함윤정(영화평론가)

4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국내 최대 수준의 오페라, 콘서트 영상물을 구비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은 실제공연을 관람하기 전 감상회를 통해 충분한 예습 시간을 제공하며 연주자를 초청, 작은 연주회를 여는 등 클래식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월에는 매주 월요일 명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과 베토벤의 만남을, 금요일에는 3테너 특집 오페라를, 매주 주말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자유토론,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3테너 특집/파바로티-베르디 '가면무도회'(4일-5일), 카레라스-비제 '카르멘'(11일-12일), 도밍고-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레온카발로 '팔리아치'(18일~19일), 카레라스-푸치니 '라보엠'(25일-26일)

명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과 베토벤의 만남/번스타인 다큐, 베토벤 '교향곡 제1번, 2번'(7일, 12일), 베토벤 '교향곡 제3번, 4번'(14일, 19일), 베토벤 '교향곡 제5번, 6번'(21일, 26일), 베토벤 '교향곡 제7번, 8번'(28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 명곡연주회 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 뮤직 스튜디오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 음악감상과 함께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가곡 발표회, 국내외 최신 클래식 연주회 실황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입문자 환영.

프로그램

파헬벨 '캐논' 연주 형태별 비교감상
시마로자 '오보에협주곡'
가곡 '강건너 봄이 오듯'(임긍수 곡) 외 K 가곡 하이라이트
슈베르트 '미사곡 사장조', 로시니 '작은 장엄 미사'
모차르트 '플루트, 하프를 위한 협주곡', '클라리넷 5중주'
A단조 피아노협주곡의 매력 찾기 '그리그&슈만 피아노협주곡'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전막감상
베토벤 교향곡 제8번, 비제 교향곡 제1번
차이콥스키 '바이올린협주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12만원, 1회 청강비 2만원**
(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 문의)**

▼▼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 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5월부터 석 달간 진행되는 2025년 2분기 강좌에서는 드보르자크, 리스트, 쇼팽 등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음악세계을 살펴본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로 있으며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일　　시 | **2024년 12월 14일(토)-6월 8일(일)**
DUEX 부산
입 장 료 | 일반 2만5천원, 청소년 1만9천원
(만14세이상관람,평일예매시 10%할인)
문　　의 | **㈜덕스앤덕스 02-2261-1393**

'토미에', '소용돌이', '소이치의 저주일기', '목매는 기구' 등 단편부터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독보적인 공포만화 작가 이토 주지가 선사하는 치명적인 공포의 세계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부산전.

이토 준지의 작품을 기반으로, 스릴과 공포, 기괴한 상상력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다.

- 관람시간/오후 1:00-오후 7:00(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00-오후 7:00, 월-목요일 휴관)

포슬린페인팅아트 작품전

봄이 오는 소리

일　　시 | **4월 4일(금)-4월 14일(월)**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

도자기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로 섬세한 색감과 세밀한 터치로 예술적인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내는 포슬린페인팅아트 작품전.

포슬린페인팅아트의 세밀함과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2025 KT&G 상상마당 부산 기획 체험전

GIFT Vol. 4 시장에 서면

일　　시 | **2월 22일(토)-5월 25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입 장 료 | 일반(만 19세 이상) 1만5천원
유아~청소년(만 4세~18세) 1만원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

조몽룡 초대 개인전

Arabesque & Bloom

일　　시 | **4월 5일(토)-4월 27일(일)**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

선과 색이 만나 빚어내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섬세한 감성을 담은 조몽룡 작가 초대전.

이번 전시에서는 발레리나의 우아한 몸짓을 담은 드로잉과 정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 화병 정물화를 함께 선보이며 역동성과 고요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예술의 장을 제공한다.

김은선 개인전

너에게도 바람이 불어오길 바래

일　　시 | **4월 15일(화)-4월 20일(일)**
BNK부산은행갤러리
※ 일요일 휴관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이지훈 개인전

TIMESLIP-bluehour展 영도다리 너머

일　　시 | **4월 10일(목)-5월 3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외항선 선장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바다와 항구의 이미지를 화폭에 담아온 이지훈 작가 개인전.

작가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영도다리를 매개로 도시와 시간, 인간의 희망과 도전을 탐구하는 전시로, 도시의 수직적 풍경과 수평적 연결, 그리고 비행기와 달을 통해 꿈과 이상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며, 변화와 가능성, 조화와 통합이라는 주제를 표현한다. 여기서 영도다리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 장소이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 매주 일 · 공휴일 휴관)

짐아비뇽 : 21세기 스마일 전

일　　시 | **4월 17일(목)-8월 31일**
(일) 포디움다이브엠
입 장 료 | **전석 1만2천원(예매시 할인)**
문　　의 | **(주)크리스카홀딩스 752-2200**

박혜경 개인전 **포도나무의 비밀이야기**

일　　시 | **4월 23일(수)-4월 29일(화)**
BNK부산은행갤러리
※ 일요일 휴관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

포도나무 작품으로 알려진 박혜경 작가의 자연물을 중심으로 한 상징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작품전.

작가의 작품에 표현된 인간의 고통과 성장, 소망과 갈망이 관람객들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선사한다.

냉탕·온탕·바나나우유

홍석진 지음
호밀밭 / 1만 9,800원

미디어 아티스트 홍석진의 다원예술 10년을 담은 책. 홍석진은 1974년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약 3년 반 동안 영국 아일오브맨에서 살다 부산으로 돌아왔고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캐나다의 에밀리카 예술대학 혼합 미디어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콘텐츠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에밀리카 예술대학에서 회화와 미디어, 영상 등을 공부했고 졸업작품 <누가 금붕어를 죽였는가?>로 2009년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단편 부문에서 수상했다. 영상매체를 기반으로 상업 및 비상업 영역에서 활동 중이며 비주얼아트라는 큰 틀 속에서 영화,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프로젝션 맵핑,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귀국 후 2014년부터 몸(무용)이라는 아날로그 매체와 디지털 매체의 결합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비주얼아트라는 큰 틀 속에서 영화,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프로젝션 맵핑,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책은 홍석진 미디어아트의 원형이 되었다고 해도 좋을 2014년의 〈쿰바카〉 이후 10년 동안의 작품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비평과 리뷰를 함께 실었다.

초상화의 옷장

김정연 지음
눌와 / 2만 5,000원

르네상스부터 19세기까지, 초상화 속 여성들의 패션으로 읽는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이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에서 패션문화와 경영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초상화를 남긴 여성들이 독자적인 패션을 만들어낸 배경과 유행을 선도하며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 이에 얽힌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해준다. 저자는 "서양에서 여인들도 초상화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 15세기 초중반부터 초상화가 사진으로 대체되기 전인 19세기 후반까지,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지고 패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유럽의 대표적인 19명의 여인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비롯해 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패션을 통해 제각기 아름다움과 개성을 추구하며 치열하게 살아간 여성들이다. 초상화의 복식들은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 그려진 경우가 많고, 초상화 속 인물의 삶과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저자는 의복뿐 아니라 신발과 머리 장식을 포함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과 그림 속 숨은 요소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다양한 참고자료와 함께 제시되는 풍부한 배경 스토리는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몰입하게 한다.

글로벌 스트리밍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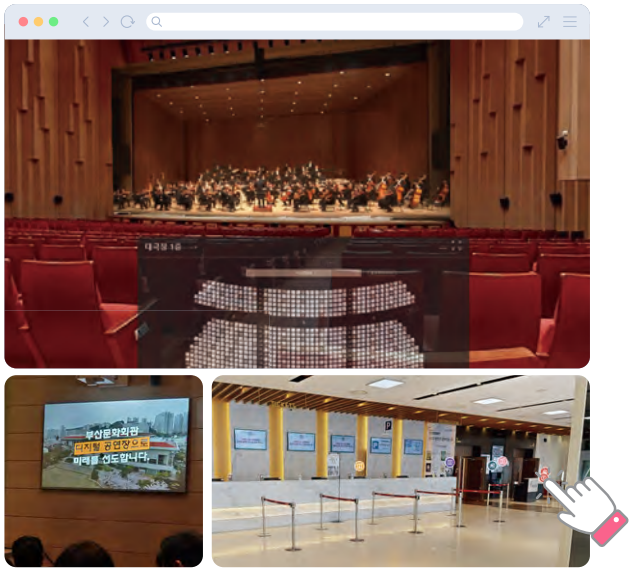
문성길 지음
부키 / 2만 9,800원

지난 세기 100년간 콘텐츠 산업 최강자로 군림하던 할리우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빅테크 진영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도전장을 내밀면서부터다. 그리고 콘텐츠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오징어 게임〉〈기생충〉〈흑백 요리사〉 등 드라마, 영화, 예능 가리지 않고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반가운 현상이지만 객관적으로 한국의 영상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는지 살펴볼 때다. 넷플릭스의 '2023년 하반기 시청 시간 자료'에 따르면 비영어 콘텐츠 시청 중 한국어 콘텐츠가 9퍼센트, 스페인어 7퍼센트, 일본어 콘텐츠가 5퍼센트를 차지했다. 넷플릭스에서 비영어 콘텐츠의 시청량은 전체 시청 분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영어 콘텐츠를 포함한 넷플릭스 전체 시청량 가운데 K콘텐츠의 시청량은 아직 3%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K콘텐츠의 탄탄한 입지를 보장한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말이다.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주요 거점 국가와 펼치는 치열한 합종연횡 또는 포섭 전략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기회를 제공하는지, K콘텐츠의 생존 방도를 모색하는 책이다.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공연장(VR) 시스템 구축

글 **윤광윤** (재)부산문화회관 무대예술팀 과장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연 예술 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면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공연장이 문을 닫았고, 이는 예술가들과 관객 모두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로 공연 예술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연장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발맞추어, 예술가 또는 관객을 위하여 편리하게 공연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상공간 무대 서비스에 대한 고민에서 이번 디지털 공연장(VR) 시스템 사업은 시작하게 되었고, 2024년 디지털 혁신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의 기술지원을 받아 구축하게 되었다.

디지털 공연장(VR) 시스템은 디지털트윈 VR 솔루션이란 기술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쌍둥이란 의미로 실제공간을 복제하여 온라인 공간에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다. 즉 부산문화회관 공연장을 온라인상에 동일하게 구축하여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공연장을 둘러볼 수 있는 온라인 VR 서비스로, 360° 좌석뷰와 온라인 공연장 투어를 위한 관객용과 더불어 공연장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분장실에 대한 정보, 무대 구조 치수 측정, 화상회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자용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내가 예매한 좌석에서 공연장의 무대가 어떻게 보이는지 좌석배치도를 보며 상상에 맡겼던 환경에서 이제부턴 디지털 공연장(VR) 시스템에 접속해서 360° 좌석뷰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 공연장을 찾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공연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공연장 백스테이지 곳곳을 확인하며 무대시설 환경을 확인할 수 있고, 긴밀한 협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공연장(VR) 가상공간 무대에서 기술 스태프와 만날 수 있어 글로컬 거점 공연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서비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의 디지털 공연장(VR)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연장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디지털 콘서트, 디지털 전시실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연장 콘텐츠를 개발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무대 연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관객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다가오는 부산의 공연 예술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부산콘서트홀,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발전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넘는 공연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관객의 취향을 파악하여, NFT 기술을 통해 희소성 있는 디지털 티켓이나 굿즈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하고자 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25 교향악축제 참가

4월 17일 예술의전당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1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5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지난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교향악축제'는 명실상부 세계 유일, 세계 최대의 관현악 대제전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들과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협연자들이 함께 하며 우리 음악계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새로운 시작(The New Beginning)'이라는 부제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이번 교향악축제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 전국 18개 교향악단이 참여한다. 특히 1980~90년대생 젊은 지휘자들과 역대 제일 많은 해외 협연자들이 참여하여 K-클래식 현재와 미래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라벨 탄생 150주년과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기념한 선곡부터 20세기 음악의 독창성과 실험적인 색채를 즐길 수 있는 현대음악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즐길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 피아니스트 박재홍, 소프라노 박미자의 협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올해 무대에서는 2021년 페루초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4개의 특별상과 함께 우승을 거머쥐며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음악가로 명성을 쌓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재홍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버르토크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에 이어 말러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심플하고 진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말러 '교향곡 제4번'을 연주한다. 이 곡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악장 '천상의 삶(Das himmlische Leben)'은 투명한 미성과 기교로 호평받는 서울대학교 박미자 교수가 노래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5 교향악축제' 참가에 앞서 4월 11일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9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동일 프로그램으로 부산관객과 먼저 만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과 합동교류연주회 개최

4월 10일 강릉아트센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4월 10일 강릉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과 합동교류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합동교류연주회는 부산-강원(부전-강릉) 동해선 개통을 기념하고 두 지역간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는 무대로, 4월 강릉 공연에 이어 12월 18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을 방문, 부산문화회관에서 합동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날 무대에서 이동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40주년을 기념하여 작곡된 축전곡인 국악축전 '미래'(이정호 곡)와 해금협주곡 '가리잡이'(박범훈 곡), 민요모음곡 '육자배기-동백타령-노랫가락-매화타령-뱃노래'(이지영 편곡)을 들려준다. '가리잡이'는 수많은 신(神)중에 필요한 신만을 가려서 모신다는 뜻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 부수석 방병원과 더블베이시스트 박지수가 함께 연주하며, 민요모음곡 중 남도민요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경기민요는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 김은정이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에 이어 후반부에서는 김창환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2025년도 공연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공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기획, 무대예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민문화 향유에 앞장서 함께할
지역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I. 모집내용

대 상 공연기획, 무대예술 분야에 종사할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
자 격 부산 거주 이력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39세 이하 청년
인 원 총10명 <공연기획 및 무대예술 분야>
접 수 2025년 4월 1일(화) ~ 4월 17일(목), 18시까지
방 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면 접 2025년 4월 24일(목) 14시
발 표 2025년 4월 30일(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II. 교육 및 지원내용

기 간 2025년 5월 7일(수) ~ 8월 29일(금)
내 용 공연기획 인력 양성 아카데미 <공연, 축제, 홍보 이론 및 실습교육>
무대예술 인력 양성 아카데미 <무대, 조명, 음향 이론 및 실습교육>
지 원 교육비 전액 무료, 실습비 지급 <4대보험 가입 외>
장 소 부산문화회관
문 의 문화융합팀 051-630-5241

※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제81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안내

연주회 개요

2025년 11월 20일(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응시 자격

- 원서접수 시 초 · 중 · 고 · 대학교(인제대 포함) 등 부산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부산지역에 거주하며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과 동일 연령 청소년

※ 단, 2022년(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응시 부문 피아노,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선발 인원

부문에 관계없이 최대 5명(초 · 중 0~5명 / 고 · 대 0~5명)

※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합격 대상자의 수가 상이할 수 있음

접수기간

2025년 4월 28일(월) 10:00~5월 14일(수) 17:00

제출서류

응시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홈페이지 www.bscc.or.kr 다운로드) 각 1부,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1부, 주민등록표(동일 연령 청소년 해당자에 한함) 1부

접수처 이메일 bhkim@bscc.or.kr

※ 메일 발송후 접수 완료 여부 반드시 유선전화 확인 요망

전형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19일(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 세부일정 5월 16일(금) 홈페이지 공지

전형과목

협주곡 단악장(자유곡으로 연주 시간 10분 내외의 곡)

※ 유의사항

- 저작권과 관련하여 렌탈(임차)해야 하는 악보의 경우, 합격자 측에서 연주를 위한 교향악단용 악보 임차비를 부담해야 함
- 교향악단 미보유 악보의 경우, 합격자 측에서 연주를 위한 교향악단용 악보를 직접 제공해야 함
- 무반주 및 암보로 전형 진행
- 타악기는 교향악단 보유 악기를 사용하여 응시
- 합격자에 한해 응시곡과 연주곡은 같아야 함. 단, 교향악단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합격자 발표

2025년 5월 26일(월) 10:00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공고

※ 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예술단운영팀 교향악단 담당
(Tel. 607-3122)

※ 악보(보유 현황 및 렌탈) 관련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악보담당(Tel. 607-3144)

※ 악기(보유 현황) 관련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담당(Tel. 607-3145~6)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배우 오디션 안내

공연개요

- **공연일시** : 2025년 7월 17일(목)~7월 19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총 3일 4회
- **연습일정** : 2025년 5월 9일(금)~
  ※ 연습 스케줄 홈페이지 확인, 6월 9일 이후 스케줄 반드시 엄수
  ※ 연습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공연 및 연습 일정은 제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출·재구성** : 김지용(현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 **응시자격** :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예술인 중
  아래 요건 충족
  ① 부산광역시 출생자
  ② 서류 접수일 기준 부산광역시 주소를 둔 자
  ③ 부·울·경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위 요건 중 1개 충족 시 신청 가능
  ※ 적격자 없을 시, 위 요건과 달라질 수 있음

모집 전형 및 배역

- **평가항목**
  ① 지정 대사 (당일 현장 배부)
  ② 자유연기 및 특기 (5분 이내)
  ③ 질의 및 응답
- **모집대상** : 20명 ※ 주요 배역 및 코러스

오디션 개요

- **오디션일정** : 2025년 4월 19일(토) 오전 10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시간공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오디션장소** : 부산문화회관 다듬채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년 4월 7일(월)~4월 11일(금) 17:00
- **접수방법**
  ①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커뮤니티
  -새소식-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첨부(상반신 1장)
  ③ 작성 후 manho007@bscc.or.kr 로 이메일 제출
  ※ 지원서 메일 제목은 [로미오와줄리엣_오디션지원서_지원자이름_성별]로 작성(예: 로미오와줄리엣_오디션지원서_홍길동_남)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합격자발표** : 2025년 4월 24일(목) 17: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팀 ☎ 051-607-6051

Romeo & Juliet

BSCC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5 공연프로그램

예매오픈

2025년 4월 9일(수) 오후 2:00

*정기회원 선오픈 4월 8일(화) 오후 2:00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I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I 고객지원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I ARS 1번 **외국어 문의 I** ARS 2번

티켓수령 I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1. 2025. 1. 23.(목) 7:30pm - 1. 24.(금) 11:00am | with 박진우
#2. 2025. 3. 25.(화) 7:30pm - 3. 26.(수) 11:00am | with 조인혁
#3. 2025. 7. 24.(목) 7:30pm - 7. 25.(금) 11:00am | with 조성현
#4. 2025. 8. 28.(목) 7:30pm - 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5. 2025. 10. 30.(목) 7:30pm - 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해설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문화 | 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2025. 2. 20.(목) 7:30pm #1.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 브람스교향곡 제2번
• 지휘 | 장윤성 • 피아노 |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2025. 4. 4.(금) 7:30pm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교향곡 제1번
• 지휘 | 지중배 • 바이올린 | 김다미
2025. 5. 29.(목) 7:30pm #3.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 브람스교향곡 제4번
• 지휘 | 홍성택 • 피아노 | 노윤화
2025. 7. 25.(금) 7:30pm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교향곡 제3번
• 지휘 | 윤상운 • 비올라 | 김남중 • 클라리넷 | 백동훈

※ 7세 이상 관람

압도적 박력으로 넘나드는 장르의 경계, 록 그너머의 록

잠비나이 콘서트 with 미역수염

문화 | 중극장 2025. 3. 15.(토) 5:00pm

전석 40,000원

• 출연 | 잠비나이 • 서포트 액트 | 미역수염

※ 7세 이상 관람

두 남녀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연극 <랑데부>

문화 | 중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작·연출 | Yossef K 김정한

※ 7세 이상 관람

한국 창작뮤지컬 최초 그랜드슬램 달성

뮤지컬 <웃는 남자>

문화 | 대극장 2025. 4. 22.(화)-26.(토) 화-목요일 7:30pm, 금요일 2:30pm, 7:30pm, 토요일 2:00pm, 7:00pm

R석 170,000원 S석 140,000원 A석 110,000원 B석 80,000원

※ 7세 이상 관람

독일 고전주의 전통의 정수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5. 5. 2.(금) 7:3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서로 다른 음악적 깊이가 만나 빚어내는 우정의 선율

김영욱&김다솔 듀오 콘서트

©Shin-Joong Kim ©Holger Talinski

문화 | 중극장 2025. 5. 3.(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바이올린 | 김영욱
• 피아노 | 김다솔

※ 7세 이상 관람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춤

국립현대무용단 <얍! 얍! 얍!>

문화 | 중극장 2025. 6. 14.(토)-6. 15.(일) 2:0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안무 | 밝넝쿨, 인정주

※ 48개월 이상 관람

무더위를 즐기는 기발한 상상력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문화 | 대극장 2025. 7. 5.(토) 11:00am, 2: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연출 | 진영섭
• 원작 | 안녕달 • 대본 | 윤희경

※ 24개월 이상 관람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두 광대의 여정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글로브(Glob)>

문화 | 중극장 2025. 7. 16.(수) 11:00am,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눈과 귀로 즐기는 환상적인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루멘스(Lumens)>

©EmmanuelCrombez-live

문화 | 중극장 2025. 7. 19.(토) 11:00am, 2: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문화 | 대극장 2025. 7. 17.(목)-18.(금) 7:30pm, 19(토) 2:00pm,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연출, 재구성 | 김지용 • 원작 | W. 셰익스피어

※ 7세 이상 관람(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권장)

새로운 세상의 갈망, 민족의 혼을 되찾으려는 의지와 저항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문화 | 대극장 2025. 8. 17.(일)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파멸의 빌미는 무엇인가

경남도립극단 순회공연 연극 <빌미>

문화 | 중극장 2025. 8. 2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 최원석

※ 14세 이상 관람

<팬텀싱어4>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유일무이한 카운터테너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

©Sangwook Lee

문화 | 대극장 2025. 9. 5.(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문화 | 중극장 2025. 9. 6.(토)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연극 <빵야>

문화 | 중극장 2025. 11. 14.(금)-16.(일) 시간미정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극작 | 김은성 • 연출 | 김태형

※ 14세 이상 관람

현대무용의 혁신 그 자체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문화 | 대극장 2025. 11. 21.(금) 7:30pm,
22.(토) 2:00pm

VIP 11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예술감독 | Katrín Hall

• 안무 | Alexander Ekman

※ 14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이 만드는 꿈의 무대

<2025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2. 3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연주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천상의 화음'

2025 빈 소년합창단

시민 | 대극장 2025. 1. 23.(목) 7:30pm

VIP석 88,000원 R석 66,000원 S석 44,000원 A석 22,000원

• 지휘 | Oliver Stech

※ 7세 이상 관람

황치열 The Special

시민 | 대극장 2025. 2. 15.(토) 5:00pm

VIP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55,000원

※ 7세 이상 관람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살롱 드 바이올린 I <대니 구>

시민 | 소극장 2025. 2. 21.(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특별한 작품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시민 | 전시실1 2025. 3. 7.(금) 2:00pm, 7:30pm

8.(토) 2:00pm, 5:00pm

전석 30,000원

• 프로듀서 | 석재원 • 연출 | 오경택

• 출연 | 김아영, 정새별

• 제작 |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 13세 이상 관람

LG아트센터 제작 / 사이먼 스톤 연출

연극 <벚꽃동산>

시민 | 대극장 2025. 3. 13.(목)-14.(금) 7:30pm

3. 15.(토) 3:00pm

VIP석 11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13세 이상 관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키즈송 위드 클래식>

시민 | 소극장 2025. 3. 15.(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진화와 변화를 멈추지 않는 영원한 현역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시민 | 대극장 2025. 3. 29.(토) 6:00pm, 30.(일) 4:00pm

R석 154,000원 S석 132,000원

※ 7세 이상 관람

19년만에 돌아온 뮤지컬

돈주앙 -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시민 | 대극장 2025. 4. 25.(금) 7:30pm,
26.(토)-27.(일) 2:00pm, 6:30pm
R석 170,000원 S석 140,000원 A석 110,000원 B석 80,000원
※ 8세 이상 관람

도심 속 문화 쉼터

2025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광장 2025. 4. 11.(금), 4. 18.(금), 4. 25.(금), 5. 2.(금),
5. 9.(금) 12:10pm
무료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시민 | 소극장 2025. 5. 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5. 5. 1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만들어내는 울림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 | 대극장 2025. 5. 29.(목) 7:3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A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 '지붕 위의 바이올린' '모비딕' '페임' 주역

살롱 드 바이올린 II <KoN(콘)>

시민 | 소극장 2025. 6. 20.(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5년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

시민 | 소극장 2025. 6. 27.(금) 8:00pm
6. 28.(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출연 | 강애심,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조민수
※ 36개월 이상 관람

세기를 넘어 관객을 매혹시키는 최고의 클래식 발레

모스크바 라 클라시크 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5. 7. 12.(토)-13.(일)
2:00pm, 6:30pm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 8세 이상 관람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몸에 관한 의심과 질문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시민 | 대극장 2025. 8. 30.(토) 2:00pm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안무 | 김보라
※ 7세 이상 관람

송승환이 만든 첫 번째 대형 가족뮤지컬

뮤지컬 <정글북>

시민 | 대극장 2025. 9. 6.(토) 11:00am, 2:00pm, 4:30pm,
9. 7.(일) 11:00am, 2:00pm
R석 77,000원 S석 66,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 아동 단독 입장은 11세(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능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의 미래를 울리다!

2025 대학 교향악축제

시민 | 대극장 2025. 11. 26.(수)-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 7세 이상 관람

2024년 서울미래연극제 초연, 작품상·연출상·연기상 수상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시민 | 소극장 2025. 11. 28.(금) 7:30pm,
29.(토)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출연 | 오치운
※ 14세 이상 관람

놓칠 수 없는 겨울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2025. 12. 5.(금) 7:30pm,
6.(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48개월 이상 관람

©Korean National Ballet

우리 크리스마스에 볼까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시민 | 대극장 2025. 12. 27.(토) 5: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 Sangwook Lee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 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16회 정기연주회
RHAPSODY & CAPRICCIO
문화 | 대극장 2025. 1. 10.(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이진상

제617회 정기연주회
VALENTEIN
문화 | 대극장 2025. 2. 14.(금) 7:30pm
- 지휘 | 백승현
- 바이올린 | 박은중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1
문화 | 중극장 2025. 2. 21.(금) 7:30pm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3. 5.(수) 7:30pm
- 지휘 | 홍석원

©황필주

제618회 정기연주회
(ENT)SPANNUNG
문화 | 중극장 2025. 3. 6.(목)-3. 7.(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최송하, 유다윤

기획음악회
미완성 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4. 10.(목) 7:30pm
- 지휘 | 홍석원

©황필주

제619회 정기연주회
PARADISO
문화 | 대극장 2025. 4. 11.(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소프라노 | 박미자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2-줌인
문화 | 챔버홀 2025. 4. 30.(화) 7:30pm

기획음악회
우리 아이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5. 8.(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샌드아트 | 노선이
- 내레이션 | 이혁우, 오희경

제620회 정기연주회
NEW WORLD
부산콘서트홀 2025. 5. 23.(금) 7:30pm
- 지휘 | 홍석원

©황필주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6. 18.(수)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
문화 | 대극장 2025. 6. 1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첼로 | 최하영

©andrej-grilc

부산시립합창단

제195회 정기연주회
벤자민 브리튼 <봄의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5. 3. 13.(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협연 | 최정원, 이아경, 김효종, 김대영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문화 | 대극장 2025. 5. 3.(토) 11:00am, 3:00pm,
5. 4.(일) 5:0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310밴드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

문화 | 중극장 2025. 6. 20.(금) 7:30pm
- 객원지휘 | 성상철

제197회 정기연주회
2025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5. 7. 2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 | 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UKO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 칸타타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UKO

부산시립무용단

제191회 정기공연
남풍

문화 | 대극장 2025. 5. 9.(금) 7:30pm,
5. 10.(토) 3:00pm
- 연출 | 이정윤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5. 7. 11.(금) 7:30pm, 7. 12.(토) 3:00pm
- 연출 | 이정윤

제192회 정기공연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윤

특별공연
홀로홀춤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9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 <부산, 바다>

문화 | 대극장 2025. 3. 27.(목) 7:30pm
- 지휘 | 이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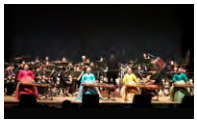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문화 | 중극장 2025. 4. 23.(수) 11:00am
- 지휘 | 김경수

제230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초연의 밤>

문화 | 대극장 2025. 6. 24.(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5. 7. 22.(화) 7:30pm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광복의 빛을 넘어

문화 | 대극장 2025. 8. 14.(목) 7:30pm

제231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I
위대한 유산

문화 | 대극장 2025. 9. 30.(화) 7:30pm
- 지휘 | 이동훈

제232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V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5. 10. 28.(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11. 21.(금) 7:30pm

제233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부산-강릉 KTX 개통 기념 <이음> 국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2. 18.(목)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_창작초연 <오롯이 빛나는>

시민 | 소극장 2025. 3. 28.(금) 7:30pm, 3. 29.(토) 5:00pm
• 작, 연출 | 차승호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_창작초연 <초월자>

시민 | 소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5:00pm
• 작, 연출 | 김민우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문화 | 사랑채극장 2025. 6. 6.(금)-7. 6.(일)
주말·공휴일 10:30am, 2:00pm
• 작 | 김영화 • 작곡 | 이영재
• 연출 |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메멘토

문화 | 대극장 2025. 4. 1.(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2025 솔로이스트들의축제

문화 | 대극장 2025. 5. 13.(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5. 6. 14.(토) 5:00pm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6.(화)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문화 | 중극장 2025. 3. 2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6회 정기연주회
가족뮤지컬 <엄마 같이 걸어요>

문화 | 대극장 2025. 5. 31.(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11. 1.(토) 5: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MEMBERSHIP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팀(051-607-7072, www.bscc.or.kr)

MEMBERSHIP GUIDE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종료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종료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잠비나이×미역수염 콘서트 종료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3:00 종료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3.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얍! 얍! 얍!>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글로브(Glob)>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1:00,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7:30 40매)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로미오와 줄리엣>

2025년 7월 17일(목)-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루멘스(Lumens)>

2025년 7월 19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경남도립극단 순회공연 연극 <빌미>

2025년 8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2025년 8월 30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

9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2025년 9월 6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0매)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30매)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2025 제야음악회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 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2025년 2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 호 게재)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손혜경	손내과의원 원장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팀(607-6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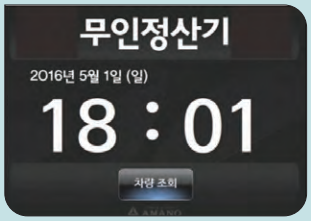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주차 안내

부산문화회관을 찾으시는 관객들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기존 주차요금제가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설치된 사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출구에서 기다림 없이 빠른 출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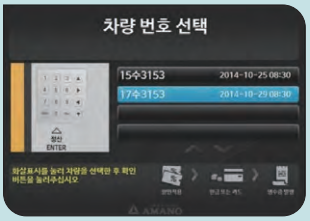
주차시간	요금	할인 대상	
입차 후 4시간 이내	2,000원	• 정기회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 경차, 친환경, 다자녀, 요일제 • 다회(2회 이상) 수강등록한 아카데미 수강생	50%
4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최대	4,700원		

무인정산기 등록안내



Step 1 차량조회 선택

Step 2 차량번호 입력



Step 3 차량선택

Step 4 바코드 할인 후 결제
(바코드 할인 인식 후 폐기)

정기회원 주차 안내

- **무료주차권 사용** 기존의 정기회원 주차쿠폰은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편을 통해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주차권을 수령하지 못한 회원들은 고객지원센터(607-6000)로 연락바랍니다.
- **주차요금 할인** 기존 정기회원카드 제시가 아닌 사전 등록 차량에 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정기회원 기간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등록 방법** E-메일(cus@bscc.or.kr),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센터 051) 607-6000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지원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참여기간 : 2025. 3. 25.(화)~4. 16.(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4. 25.(금)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3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4134	010-****-6702	010-****-2043
010-****-7566	010-****-5866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내)
051)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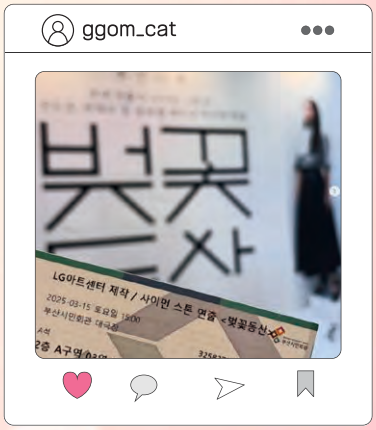
Best Western PLUS Busan Songdo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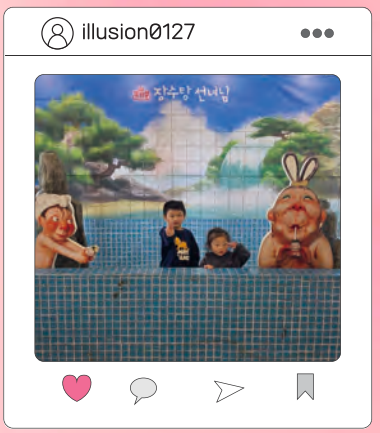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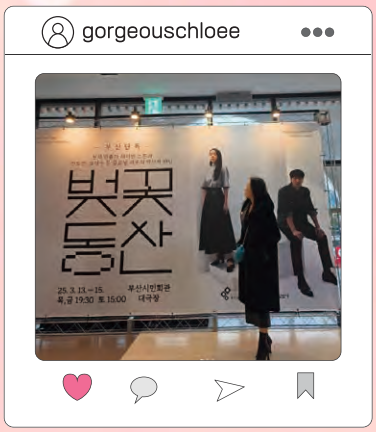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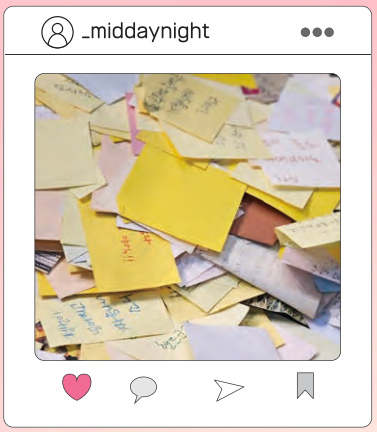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제196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지휘 이기선 **각색 및 작·편곡** 이진실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2310밴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25. 5. 3.(토) 11:00, 15:00 I 5. 4.(일)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 R석 20,000원, S석 14,000원 **입장연령** | 36개월 이상(1인 1티켓) **예매** | www.bscc.or.kr **문의** | 607-6000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2025 시민뜨락축제

Festival

2025년 4 ~ 10월

부산시민회관 앞 광장
도모헌
롯데아울렛 동부산점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

주최/주관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협력 | 부산소공연장연합회 Busan Small Art Hall Association 후원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NATIONAL ARTS CENTRE
CENTRE NATIONAL DES ARTS
Canada is our stage. Le Canada en scène.
NAC·O O·CNA
National Arts Centre Orchestra
L'Orchestre du Centre national des Arts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2024·2025
CANADA-KOREA
Year of Cultural Exchanges
CANADA-CORÉE
캐나다-한국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CANADA'S NATIONAL ARTS CENTRE ORCHESTRA
with 손열음
WITH YEOL EUM SON
지휘 알렉산더 셸리 Alexander Shelley
피아노 손열음 Yeol Eum Son
2025. 5. 29.THU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티켓가격 VIP석 150,000원 / R석 130,000원 / S석 90,000원 / A석 50,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후원 Canada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interpark 티켓
관람연령 7세 이상 관람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Violin

YOUNG-UK KIM

Piano

DASOL KIM

duo concert

서로 다른 음악적 깊이가 만나
빚어내는 우정의 선율

김영욱 & 김다솔 듀오 콘서트

2025. 5. 3. (토)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MOC PRODUCTION 2024 (주)목프로덕션 티켓 R석 60,000원 | S석 40,000원 (7세 이상 관람 가능) 예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 번)